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출생, 성별, 학력, 직업, 그리고 신체적 조건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는 슬기와 용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 사회, 국가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데, 청소년육성에 대한 그 동안의 국민적 인식은 주로 그 책임이 가정이나 학교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지도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에는 많은 현실적인 한계가 따랐다. 특히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 아래서는 가정의 부모나 학교의 교사가 청소년육성의 본래의 취지나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을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인으로서 성장케 하기 위한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통한 집단활동 전개 of 필요성은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단체는 1960년대 이후 비로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수에 있어서나 활동내용에 있어서 매우 급속한 진전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청소년단체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각 시기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변화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고, 그러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단체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청소년단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현 단체의 수용능력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별(시,

군, 구), 행정단위별로는 청소년단체활동이 불균형화되어 참여 기회가 일부 청소년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중심의 단체활동은 지방자치제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단체활동의 대상에 있어서도 학생이 중심이 됨으로써 무직, 근로, 복무청소년 등이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단체가 학교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학교에서 특별활동시간의 쉼활동으로 진행되는 단체활동의 경우 주로 6개 청소년단체 즉, 한국청소년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해양소년단연맹, 청소년적십자, 도덕재무장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그 외의 많은 단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급별로는 국민학교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어 중·고등학교의 활동이 저조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지도자 및 시설면에 있어서도 주로 학교에 의존하고 있어 지도자의 전근 등에 따른 지도력 공백, 전문적 지도력의 미흡, 공식행사의 제약, 기자재사용의 제약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는 어떤 청소년단체라고 하더라도 모든 조건과 여건을 충분히 구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제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단체활동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자원으로, 또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해결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풍부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가 가진 그 자체의 자원 이외의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단체활동의 전개는 청소년단체가 학교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현 단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단체가 본래 지니고 있는 이념을 실현하는 데 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중심 단체활동은 학교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청소년단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단체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경험 축적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곧 현행 청소년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현황을 토대로 유형별 지역중심 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의 활동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현행의 단체활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을 촉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청소년단체활동이 지역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써 제기되었으며 그 기본개념은 학교중심의 조직운영에 따른 제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동네중심으로 소규모 청소년운동의 형태로 전개하여 청소년활동을 청소년들의 구체적 생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첫째, 지역중심활동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아보고, 둘째, 학교중심활동의 일반적 성격과는 다른 지역중심단체의 운영상·활동상의 특성을 파악하며, 셋째, 지역중심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 제 2 절 연구의 방법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하였다.

첫째, 이론적 고찰로서 지역중심활동의 개념을 청소년단체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을 단위로 하는 활동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파악하였고, 지역중심활동의 필요성과 의의를 지역사회역할 강화, 학교중심단체활동의 한계극복, 프로그램의 지역화와 시설의 확보에 두었으며, 지역사회교육의 접근모형과 일반 청소년단체의 조직특성 및 활동형태를 기반으로 지역중심활동의 형태와 유형을 조직형단체와 회관형단체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둘째, 청첩에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각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지역중심단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16개 단체를 조직형단체와 회관형단체로 구분하여 단체의 설립년도, 설립주체, 회원구성, 회원모집방법, 지도자, 집회장소, 활동장비(시설), 운영재원, 주요활동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현재 지역중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중심단체활동 프로그램, 지도자, 이용시설, 단체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체활동의 문제점 및 유리한 점, 그리고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와 지역중심단체가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넷째, 사례조사와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토대로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부모의 인식전환, 지도자·자원지도자의 확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의 지역중심화, 지역사회의 후원협의회 구축 및 청소년단체간의 구축 필요성, 행정적 지원상의 고려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면접조사(기관방문조사,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제반 선행연구와 문헌, 그리고 청소년단체에서 수집한 기존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방향의 설정 및 내용의 구체화를 시도하였다.

문헌연구에 있어서는 그간의 청소년연구의 전반적 경향성이 주로 가정, 학교, 사회라는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을 뿐이며 “사회”의 축에 있어서도 사회환경, 세대, 매스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을 뿐, 지역사회단위, 나아가 지역중심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청소년단체에 관한 연구도 일부 단체의 활동에 관한 연구나 학교의 써클활동과 관련한 연구논문과 자료가 발표되고 있을 뿐 총체적 관점에서의 청소년단체 육성방안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이란 청소년활동의 현장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결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대」 또는 「지역화」란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되거나 「지역단위 청소년운동」 및 「청소년단체육성」을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논의전개를 위한 이론적 논거를 위해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례조사는 면접조사를 거쳐서 실시되었는데,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청협가입단체 중에서 지역중심단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를 선별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선별된 단체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각 단체의 지역중심활동 현황과 이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사례조사단체를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실제 조사는 1992년 5월 14일~1992년 6월 5일과 1992년 9월 15일~1992년 10월 8일의 두차례에 걸쳐 조직형단체와 회관형단체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최종 분석된 사례는 16개 단체였다(〈표 I-1〉참조).

〈표 I-1〉

사례조사 분석단체

지역 유형	회 관 형	조 직 형
대 도시	목동청소년회관 (서울)	해양소년단 직할대(서울)
	봉천종합사회복지관(서울)	금강지역대 (서울)
	부산YWCA (부산)	한아람단 (서울)
		동일지역대 (부산)
중 소 도시	근로자종합복지관(광명시)	대관령지역대(강릉)
	의정부YMCA연맹(의정부)	남원지역대(남원)
		새암지역대(정주)
		낙농4-H(진천군)
		남해화학지역단(여수)
		원불교지역대(이리)
	성결교회지역대(전주)	

사례조사에 사용된 조사표는 조직형과 회관형의 두가지로 작성되었는데, 일반현황, 회원의 일반적 특성, 조직활동의 동기, 운영재원, 문제점,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시설을 이용한 조직활동의 동기에서 조직형단체와 회관형단체의 조사표의 차이를 두었다.

설문조사는 1992년 9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행해졌는데, 주로 연구원과 현지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단체지도자에게 면담과 설문을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표집대상 청소년단체들중 몇개의 단체는 우편조사로 하였다.

대상의 표집은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33개 청소년단체중 현재 지역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단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단체들을 단체 유형별, 지역별로 4-5개씩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단체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은 단체의 크기에 비례하여 대상을 표집하였다.

이러한 표본설계에 따라 청소년 865매, 지도자 295매의 설문지를 배포하

였으며 청소년은 619매(회수율 71.6%), 지도자는 200매(회수율 67.8%)가 회수되어 전체 819매가 회수되었다(전체 회수율 70.6%). 회수된 설문지는 조사 실시에서 오는 오기와, 분석의 유효성이 없는 것, 무응답이 많은 것 등을 검사과정에서 제외시켰으며,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유효사례수는 전체 803매였다(유효율 98.0%). 표본설계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단체유형별 표본수와 유효사례수 현황은 다음 <표 I-2>와 같다.

(표 I-2) 설문조사 표집계획 및 사례수 (단위 : 명, %)

	지역	단체명	표본수(회수)	회수율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
조직 형	대 도 시	금강 지역대	65/15(58/15)	89.2/100.0
		인화 지역대	80/40(10/15)	12.5/ 37.5
		한 아람단	45/ 5(45/ 5)	100.0/100.0
		해양소년단 직할대	30/20( 0/15)	0.0/ 75.0
		동일 지역대	60/15(54/ 0)	90.0/ 0.0
	중 소 도 시	남원 지역단	80/25(74/19)	92.5/ 76.0
		원불교 지역대	50/20(43/ 8)	86.0/ 40.0
		새암 지역대	35/10(30/ 7)	85.7/ 70.0
	대관령 지역대	40/10(32/ 8)	80.0/ 80.0	
회 관 형	대 도 시	서울 YWCA	0/30( 0/21)	0.0/ 70.0
		부산 YWCA	80/10(54/10)	67.5/100.0
		목동 청소년회관	50/20(37/20)	74.0/100.0
		봉천동종합사회복지관	50/ 5(41/ 5)	82.0/100.0
		봉천동 YWCA	30/10(23/ 8)	76.7/ 80.0
	중 소 도 시	성남 YMCA	50/ 5(48/ 5)	96.0/100.0
		의정부 YMCA	60/15(34/ 8)	56.7/ 53.3
		광명시근로자복지관	0/30( 0/24)	0.0/ 80.0
		강릉 YMCA	20/ 5(11/ 4)	55.0/ 80.0
		강화 YWCA	40/ 5(25/ 3)	62.5/ 60.0
계			865/295(619/200)	71.6(98.0)/67.8(100)

조사 회수된 설문지는 부호화작업과 오류자료 검토작업(error checking)을 거친 후에 전산처리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퍼스날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률,  $\chi^2$ 을 산출하였다.

설문지는 청소년용과 청소년지도자용의 2가지로 하여 두 집단에 공통되는 질문과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간에 성격이 다른 질문을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청소년용의 경우, 부모님의 직업, 학교 성적, 지도자의 수, 가입 경로,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부모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단체의 장점 등이 지도자용과 다른 변인이었고, 청소년지도자용의 경우 응답자의 직업,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 단체활동과 관련한 특기나 취미, 지도하는 단체의 청소년 구성, 청소년단체의 운영형태, 단체활동이 지역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생각, 단체활동에 따른 경비충당 방법 등이 청소년용과 다른 변인이었다. 즉, 청소년용과 지도자용이 각각 36개 문항씩 제시되었으며 두집단간의 공통변인이 21개, 개별변인이 15개로 설정되었다(〈표 I-3〉참조).

〈표 I-3〉 설문지의 문항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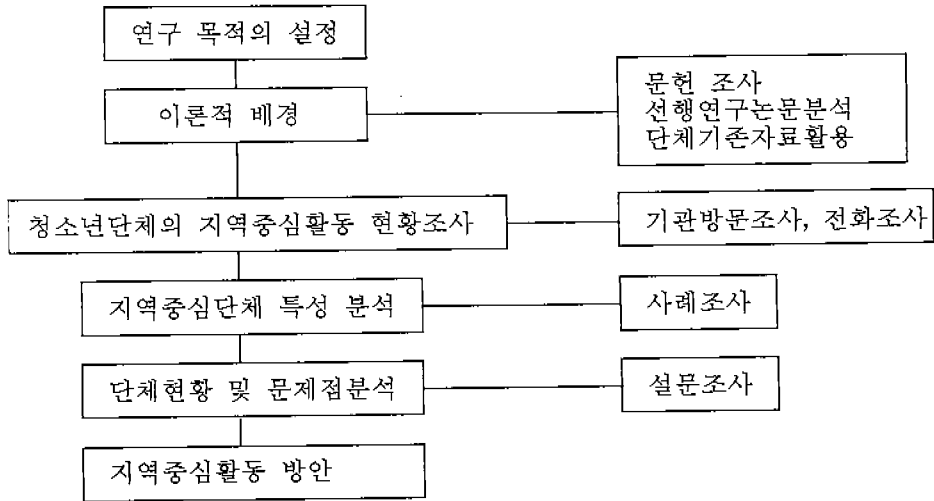
항 목	청 소 년 용	지 도 자 용
표집대상의 일반적 특성	성별(Q1)	성별(Q1)
	연령(Q2)	연령(Q2)
	교급(Q3)	학력(Q3)
	거주지역(Q4)	거주지역(Q4)
	부모직업(Q5)	직업(Q5)
	학교성적(Q6)	단체활동과 관련된 기능(Q6)
	단체활동 경력(Q7)	활동단체명(Q7)
	가입단체명(Q8)	단체활동 지도경력(Q8)
조직운영과 운영형태	단체참여 지도자의 수(Q9)	청소년회원 수(Q9)
	활동 집회시 주로 이용하는 장소(Q11)	회원 구성상의 특성(Q10)

항 목	청 소 년 용	지 도 자 용
활동프로그램	가장 많이 참여해 본 프로그램(Q14) 기억에 남거나 자랑할 프로그램(Q15) 앞으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Q16) 지역사회와 관련된 프로그램(Q17)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Q14) 기억에 남거나 자랑할 프로그램(Q15) 앞으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Q16) 지역사회와 관련된 프로그램(Q17)
활동지도자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Q25) 부모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Q26) 바람직한 지도자상(Q22)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Q18)	바람직한 지도자상(Q22)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Q20)
주요활용시설	가장 많이 활용해 본 시설(Q20) 인근지역에 필요한 시설(Q19) 특히 이용해 보고 싶은 시설(Q21)	가장 많이 활용해 본 시설(Q20) 보다 많이 활용되어야 할 시설(Q19)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설(Q21)
참여실태	가입동기(Q29) 가입경로(Q10) 활동·집회 참여 정도(Q13) 단체활동 만족도(Q12) 단체활동 참여의 어려움(Q28)  단체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Q23) 활동하고 있지 않는 친구들의 반응(Q24)	활동·집회 참여 정도(Q13) 단체활동 만족도(Q12) 단체활동 지도의 어려운 점(Q28) 단체의 경비충당 방법(Q29) 단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접근정도(Q23) 단체활동에 대한 주변인사나 직장 동료들의 생각(Q24)

항 목	청 소 년 용	지 도 자 용
활동특성	<p>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좋은 점(Q27)</p> <p>지도선생님등의 열성도(Q30)</p> <p>지도자의 유대감(Q31)</p> <p>학교단체와의 활동 유사성(Q32)</p> <p>교급 연령층의 다양성(Q33)</p> <p>많은 활동기대와 활동시간(Q34)</p> <p>회원가입, 활동참가의 용이성(Q35)</p> <p>자유로운 시간활용(Q36)</p>	<p>지역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견해(Q25)</p> <p>지역중심활동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Q26)</p> <p>지역중심활동의 유리한 점(Q27)</p>
활성화의 요건		<p>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개발(Q30)</p> <p>중앙연맹 또는 공공기관의 협조·지원(Q31)</p> <p>학교(직장)의 이해와 협조(Q32)</p> <p>지역주민의 지도자로의 활용(Q33)</p> <p>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애향심(Q34)</p> <p>후원회 결성(Q35)</p> <p>전용공간 확보(Q36)</p>

이상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과정을 도표화 하면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구과정 체계도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의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를 청소년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각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협비가입단체를 포괄하지 못했으며 청협가입단체중에서도 지역중심활동단체는 일부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청소년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역을 중심으로 단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단체들을 선정하여 일부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많은 단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표집대상 연령면에서 청소년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층인 9세에서 24세까지로 하였으나 단체의 특성상 24세 이상도 감안하였고, 성별로는 고르게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하였으나 청소년단체활동의 경우 실제

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고려해 볼때 다소 표집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지역구분은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이외의 나머지 도시의 단체들은 성격이 비슷하고 지방의 읍이나 면단위 지역에서는 활동하는 단체가 드물었기 때문에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중소도시로 보아 대도시와 중소도시 두 지역으로만 구분하였다.

## 제Ⅱ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지역중심활동의 개념

본 연구에서의 중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중심」이라는 말은 주로 지역개발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는 지역화, 지역사회화 등과 함께 그 개념적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단체의 급속한 성장과 청소년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지역중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로 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분야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과 구별되는 독특한 개념이 필요로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라는 용어는 각 학문분야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 개념 정의를 달리 하여 왔는데, 가장 오래된 학문분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리학이다. 지리학에 있어서의 지역개념은 「하나의 또는 그 이상의 특질에 대하여 동질성 내지 균일성이 존재하는 경계내의 구역」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고전적인 파악방법만으로는 최근의 지리적 체현상을 헤명하기 어려워 새로운 지역공간개념의 설정으로 동질지역, 분극지역, 계획지역을 제창하기도 하고 지역대신에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질공간, 분극공간, 계획공간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는 지리학에 있어서의 지역이 구역, 공간 등 가치판단을 허용하지 않는 일정 영역의 넓이를 의미하는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sup>1)</sup>

경제학의 입장에서 본 「지역」에 대한 접근방법은 입지(Location)라는 관점으로 경제적인 제기능의 영향에 대한 양과 질의 분석을 통해서 지역경제문제

---

1) 김세열(1986),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 창학사, pp. 20~23.

를 해명하려 한다. 즉, 경제권이라 불리는 경제학의 입장에서 본 지역과약방법은 경제기능이 작용하고 영향하는 범위를 양적으로 또는 거리적인 측면에서 구분한 것이고, 산업관련 지역 및 생활권이라 부르는 지역과약은 경제권 중에서 각각 산업구조 및 생활구조라는 질적인 기준으로 삼아 구분된 지역개념이다.

한편 사회학에 있어서의 「지역」개념은 원래 「지역사회」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영어의 ‘Community’로서 ‘공동소유’, ‘공동체’, ‘공동운명체’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sup>2)</sup> 이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의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제1차적 공동사회 즉, 공통적 이해관계위에 형성되어진 공동생활권(area of community life)으로 규정된다. 지역사회는 대체로 지역(area), 공통된 유대(communication ties),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의 3가지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데 어떤 지역적 영역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한가지 이상의 공동의 유대를 가지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sup>3)</sup>

지역사회 개념 규정에 있어서 일반적 경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의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즉 첫번째의 견해는 별도의 개념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 집단, 사회체제, 사회조직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로서 구우드(W. J. Goode)와 니스벳(R. A. Nisbet)이 이 부류에 속한다.

두번째의 견해는 지역사회란 말의 특수성을 인정함으로써 별도의 개념을 규정하려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특히 지리적 영역 내지 특수성에 기초를 두되 생물학적·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파악하려는 견해로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중 어느 쪽에 상대적인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게 된

---

2) 문병집(1985), 지역사회개발론, 법문사, p. 11.

3) George A. Hillery, Jr.(1955),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p. 118.

4) 정지용·최상호(1983), 지역사회개발론, 선일문화사, pp. 63-64.

다.

세번째의 견해는 지역사회의 지리적 영역을 구체적으로 규정짓는 견해로서 이에는 머도크(G. P. Merdock), 맥키버(R. M. Maciver) 등이 있다. 머도크는 지역사회를 보통 대면하며 함께 거주하는 최소한의 인간집단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맥키버와 페이지(C. Page)는 지리적 영역을 기초로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지역사회개념을 신개척지, 부락, 도시, 종족 혹은 국가와 같은 다양한 단위에 적용시키려 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머도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확대시키면서 국가나 지방처럼 크지 않은 지역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지역이라는 개념은 구역, 공간, 입지, 지역사회 등으로 학문분야나 관심영역에 따라서 각기 달리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청소년분야에서는 지역사회의 성격과 연관시켜서 지역을 청소년들의 생활의 장인 동시에 청소년운동의 사회적 단위로서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정지역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sup>5)</sup> 즉,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원 및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청소년운동의 기본단위로 지역적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지역적 단위는 특정 크기로 확정되어 있는 정적인 단위가 아니라 운동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되어지는 동적인 단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갖는 의미는 우선 그것이 청소년들의 구체적 생활의 원천적 거점이며 청소년들의 관습과 태도, 가치의식을 길러주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생활양식, 행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본래적 기능 회복을 위한 각종 기관, 단체, 시설들의 노력은 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개선 발전시

---

5) 진덕규(1987), 지역단위 청소년운동의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맹 부설 한국청소년연구소, p. 7.

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6)</sup> 청소년단체의 경우도 지역사회내의 기관과 청소년을 연계해주는 중요한 조직의 하나로 보면, 지역사회의 주체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사업활동을 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청소년문제를 유발시키는 각종 지역사회의 환경을 정비하고 나아가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역사회 개발의 실질적인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의 의의는 지역사회개발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욕구와 지역사회자원의 연결이라는 작업을 통해 독립되고 분산된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sup>7)</sup>, 직접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육성, 지역사회와 타 기관과의 협동을 통한 총체적 청소년 관련 활동의 제시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청소년단체는 학교와는 별도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하여 조직되었고 지역중심으로 그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지역사회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지역안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임으로,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는 곳이며, 청소년운동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지역사회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하여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과 지역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런 몇가지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청소년활동은 사회활동의 하나로 청소년(단체)의 구성요소가 바로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근본이며 따라서 청소년운동의 발전은 곧 지역사회내에서 기인한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실적이고 생동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청소년활동의 모든 문제점을 지역사회안에서 찾아야 하고, 또한 지역사회 안에

6) 최 현 외 3인(1989), “지역중심 청소년육성 모형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경기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원, p. 35.

7) 박종삼(1983), “지역사회개발과 청소년단체의 역할”, 미래사회와 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청소년협의회, pp. 52-53.

서 얻어진 경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셋째, 따라서 청소년활동이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 지역사회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하며, 넷째, 이러한 활동에서 얻어진 프로그램은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단체활동이 지역사회에 공헌함은 물론 지역사회 안에 자리잡고 정착하여야 하며 여기에 지역중심활동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sup>8)</sup> 본 연구에서의 지역중심이라는 용어는 청소년단체활동과 주로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지역을 단위로 하는 활동을 지향한다는 뜻을 알 수 있다.

## 제2절 지역중심활동의 필요성과 의의

### 1.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청소년기라는 중요한 시기를 거치게 된다.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정신적으로 가장 혼란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 동안에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 찬 희망을 갖기도 하고 커다란 실망과 좌절감으로 일생동안 후회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경험은 스스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주위환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들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과 처해있는 환경이 각기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자신들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으며 따라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성장하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 교육은 청소년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되며, 청소년들을 미래사회의

---

8) 최도철(1986), “스카우트활동과 지역사회”, 스카우팅 겨울호, pp. 11-12.

건전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즉, 청소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잠재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sup>9)</sup>는 것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해 주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가정·학교·사회가 연합하여 삼위일체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 1) 지역사회와 청소년육성기능 강화

원래 가정은 애정으로 결합된 부부와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자녀로 구성되는 사회의 원초적 집단이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청소년의 일차 사회화 과정을 담당하고 있어 성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가정은 생산적 기능, 문화전달(개인의 사회화) 기능, 심리적 신체적인 보호와 휴식을 갖게 하는 기능, 문화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가정의 빈곤, 결손가정, 주거불량, 아버지의 권위와 자신의 상실, 맞벌이가정, 자녀에 대한 기대과잉, 지나친보호, 핵가정 등이 내존하여 가정기능의 수행상 장애를 받는다면 그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급기야 불량화되거나 비행화 된다. 즉, 정상적이고 건전한 가정생활은 건전한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sup>10)</sup>

한편 산업사회 이후로 교육적 기능의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전되어 학교가 청소년들의 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하게 되었다. 학교는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장래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기로서의 의미도 중요

---

9) 한국평생교육기구(1991), 평생교육과 청소년교육, 이화문화사, p. 12.

10) 표갑수(1984), 현대사회에 있어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소고, 청주대학학생활동연구, pp. 75-78.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가 바로 그들의 생활자체가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그러나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해서 개인의 잠재능력을 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는 전인교육을 이루어야 할 학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졸업장을 얻는 과정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으며, 교실 등 시설의 낙후,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등 학교의 교육환경이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이다.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획일적인 시간표에 따라 획일적인 방법으로 획일적인 교과서를 주입시키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암기교육과 성적위주의 평가로 인해서 학생들의 심신이나 정서함양을 위한 특별활동이나 과외활동, 또는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의 욕구나 의욕을 발산할 기회가 마련되고 있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sup>11)</sup>

청소년의 인간형성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정, 학교 및 사회의 장에서 행해지지만, 가정이나 학교가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사회와의 제휴,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사회생활이 전개되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적 작용을 하고, 직접 교육이 진행되는 장이다. 달리 표현하면 지역사회는 교육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라이머(Evert Reimer)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학습적 자원이다”라고 말하였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 문화적, 인간적 자원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자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그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의 육성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는 모든 면에서 크게 변화하여 왔지만 특히, 지역사회의 연대감이 희박해지고, 기성인들의 지역사회에의 협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11) 김충기(1988),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청소년 지도대책”, 청협 12권1호, p. 12.

12) 이규환(1982), 지역사회와 학교, 남일당, p. 22.

의 교육력은 감퇴되어 왔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영상매체와 인쇄 매체 등이 증가함으로써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의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형성)나, 축제, 계절의 행사 등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는 것 등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연대형성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각지에서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서, 또한 비행을 시작으로 하는 문제행동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으로부터도 지역사회의 성인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지역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타인의 자식도 자신의 자식과 같게 생각하여 육성의 노력을 하게 된다면 지역사회의 교육기능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것에 의하여 가정이나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노력과 연대가 강해지고 상호보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지역단위 단체활동의 강화

사회는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의도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이 이른바 사회교육이다. 청소년이 스스로 인간형성에 대한 노력의 의지를 갖게 하고, 또한,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의욕을 갖도록 계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학습이나 활동의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청소년 단체활동을 육성하여 후원하는 것 등이 사회교육의 역할이다.

청소년은 각종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의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체험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단체활동에 참가하여 다른 연령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연과 조화되는 활동이나 각종 문화활동에의 참가 등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각종 볼런티어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의하여 사회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고 스포츠, 레크레이션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의하여 체력을 단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체험으로부터 청소년은 협력, 연대, 책임, 규율, 행동력 등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가정, 학교, 사회, 정부의 어느 하나가 주도적인 노력과 정열을 바친다고 해서 청소년문제가 해결되며 또한 건전한 인격과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들간 교육적 기능 분담과 역할 수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상호연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청소년들을 이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이어갈 후계세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기능 분담론에 입각하여 청소년단체활동 추진적응기 이후 청소년의 보호 및 지도육성활동을 추진해 온 청소년단체의 역할을 진단해 보면,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갈등, 인간소외와 더불어 가정과 학교의 전인교육적 기능약화는 여러 공익·사회단체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회적응 훈련, 자아정체감 정립 등 사회교육적 기능 수행과 함께 전문적 지도활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들의 취미, 놀이, 언어 등 각종의 문화접촉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고, 이념, 감정, 장래에 대한 포부, 이상향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도록 도와주었으며, 또한 목적 수행과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건강한 가정, 학교, 사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항상 새로운 성원으로 바뀌고 있는 청소년단체들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고정화되지 않는 주변환경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응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었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대하여 청소년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지도방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 수립·시행에 따른 건의, 협조를 통해 범국민적 청소년육성 운동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아울러 해외 여러 나라의 문화와 청소년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국제교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새로운 국제의식을 북돋아 주었다.<sup>13)</sup>

청소년단체는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고 가정교육에도 한계가 있는 현대사회에서 학교와 가정교육을 보충하고 연장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13) 차광선(1989), “21세기를 향한 청소년단체활동과제”, 청협 13권3호, p. 28.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자율적 청소년을 길러내지 못하고 따라서 자율적으로 문화를 창조할 훈련을 받기 힘들므로 인해서 청소년문화의 부재현상을 초래했다면 청소년단체는 건전한 청소년상을 확립하고 새 문화를 창조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가정의 교육기능이 약화되고 학교가 서적 중심의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 여러면에서 관료화 되고 있는 오늘날에, 생활경험, 협동심, 인격형성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임무가 어느 때 보다도 요청된다.<sup>14)</sup>

여기에 부모나 교사도 청소년들과 함께 사회교육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의하여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는 동시에 사회교육활동을 육성, 조장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간이나 교사와 학생들간에 인간적인 융합이나 대화를 촉진하게 되고, 그것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오늘날의 과제는 지역주민의 연대를 심화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기능을 높이는 것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들이 지역사회에 자진하여 참가하여 가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좋은 행동을 할 때는 칭찬해주고, 나쁜 행동을 할 때는 꾸짖어, 지역을 포함하는 육성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하여 지역민들이 서로가 인사를 교환한다든지 하는 등 새로운 생활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란한 포스터, 간판등을 철거하고, 유해도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며, 비행을 유발하는 조건의 억제에 노력해야 한다. 그 밖에 성인들과 청소년들이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공원이나 광장을 청소한다든지 화단만들기를 하는 등 지역환경의 지역정비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모임을 선두로 지역 청소년의 각종 단체·그룹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성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각종 스포츠 활동, 전통예능 등의 문화활동, 자연과 융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활동, 노인이나 심신장애

---

14) 홍남선(1977), “청소년단체의 사회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 36.

에아의 방문 등 복지활동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지 않고, 그 지원의 범위도 너무 지나치지 않게 배려해야 한다.<sup>15)</sup>

## 2. 학교중심 단체활동의 한계극복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점증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단체가 지역사회와 무관하게 그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청소년단체가 본래 지니고 있는 이념을 실현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그 조직활동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게 된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단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지역상황 등 여건에 따라서 그 모습(존재양식)을 달리하기 때문에, 단체의 이념도 그에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정불변의 이념을 갖고 있는 단체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존속이 불투명하게 된다.

특히, 가정과 학교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기능이 점점 의문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청소년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 자체만의 노력 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육성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만 있는 것도, 청소년단체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이라는 대명제 아래서 지역사회와 모든 자원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단체가 그 조직이나 지도자 및 청소년회원의

---

15) 총무청청소년대책본부(1982), 青少年の健全育成おめさして, 大蔵省印刷局, pp. 112-115.

확보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활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해 왔기 때문에 청소년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져왔다. 그동안 청소년단체의 수나 회원의 규모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조직이나 활동무대가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절대적인 수나 전문성 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기존 활동 프로그램의 답습, 학생청소년중심의 편중성 등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청소년단체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할 때 현단계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며 지역중심활동의 강화는 그 대안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1) 단체활동대상의 확대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단체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단체의 회원구성면에서 대부분 학생청소년을 중심으로 조직활동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 입시제도 등 현실적 교육환경과 학부모 등의 단체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으로 단체활동 참여시간이 절대 부족하고 적극적 참여동기 유발이 결여되어 있으며 단체가입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청소년단체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 국민학교 중심 단체의 경우 가입회원을 조직화할 때 학교별로 회원규모의 한계를 정하게 되면 가입희망 청소년을 선별하여 가입시킴으로써 탈락청소년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단체가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있으나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야기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이들을 단체의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는 단체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조직대상으로 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점과 제약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중심의 조직운영은 또한 대부분의 국가청소년단체의 경우 전국적인 조직규모를 가지고 단체고유의 제복을 가진 단체로서 그 조직형태와 활동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내에서 각 단체간의 경쟁적, 갈등적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2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앞서 지적한 학생청소년 중심이라는 점과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전체 학생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 및 지도자 등의 제한으로 인해 선별적인 참여만이 행해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일부의 참여, 우수 모범학생위주의 정예주의 선발원칙으로 인한 각 단체회원의 선발, 참여방식은 참여를 원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선망, 갈등 또는 열등감을 조장케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정책단계 외에는 그 가입을 억제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청소년단체들은 대상청소년, 지도자, 조직력 등에서 학교 의존도가 매우 높아 학교조직의 변화(교사 지도자의 이동 등)에 따라 단체활동이 좌우되어 각 단체들은 회원의 유지 관리를 중시하게 됨으로써 각 단체가 나름대로 지향하고 있는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기본적 활동에 머물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현행 학교교육의 환경적 조건과 여건 및 제도적 제약을 불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해 탈학교적이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단체활동은 근로·무직·복무청소년들을 위한 활동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며 지역사회내의 각종 자원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 단지 나약해지거나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 2) 청소년지도자의 전문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위기, 소속에서의 이탈, 신체적 급변과 정서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지도에는 특별한 전문성과 열의를 필요로 한다. 청소년지도자는 첫째, 청소년들의 내적 갈등과 행동의 불일치에 대한 지도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청소년생활에 협력, 촉진자로서 지도 활동하며, 셋째,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긍정적으로 지도하고 동참자가 되어

그들을 인정하고 지도하는 보편적 역할과 기능 이외에 청소년 교육활동의 기획, 교육과정의 편성 및 진행, 교육효과의 분석, 교육효과의 평가, 교육활동의 지도 등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sup>16)</sup>

그러나 청소년단체 지도자를 정협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1991년 6월 현재 전체 지도자의 수는 337,023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대부분의 지도자가 자원지도자이고 전체 지도자의 1%인 3,303명만이 상근지도자로서 상근지도자 1명당 회원수는 1,284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지도자의 99%를 차지하는 자원지도자의 직업을 보면 학생회원에 대한 지도자는 해당 학교의 교사와 교수이고 종교단체의 회원에 대한 지도자는 교직자와 일반 신도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sup>17)</sup>

이들 자원지도자들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지도자가 된 경우가 약 3할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단체의 장으로부터 임명되어 자신의 본래업무 이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장애를 느끼고 있으며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전근가게 될 경우 단체활동의 연속성을 이루지 못하는 등 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학교 청소년지도자의 지도자가 된 동기를 보면 자원한 지도자는 10%미만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학교방침에 의해서 맡게 되었으며 활동경력이 대부분 3년미만으로 자주 바뀌게 되어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이 전수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학교당국이나 교사 자신이 청소년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학교교사의 업무량과다로 인하여 각종 강습 및 지도자회의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자질이나 능력을 갖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수요를 맡고 있는 청소년기관의 빈약

---

16) 임송자(1986),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의 의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pp. 35-37.

17) 함병수 외(1991), 청소년단체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p. 160.

한 경제사정으로 유능한 청소년지도자가 있다고 해도 이를 영입치 못한 실정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자로서 훌륭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이 분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낮아 사실상 청소년지도자들의 경제적 대우가 아주 저조하며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몇몇 단체에 한정되어 있고 그 금액도 일정액만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모든 청소년지도자들에게 풀고루 그 혜택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일부분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일반 사회적 인식이 저조하며, 청소년지도자 자신들도 경제적 예우, 사회인식의 저조 등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지도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사회적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높다. 청소년지도자들 스스로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sup>18)</sup>

그러나 현재의 교육개념은 평생교육체제로 전환되었으며, 국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꾸어 가고 있다. 이는 학교교사가 청소년육성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으로 부터 지역사회 성원이면 누구나 그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인사가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면 훈육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 의사가 교육에 봉사한다면 응급처치라든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요령을 가르칠 수 있고, 변호사인 경우라면 생활법률이나 일상생활에서 야기되는 법률상담에 응할 수 있으며, 건축기술자가 참여한다면 건축기술 및 건물구조, 전기배선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회화 교육을 익힘으로서 훈육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운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전자기술, 컴퓨터, 자연보전 등 학교교육과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지역을 이웃으로 연

---

18) 유태영(1988),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자 활동실태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전국대 새마을연구논문집, pp. 120-121.

결하는 협동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역중심단체를 조직함으로써 마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 지역에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지도자 밑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나 발전에 필요한 캠페인 등 청소년과 성인이 합심하여 마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한다. 내고장은 우리내 손으로 개발함으로써 고장의 명예와 애향심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안식처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sup>19)</sup>

### 3. 프로그램의 지역화와 시설의 확보

#### 1) 단체활동 프로그램의 지역화

청소년들은 그들의 풍부한 사고의 발달과 잠재력을 계발시키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마련하게 되는 프로그램활동은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정서적, 오락적 및 흥미중심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청소년단체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연령, 문화적 배경 및 경제적 차이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을 만족시키고 최대한의 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여기에 청소년이나 청소년집단이 그들의 능력과 준비성이 향상되는 결과에 따라 단순한 것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복잡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개인적 관심으로 부터 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20)</sup>

그러나 청소년단체들은 중앙집권식으로 운영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합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전시적 프로그램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 왔으며, 청소년프로그램이 일부 청소년단체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단체에

19) 최병수(1990), “지역대육성의 필요성”, 스카우팅, pp. 39-40.

20) 전재일(1987), “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첩, p. 22.

가입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개방되지 못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일반화가 어렵게 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는 청소년활동이 서구의 영향을 입어 보다 활발해진 것과 함께 그 프로그램도 서구의 스타일의 것이 많고, 반면에 우리고유의 것이 적으며, 과거의 프로그램의 일부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 수준이하의 것들이 있어 단순히 오락성에 머무르는 것이 있었고 웃기는 정도의 저질적인 것들도 있었다. 또한 대체로 프로그램이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나 입과 눈, 그리고 맨손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재미 없는 것이 많았다.<sup>21)</sup>

청소년활동은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위하여 존재하는 운동이라고 볼 때, 청소년단체 프로그램의 대상인 청소년들은 바로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며, 그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자원으로써 주민의 일원인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며 문제해결의 역할도 하는 일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지역화에 접근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지역화에 대한 현실적 문제로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환경은 바로 그 지역사회이며, 지역사회의 욕구와 청소년들의 열망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sup>22)</sup>

## 2) 활동공간과 재원의 확보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는 어떤 청소년단체라 하더라도 모든 조건과 여건을 충분히 구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활동공간이나 재원의 확보는 청소년지도자나 프로그램만큼이나 청소년단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성인이나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다니지 못하게 하는 장소

---

21) 서장석(1985),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개발”, 청소년, pp. 33-34.

22) 최도철(1986), “스카우트활동과 지역사회”, 스카우팅 겨울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pp. 11-12.

는 많지만 청소년들의 이용을 권장할만한 장소는 거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행동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의 활동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자체의 공간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어<sup>23)</sup> 실내의 교육장, 야영장, 문화활동장을 이용한 다양한 단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재원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단체들이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의 재정상의 영세성은 활동프로그램의 계획, 조직, 시행, 평가 등 그 전개과정에 있어서 단순한 프로그램을 답습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sup>24)</sup>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지원이 충분치도 않고 과정이 까다로워 지원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정 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많으며, 기업 등 일반사회기관의 협찬을 받는 문제도 제도의 미비로 광고효과가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면 기대하기 어렵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의 단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가 낮으므로 부모에게 충분한 회비나 참가비를 요청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봉사차원의 활동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지도자나 실무인력을 확보하고 지도력을 개발하기 어려운 것도 재정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가 자체의 공간과 시설 및 지도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단체들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기대해 온 것도 사실이나 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단체가 지역사회와 각종 자원을 파악하여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는 인적·물적 자원을 포함하여 많은 자원이 있는데 청소년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단체가 갖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23) 전재일(1987),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청협 제 11권 3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p. 23.

24) 차광선(1990), “청소년단체의 활동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p. 146.

있는 사람은 물론, 재정적인 면에서도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동모금회나 재벌들의 적극적인 협조, 기타 여러 방법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단체지도자들은 그 지역내 자원 동원이나 프로그램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그 활동에 참여케 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sup>25)</sup>

### 제3절 지역중심활동의 형태와 유형

청소년단체는 지금까지 단체의 목적이나 설립년도, 활동대상 및 단체의 발생지, 조직의 형태 등의 기준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하여 왔고, 청소년단체를 유형화하는데 어떠한 공통된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되어 왔다.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 활동형태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형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교육의 접근모형은 이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지역사회단위의 통합적 교육체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교육은, 특히 지역사회의 개발 또는 발전교육 등의 면에서 많은 관심이 되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진보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며 지역사회 자조활동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주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며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 자원들간의 협동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교육에 대한 접근모형은 학교가 촉매기관으로서 이를 주도해서 실천하는 경우와 또는 타기관들과 공동으로 협력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창안하여 학교가 일원이 되어 실천하는 몇가지 대안들이 설정되고 있다.

한편 학교가 리더쉽이 불충분하거나 수동적인 경우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모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역사회중심의 지역사회교육 모형

25) 장인협(1981), “청소년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아동복지연구, pp. 145-146.

(community-based community education model)과 지역사회자원 봉사센터 모형(community human resource center model)이 이러한 접근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역사회중심의 모형은 주민들의 교육적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이에 부응하는 지도력을 제공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을 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는 지역사회개발, 조직 또는 사회교육의 협의체와 같은 여러 관련기관들이 이를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영리봉사기관으로 지역사회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에다 그 토대를 둔 지역사회협의회(neighborhood council), 지역사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을 창안하여 이들 조직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교육을 수행해 나가는 형태이다.

이들 조직들은 공공기관이나 조직들과 공식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가 자원지도기관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지역사회교육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다. 이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시설, 인원등의 면에서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학교 또는 다른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흔히 는 정부기관 또는 특정재단 등으로부터 그 재정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에 충당한다. 이 경우 학교는 지역의 주요 자원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을 돕거나 여러가지로 관련되게 된다. 이들 조직에서 실천하는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개발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인간자원 봉사센터 모형(community human resource center model)은 지역사회에서 각종의 지역사회교육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간에는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그 성격 또한 다양해짐으로써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나타난다.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혜자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인적 자원 혹은 프로그램들을 한 장소에 집중시켜 그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마치 슈퍼마켓에

가면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듯이 지역사회교육 역시 이러한 봉사체제가 수립되어 있으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들 자원이나 기관들이 제공하는 봉사를 일괄 선택해서 받는데 매우 편리해지게 된다.

기관간에 협동적 프로그램이 발전하게 되면 협력체제(partnership)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른 조직구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대형화 되면 지역의 다양한 인적 자원, 주민대표, 또는 관련기관들의 관여가 불가피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는 이들 기관들을 통합시키는 데 있어 권한의 행사, 관할의 문제 등이 제기되며 지역사회 전체에 토대를 두어 운영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순환적으로 회장을 맡아 운영한다든지 합의적인 집행부의 구성, 또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실제적으로 여러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

이런 방식의 지역사회교육의 형태가 대두되는 원인 가운데 그 하나는 지역내 인구출생률의 감소로 인한 교육시설의 유휴화가 촉진되는 것이다. 빈교실 등 남아도는 학교시설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의 문제는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 유휴시설의 한 장소에 각기 제공되는 봉사프로그램들을 모아 제공함으로써 그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는 교육봉사에만 한정되지 않고 유아보호라든지 체육, 오락, 건강 위생봉사, 강당, 도서실, 주택경영, 사회안전, 법률구조, 주민회의 등 각종 사회적 봉사가 인적 자원이 결합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학교체제와 결합된 각종 주민편의에 대한 봉사체제는 매우 특이하다. 이는 학교의 지역사회에서의 위치와 역할이 평가여하에 따라서는 그 잠재력이 매우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모형은 학교가 전통적인 학교체제에서 벗어나 그 시설을 24시간 개방하고 성인의 교육적 필요에까지 봉사하는, 그리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온갖 봉사를 갖추어 제공하는 학교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Parson은 이를 가리켜 제4대 학교(the fourth generation schools)라고 명명하였다. 이것은 현대의 지역사회교육 철학이 지역사회학교를 확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인간, 제도, 조직, 사업 등의 면에서 모든 자원

들을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봉사하는 데까지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은 각기 다른 인적 자원과 기관들이 제공하는 봉사를 한 장소에 집중시킴으로써 지역사회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인구의 감소로 인한 다가올 농촌지역의 학교유휴시설의 활용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를 제공해 준다.<sup>27)</sup> 이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 모형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조직육성을 통한 지도력의 보강과 지역센터의 설립을 통한 통합적인 봉사제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단체 활동도 그 조직특성과 활동 형태에 따라 몇가지로 구분되는데 일정수의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를 중심으로 대상청소년을 회원으로 가입 조직화하여 활동하거나, 또는 사업활동시 대상 청소년을 모집하여 활동하는 사업(프로그램)중심활동 및 특정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일정 건물이나 시설을 가지고 조직형 대상중심의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연계형 단체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첫번째의 경우는 회원중심 청소년단체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단체활동을 통해 청소년 개개인 스스로 자신의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화목한 가정의 형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아래 회원을 모집하고 지도하는 민간단체로 규정된다. 두번째의 경우는 사업형 단체로 구분되는데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근로 등 자신들 고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시간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도력을 지닌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능을 하는 단체의 유형을 의미한다. 세번째의 것은 수련터전중심단체로 볼 수 있으며 일정한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 및 선도 등의 활동을 주관하고 실시하는 형태를 갖는다. 이밖에 같은 또래들끼리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운영하는 모임체로서 청소년들 고유의 감정과 생활환경에 대한 공

---

27) 이순형(1988), “학교중심 지역사회교육의 조직 모형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pp. 81-83.

감대를 형성하고 향유하는 집단활동을 통해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청소년단체로서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학교, 직장 등에 등록된 자생씨클의 성격을 갖는 경우 동아리연합형 단체로 분류되기도 한다.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에 있어서도 청소년단체의 유형별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직형 대상 중심의 운영형태와 회관 또는 시설중심의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를 「조직형」, 후자를 「회관형」으로 유형화할 경우, 조직형은 기존 회원형단체에서 각 지역단위에 지역특성에 맞게 단체활동을 전개하는 형태와 그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단체 등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대개가 청소년회원, 지도자, 활동공간이라는 단체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지역사회 자체내에서 확보하고 있다. 지도자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속적인 설득과 교섭의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요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회관형은 지역사회내의 일정 지역에 시설을 설립하거나 임대하여 시설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형태로서, 교육과 훈련기능을 포함하여 휴식·오락기능과 봉사 및 사교기능 등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명칭은 청소년회관, 학생회관, 근로청소년회관, 청소년복지관 등 자유롭게 표기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청소년종합회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sup>28)</sup>

이의 유형들은 도시지역사회, 농촌지역사회 또는 도시지역사회 중에서도 빈민지역사회, 상업지역사회 등 각기 다른 지역사회마다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문화적 가치와 전통, 풍습 그리고, 생활태도와 양식이 다르며 경제적, 사회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사회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다르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관심이 다르게 나타나 그에 맞는 단체 설립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8) 정하성(1990),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 p. 29.

## 제Ⅲ장 지역중심활동 현황과 사례

### 제 1 절 지역중심 활동단체 개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현황을 청소년단체간 협의기구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33개의 청소년단체중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지역중심 단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일부 단체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단체가 중앙단위중심의 조직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단위의 단체활동이 미약하며 단체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 단체간에 차이가 있으며 지역사회관련 활동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 1. 청소년단체의 지역사회활동 현황

청소년단체의 지역사회활동은 첫째, 청소년단체의 조직상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기존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은 중앙단위 중심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전국규모 단체의 경우 시·도단위에 지부를 조직·활동하고 있으나 단체별로 지역별 분포는 불균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청소년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는 매우 적으며 규모나 활동내용이 영세하여 지역사회단위의 청소년단체 활동은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대도시중심의 단체활동은 학생이외의 청소년과 지방청소년들은 단지 학생이 아니고 대도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게 되었고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은 단체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반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단체도 그 활동이 중앙단위와 대도시중

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방단위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청소년단체활동의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단체활동의 이러한 중앙단위 및 대도시 집중현상은 전체 청소년의 육성에 커다란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 기초를 갖지 못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일부의 전국규모적인 조직을 가진 청소년단체의 경우 시·군·구단위까지 대상범위를 확대 활동하고 있으며 비가맹학교, 직장 등의 대상자들의 회원활동을 위해 지역조직(지역단, 지역대) 등의 조직과 활동내용을 강화하는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단체는 그 기능상 청소년을 위한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각 단체는 그 설립목적과 이념에 따라 활동내용을 다소 달리하고 있으나 사업활동 종류를 크게 영역화하면 조직강화활동을 비롯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 사회교육 및 체육활동, 홍보 및 출판활동, 문예·취미 및 여가활동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각 영역별의 사업활동 내용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활동의 명칭과 대상은 달리하지만 단체별로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은 지역사회중심사업·활동을 실시하는 측면과 지역사회 중심의 조직·운영이란 2가지 측면에서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개발활동이란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타인과의 협력 및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향토에 대한 애향심과 애국심을 기르는 활동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더이상 성인들의 선도 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의 발전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 YMCA연맹, 한국철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단연맹, 한국BBS중앙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라보, 한국해양소년연맹,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한국 4-H 후원회, 청소년적십자, 흥사단, 대한 YWCA연합회 등의 청소년단체들은 이런 측면에서의 지역사회 개발 및 봉사활동을 비교적 많이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단체들의 이러한 지역사회중심활동을 주요단체별로 개관하면 먼저 대한 YMCA연맹의 경우 사회개발사업으로는 최근 우리사회에 위기적 과제로 떠오른 환경오염의 문제를 주요 운동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고, 향락문화추방시민운동의 종합보고서 및 시민문화가꾸기 지침서, UR에 대비한 수입농축산물 소비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등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상담활동 및 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의 법률구조활동, 시민의식의 계발과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여론형성을 위한 각종 논단활동, 영상문화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영상문화운동, 양곡은행의 활성화와 농민지도력육성, 놀이문화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등도 주요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한국청소년연맹은 불우이웃 돕기, 복지시설 위문, 질서지키기, 지역행사돕기, 편지보내기 등의 봉사활동을 벌여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창조적 능력을 개발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축제, 종합예술제, 한강축제, 국립묘지 비문 되쓰기, 전통문화교실 등의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라보의 경우 라보활동사업(다언어 가족활동)이라고 하여 초·중·고·대학생 등 모든 청소년들이 연구원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노인정, 부녀회관 등)에서 우리나라 말처럼 외국의 여러나라 말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악, 율동, 연극, 게임 등을 통한 그룹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언어 가족활동 FAMILY설명회(월 2회이상), 다언어가족활동 FAMILY개설 사진설명회, 연구원 Workshop(주 1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특색을 갖는다.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는 청소년을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서울시내 24개지구 지도육성회를 두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선도위원 및 자원상담원과 결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 사례발표회, 각종 체육대회, 각 지구활동 지원 및 포상, 청소년선도, 불우청소년지원 등의

청소년선도 보도사업을 벌이고 있다. 원불교청년회는 연합행사 식목행사, 양로원 위문, 노력근로봉사, 하계의료봉사, 불우이웃돕기모금 등의 지역사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는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및 도시빈민지역의 곳곳에서 봉사활동 또는 워크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민 구호사업, 사회적 캠페인 등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4-H 후원회의 경우는 도·농청소년의 상호 가정교환 유숙과 지역봉사활동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생활체험과 교의를 증진하고 있고, 4-H회원들의 우수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4-H활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청소년적십자는 또한 병원,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위문활동과 장애자 돕기활동, 농어촌 및 도시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활동을 통하여 봉사와 결속을 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각종 지역사회단위의 청소년단체들의 경우도 직접·간접으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사회 개발 및 봉사활동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을 지역사회중심의 조직과 운영이란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들이 대도시중심, 중앙단위중심, 학교중심의 조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중심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며 시범적인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인식에서 대표적인 일부단체를 조직형과 회관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일반현황과 지역중심 조직운영의 특성을 개관하기도 한다.

## 2. 지역중심 조직운영단체 개관

### 1) 조직형단체

지역중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중에서 조직형 단체로는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BBS연맹 등이 지역중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되는데, 한국 보이스카우트연맹과 한국BBS연맹은 최초의 그 조직적 출발이 지역사회를 중

심으로 시작된 단체들이며,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은 처음부터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전개된 단체로 볼 수 있는데, 현재는 한국BBS연맹을 제외하고는 이들 모든 단체들은 학교에 보다 많은 조직적 비중을 두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의 경우는 비교적 지역중심 단체활동의 의욕을 앞서 보이며 조직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따라서 그 조직형태도 다른 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함을 보이고 있는데, 1991년 현재 지역대 수는 유년대 70개, 소년대 67개, 연장대 87개, 연구대 54개대로 총 278개대가 조직되어 있으며, 대원은 유년대 2,417명, 소년대 1,460명, 연장대 2,851명, 연구대 873명으로 총 7,601명이고 지도자는 훈육지도자 680명과 협조지도자 631명으로 총 1,311명이 있다.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의 지역대 조직 노력은 1974년 전국훈련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연맹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하여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1975-1981)의 '학교 중심의 대조직 육성책'에 중점을 두고 2차적으로 지역대 확장 계획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는 '74년도에 총단세 72,514명을 최종년도인 1981년도에 410,000명으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학교대를 중점 육성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80년대 중반의 조직 근간은 지역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특수대(해양대, 신체장애자대) 조직을 활성화하고 '79년 항공대를 발족하여 지역대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발전계획 최종년도인 '81년에는 총단세 302,112명중 1.4%인 4,383명의 지역대 등록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1차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초로 한 제2차 스카우트 발전계획(1983-1985)은 지역대조직 확산을 위하여 시범조직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확장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지역대조직의 강화를 위하여 학교대 중심의 조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제3차 스카우트 발전계획년도인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 2차 스카우트 발전계획을 분석하여 학교대 조직을 지역대 조직으로 점차 강화하고 지역대 조직을 전국으로 확산

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BBS운동은 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의 약자로 큰 형제 자매 맺기 운동으로 그 주요목적은 비행청소년, 문제청소년, 불우청소년 등 소외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대 1 인간관계를 맺어 ‘사람 만들기’ 작업을 실행하고, 불우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후원활동과 문제청소년들을 갱생시키는 선도활동, 청소년 비행요인의 환경개선과 지역사회 이해와 협조를 위한 계몽활동, BBS회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회원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공동 여가활동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한국BBS연맹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하고 큰 언니, 큰 형은 일반 회원인 20대, 지도위원은 보통회원인 30대, 후원회와 명예, 특별회원은 4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큰언니, 큰 형 역할인 20대의 활동이 저조하여 30대와 40대 이후가 주로 자선활동과 후원활동을 주로 하는 실정으로 본래 목적과 달리 상대적으로 인간적 차원의 활동이 적은 편이다.

한국BBS연맹은 초기 각 지방 연맹이 각각 그 지방의 특색과 실정에 맞추어 그 지역 청소년들을 선도, 지도하는 독자성을 보였고, 후에 중앙 연맹이 설립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 지역간 문제를 조정하게 되었다. BBS는 지역별로 무의무탁한 청소년들과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수용보호 활동, 잡상이나 껌팔이 등을 직업으로 하는 청소년들과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등록하여 직업작성 조사를 실시하여 알맞은 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취업보호 활동, BBS학원을 설립하여 취학기 청소년들이 무학, 중퇴인 경우 1인 1기 기술교육을 병행하여 가르치며 장학구좌를 개설하고 진학을 위해 학비지원과 대부를 해주는 취학 보호활동, 부모의 무관심과 결혼가정의 청소년들이 무단가출했을 경우 일시보호하여 집에 연락을 취해주는 긴급보호활동 등을 활발히 벌여 그 지역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연맹 등도 최근에 와서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교중심 조직형태에서 지역중심 조직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지역중심활동 형태를 보면,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하는 형태와 여러 학교 학생들을 모집하여 연합적으로 활동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조직수가 적고 시범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중앙연맹에서는 지역중심 조직화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확실하고 든든한 재정적 뒷받침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활동시 일부 장비 등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국청소년연맹과 해양소년단연맹의 경우, 중앙연맹에서 적극적인 지역중심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기 보다는 학교중심 조직들의 지도자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 대부분 자원해서 어느 지역 안에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집회실의 부족, 조직의 운영비, 후원단체의 어려움, 일부 부모님들과 학교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활동의 어려움 등이 있지만 같은 단체 내의 학교 중심 조직보다 회원들과 지도자들의 의욕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이러한 지역중심 조직들은 초기 의욕과 달리 재정적 어려움과 인적 자원의 확보 문제 등이 확대되어 무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일부 조직들은 각 단체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학교중심 단체에서 지역중심 단체로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지역 중심 단체들에게 재정과 지도자원의 확보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조직형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단체로 한국라보를 들 수 있는데, LABO는 Language Laboratory의 La와 Bo를 합쳐 이루어진 말로 한국 라보는 다언어 가족활동을 장려하고 학교외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해 1973년 9월 설립되어 현재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창원 등에 지부가 있고 Open mind, Learning Language, Let's be Friend를 3대 활동목표로 한다.

라보활동은 각 연구원의 거주지역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지역단위로 전개되고 있다. 라보활동의 지도자는 각 언어활동을 지도하는 연구원이며 서울의 경우 120명 정도가 있다. 가족단위 활동의 경우 보통 한 지역에서 10-15개의 가족이 모여 함께 라보활동을 하고 있다. 라보의 활동은 1주에 1번 이루어지며, 지역에 따라 청소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곳과 가족 중심으로 활동하

는 곳으로 나뉜다. 라보회원의 주된 활동장소는 집이나, 야외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1주일에 1회 빌려서 그 지역의 노인회관이나 부녀회관, 유치원 등을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집에서 라보활동을 할 경우에는 주로 그 지역 연구원의 집을 이용한다.

라보는 완전하게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경우로 다른 청소년단체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라보는 학교에서 가입이 불가능하다. 회원 모집은 라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의 소개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의 라보 모임에 참가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각 지역 별로 포스터를 이용하기도 한다. 현재 라보내에는 청소년들의 정기모임 활동과 대학생 준회원 모임이 있지만 대부분이 가족단위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엄밀히 따진다면 청소년들만으로 이루어진 청소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초기에는 주로 청소년들로 이루어졌으나 가족단위활동으로 가족간 유대를 강화하여 청소년 문제를 가족내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이제는 거의 가족 단체로 되어가고 있다.

## 2) 회관형단체

지역중심단체중 회관형단체로는 대한 YMCA연맹, 대한 YWCA연합회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이 지역사회내에 자체 회관을 갖거나 시설을 이용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한 YMCA연맹은 현재 가입회원 21,224명으로 이 중 남자가 11,896명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별로 성인회원이 13,200명으로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들의 클럽은 총 109개로서 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3,969명이다. 조직으로 보면, 어린이 클럽이 회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청소년 Y에 중학 Y, 고교 Y, 청년 Y에 18세에서 만 35세 일반 직장 남녀 회원과 대학 Y, 와이즈멘 클럽, 체육 클럽 등이 있으며, 또한 정책형성을 하는 유지지도력 330명, 프로그램자원지도력 658명, 전문지도력 257명이 있다. YMCA는 시민문

화, 청소년문화, 사회교육, 사회체육, 국제협력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있는 지부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YMCA의 사회체육프로그램과 사회개발프로그램은 특히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체육분야의 활동으로 각 지부별로 시민스포츠를 보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어머니 수영대회, 회원체육대회, 민속놀이잔치, 생활체육대회 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 스포츠교실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초기 YMCA의 지역스포츠 활동은 전국 규모의 대회의 개최와 새로운 스포츠 보급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이제는 시설중심, 회관중심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YMCA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편으로 지역 Y 또는 직장 Y가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각 구, 리, 동까지 Y를 만들어서 회관이 없더라도 조그만 장소를 통해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의 체육 문화 생활이 크게 활성화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은 지역의 특성, 연령, 성별, 체력수준에 맞게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운동프로그램 협의회 중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협의회 구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YMCA의 사회개발 분야의 활동으로는 Y 직업소년학교, 이동 사회관, 양곡 은행사업 등이 있다. 특히 Y 직업소년학교는 근로청소년 사업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여 청소년들에게 기술과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동 사회관은 의대, 약대, 치대, 간호학과생들과 현직 의사들이 함께 서울 변두리,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보건위생교육, 질병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청소년 활동과 관련은 없지만 양곡 은행사업과 시민자구운동의 경우에는 그 운영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각 지역의 연대감을 조성하게 되어 각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YMCA의 이러한 활동들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어 연대감과 소속감을 상실하여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현대 사회에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종 지역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주민조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YMCA의 활동은 각 지역의 회관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1970년 영등포 지회를 개설하면서 지역사회조직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의 경우 경희궁 청소년 센터, 강남지회, 영등포지회, 송파청소년회관, 고덕청소년센터, 손기정회관 등이 있고 각 센터나 지회에서는 청소년 취미 문화교실, 스포츠 교실, 상담실, 독서실 운영과 도서대출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종로와 영등포 지회에서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YMCA는 청소년프로그램으로 예비대학, 영화 아카데미, 수험생 축제 등의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각 지회별로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92활동계획에는 청년 Y의 조직의 확대와 지역화 모색이 포함되며 지역 개발과 해결을 위한 조직화 촉진, 지역활동 클럽조직과 지역사회정연구회 등의 설립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회관중심 클럽 Y의 경우 시민운동 동참세력이 부족하므로 5-7개 주요 캠퍼스를 목표로 클럽 Y를 조직할 계획이다.

대한YWCA연합회는 1991년 현재 프로그램 참가회원과 YWCA 준비회 회원을 포함하여 총회원 3,481,300명으로 성인회원 41,155명, 청년회원 959명, 대학생회원 744명, Y-틴회원 4,624명, 어린이회원 4,061명, 회우 1,287명으로 구성된다. 지도자는 연합회의 경우 234명과 지방의 경우 5,890명이 있다. YWCA는 YMCA와 달리 청소년회원에 근로청소년들과 지도자의 경우에 자원 봉사자가 없다.

YWCA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우의로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각 지역 지부별로 탁아소 운영과 근로 여성들을 위한 무료 직업안내소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한YWCA연합회는 행정정책의 하나로 대외관계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행사시 봉사활동을 통하여 그들 단체의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방 위원회의 경

우에는 각 지역별 위원회(동부, 서부, 중부, 북부)를 설립하여 각 지역별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지방 YWCA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협력을 도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방 YWCA의 확장사업을 통해 삼척, 안동, 남원, 해남 등 지방에 준비회를 두어 각 지역마다 YWCA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며 각 지역별 역대 위원장 및 연합회 지방위원회 위원 약 50명을 대상으로 지방 YWCA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을 개최하여 지방 YWCA 증가에 따른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별 유대강화를 위해 지도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위원회는 지역별 회원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어린이 Y 지역별 캠프를 실시하고 Y-틴, 대학, 청년지역별 협의회 및 회원대회, 대학 Y 회장 및 센타클럽 회장 협의회의 실시를 중심사업으로 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 활동 조직이 없는 지방 YWCA나 청소년 활동이 미약하거나 약화된 지방 YWCA에 조직운영 협의 및 프로그램 개발을 도와 그 지역 청소년 활동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출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제 2 절 지역중심활동 사례

### 1. 회원형단체 사례

#### 1) 해양소년단직할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1962년에 설립되어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관한 교육 훈련을 통해 해양사상을 고취시키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케 하여 해양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이다. 어려서부터 바다에 친숙해지고 넓은 바다를 운동장으로 삼아 즐기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충·효·예의 건전한 정신적 품성을 연마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상을 정립하여 해양기능훈련을 통하여 신체단련과 심신을 수련하며 해양과학, 해운, 항만, 수산, 조선 등의 기초지식을 습득케 하여 우수한 해양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해양개발 및 관련사업 육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지식보급, 계몽, 선도를 위하여 해양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교육훈련 목표로 삼고 있다. 조직은 셋별대, 탐험대, 개척대, 전진대, 항해대, 원양대, 성인대, 가족선대로 연령과 교급별로 나누어져 있고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양소년단이 펼치는 각종사업과 활동을 보면 해양탐구교육 및 해양훈련과 해양 레저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보급, 해양기능훈련,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도모, 국토순례 및 탐사활동, 해양사상 고취 및 해양홍보 기획행사,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해양스포츠학교 운영 등이 있다. 해양소년단직할대는 이러한 해양소년단의 설립목적과 교육훈련목표, 그리고 여러 각종사업과 활동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단체이다.

해양소년단직할대는 1986년에 처음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서울시내 전지역에 걸쳐서 학교에 해양소년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아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만들어졌다. 기존의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에서 탈피하여 여러 지역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해양소년단의 유일한 단체이기도 하다. 현재는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회원들이 모두 있으나 국민학생 회원 40여명만이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들 가운데는 성격을 바로 잡고자 부모님의 손에 이끌리어 어쩔수 없이 가입한 사람도 있고 마스크 또는 광고물을 보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연락하여 스스로 찾아 온 사람도 있다.

모임은 주로 직할대 대장이 직접 경영하는 스포츠 용구점에서 한 달에 한번 가지는데 분기별로 해양 장비를 갖추고 하는 행사가 있어서 장비는 해양소년단 본부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지도자는 직할대 대장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원 봉사자들을 보조 지도자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자체내의 프로그램인 고적지 답사, 강 탐사, 바다 스킨스쿠버등이 있고 해양소년단 본부에서 주관하는 여름해양학교, 전체행사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바다탐험대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데 바다탐험대는 국민학생 해양탐험단으로 물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고 바다와 관련된 여러가지 취미활동을 가지게 하며 자연속에서 단체생활을 경험함으로써 문제점을 가진 성격들이 많이 고쳐지고 있기도 하다. 단원중에는 물이 겁나서 도중에 그만 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물에서 일어난 사고는 한 건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단체의 성격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된 많은 장비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며 실제로 다른 단체에 비해 비용이 배나 드는 실정이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층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해 나가는 현실에서는 그들을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2) 금강지역대

현재 한국보이스카우트 서울 북부 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금강지역대는 1980년 서울지역에서 지역사회 및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연맹에서 지역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10여년이 흐른 지

금, 열성적인 지도자들, 육성회, 어머니회의 자발적인 협조, 〈신념과 용기〉를 이상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사회적, 재정적 어려움의 한계를 극복, 유년대, 소년대, 연장대, 연구대까지 체계를 갖추어 회원 86명, 지도자 13명으로 구성된 스카우트로 성장했다.

이 금강지역대는 청소년들에게 스카우트 방법에 의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국가 사회에 유능한 인재를 길러 세계평화와 인류 복지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9년 8월 청량소년대 하계 동해안 이동캠프 실시중 3명의 대장이 처음으로 지역대 조직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되었다. 대원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20여명의 대원을 확보, 80년 4월 25일 금강대 발기단위원회(發起團委員會)를 구성하여 단이름을 금강지역대로 명명하였다. 이 발기 단위원회 의결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금강 보이 스카우트는 창단의 절차를 완료하여 1980년 5월 31일 서울연맹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거행, 대원 33명, 훈육 지도자 5명으로 구성된 서울연맹 제 77대 금강 지역대가 탄생되었다.

1980년에 창설된 금강단의 지금까지의 활동은 크게 초기 활동 성장기와 번영기의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초기 활동 성장기는 다시 1980년부터 82년까지 제1차 3개년 육성계획, 1983년부터 85년까지 제2차 3개년 육성계획으로 나누어 진다.

초기 활동 성장기(1980~1990)는 제1차 3개년 육성계획과 제 2차 3개년 육성계획, 창단 5주년 기념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제 1차 3개년 육성계획은 발대기반의 구축, 단기구 편제의 확립 및 단세의 확보, 스카우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수준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 제2차 3개년 육성계획은 안으로 스카우트 체제의 보다 효율적인 개선과 강화, 밖으로 사회 각 층의 참여를 유도하며, 단위대 및 단기구의 효율적 편제 및 단세의 적정 규모 유지, 대원중심의 대운영, 스카우트 프로그램의 수준향상 및 전인적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단재정의 자립기반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창단 5주년 기념 사업 (1985)은 제 2차 3개년 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기념

사업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문사업, 창단 5주년지 <금강>, 기념 노래집 <우의  
록>을 편찬하고 5월 25일 부터 27일 까지 태릉 푸른동산 캠프장에서 기념식  
과 형제단 결연식 행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초기 활동 성장기 동안에 초기 금강대는 집회실이 없는 상황에서  
집회 때마다 서울에 산재해 있는 능이나 산을 활동장으로 선택, 장소를 찾아  
떠들면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고 실내활동시 대장들이 소속한 학교를 가까스  
로 빌려 집회활동을 하였다.

재정문제는 대장들의 지원과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격려 속에서 금전이 아  
닌 장비 자체의 기증으로 이루어졌다. 82년 7월 아·태 챔버리 단위원회에서  
천막 5조와 식당용 천막 2조 기증으로 야영장비를 확보하여 단 위원회에서  
대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84년 어머니회 조직으로 훈육활  
동을 직접 지원하게 되었다. 그 후 한·일 합동 캠프 실시를 계기로 금강육성  
회가 조직되어 금강지역대를 후원하게 되었다.

처음 소년대 하나로 등록한 금강지역대는 1981년 소년대와 연장대를 나누  
어 등록, 대(隊)에서 단(團)으로 승격되었고 1984년 학부모님들의 요청으로  
기존대원들의 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년대 속에 임시로 만들었던 유년보  
를 유년대로 등록하게 되었다. 또한 1984년에는 클럽대(현 연구대)도 등록되  
어 완전한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번영기(1985~1990)에는 육성회 개편과 더불어 유년대 대장을 새로 영입  
하고 금강지역대에서 성장한 대원으로 각 대의 부대장을 임명하여 대(隊)활  
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7년 3월 집회실을 장안동에 마련하게 되나 9월  
다시 이전하게 되었고 활동이 잠시 침체되었으나 지도자들의 프로그램 개발  
과 일본 파견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대원수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1989  
년 금강육성회 및 어머니회 노력으로 태능 푸른 동산 사무국장님의 협조로 4  
월 22일 개관식을 하고 집회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1990년 4월 20일 육성회  
총회가 개최되어 훈육지도자는 자율권을 부여받고 훈육만을 담당하고 육성회  
는 대외적 업무만 맡도록 이원화하였다. 1990년 창단 10주년 기념 사업

(1990)으로 〈금강단지〉 발간, 〈우의곡 2〉을 발간하고, 1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현재 지역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국교생(유년대) 30명, 중학생(소년대) 20명, 고등학생(연장대) 16명, 대학생(연구대) 20명으로 총 86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유년대, 소년대는 강남과 강북지역 학생비율이 비슷하고 연장대는 강북지역 학생들이, 연구대는 강남지역 학생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개 학부모님에게 지역대 활동을 소개하여 친지 및 주변에 살고 있는 대원을 소개받거나 기존 회원들의 권유로 친구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유년대의 경우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가입되게 된다. 이들 청소년들은 주택지에 주로 주거하며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보편적 중산층으로 그들의 부모는 회사원 약 30명, 상업 약 30명, 자영업 약 20명 정도로 아주 부유한 층은 없다.

학부모님들의 육성회, 어머니회 등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3부터 고교생들의 경우 대학 입시 위주 교육에서 오는 압박감(학원 수강, 과외 등)으로 현저히 제약받고 있다. 지도자는 훈육 지도자 7명, 협조 지도자 6명이 있으며 훈육지도자는 각 대의 대장, 단대장으로 구성되며, 협조 지도자는 육성회장, 단 위원장, 단위원으로 구성된다. 훈육 지도자는 대원들의 훈육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며, 협조 지도자는 대원들이 훈육지도자의 지도 밑에서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과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지역대 활동에 뜻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 자녀들과 함께 활동하신 부모님들 중에 실제로 스카우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교육을 직접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 이 밖에 캠프 운영시에는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자라난 대학생들을 부대장으로 임명하거나 함께 참여한 학부모님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재원에 있어서 단위활동 프로그램 비용은 월 3,000원씩 내는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육성회 및 어머니회비를 적립하여 특별찬조금으로 약 천만원의 기

금이 확보되어 있으며 큰 행사시 찬조금으로 운영된다. 육성회에서는 1달에 1번 육성회 이사회를 소집한다. 그 때 대장은 그동안의 활동보고와 앞으로 있게 될 활동계획과 경비를 보고한다. 회의 중 이러한 공개적인 방법과 승인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된다. 육성회 회원들의 경제 수준은 종류층으로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특별히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없다.

정기집회(대집회)는 매월 1회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대집회실에서 집회 프로그램에 따라 주제별로 실시되며 스카우트의 주요활동 및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야영훈련, 선서의식, 가족캠프, 송년의 밤, 진급식, 기능장 취득 훈련, 스키캠프, 연맹야영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지역대 본부가 태릉 푸른 동산 내에 있으므로 푸른 동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비는 집회실, 6인용 천막 8조, 후라이 천막 8조, 캠프 마스타 4조, 부탄버너 8조, 취사용구 40용, 테이블 6조, 접의자 50개, 전화기 1대, 워드 프로세서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본부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주로 하며 지방 연맹은 훈육활동 및 조직관리를 담당, 지방 연맹 산하에 지구 연합회가 있어 대(隊)활동을 지원, 프로그램 활동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연계성 및 협력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실시할 장소가 부족하여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의 확충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카우트 활동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문제도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원들의 경우 유년대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연장대로 갈수록 수가 줄고 활동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현 입시제도가 주는 압력으로 고교생들의 활동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풀이되며 미국처럼 청소년 단체활동 점수를 인정하는 것이 제도화 된다면 고교생들의 스카우트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지도자를 지역유지 인사에게 개방하여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대 스카우트 지도자는

학교대와 겹하여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수도 대원 수에 비해 적다. 지역 유지들을 지도자로 영입한다면 부족한 수의 보충과 함께 여러 지원과 후원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 한아람단(한국 청소년 연맹 동작지역단)

한국청소년연맹은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람단,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작지역단은 1988년 서울 동작지역 아람 교사 10명이 아람단원들의 성장모습을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누리단이 없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아람단원들을 각 교사당 2명씩, 추천하여 모은 20명으로 시작되었다. 4년이 지난 1992년 현재 제1기 단원들은 고등학교 1년생이 되었고 그동안 계속 단원들을 모집하여 지금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3명의 단원과 6분의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동작지역단은 아람이 컸다고 해서 <한아람>이라 부른다. 이 동작지역대 <한아람>은 청소년 연맹 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프로그램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청소년회원은 중앙연맹이 국민학교 대상인 아람, 중학교 대상인 누리, 고등학교 대상인 한별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단원들이 4년이 지난 지금 고등학생 1학년으로 성장하여 고등생인 한별단원과 중학교 1, 2, 3학년인 누리단원이 함께 한별, 누리의 구별없이 하나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80여명의 단원들이 거쳐갔으며 그들 중 현재 남아 있는 단원은 43명으로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또한, 이 지역 안에 있는 강남 중학교, 남강 중학교에 다니는 단원들이 대다수이고 전학간 경우, 서초 중학교에 다니는 단원들도 있다. 현재 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누리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누리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입학당시 없다가 그 후에 생긴 경우이다. 동작지역 단원에 대한 각 학교 교사들의 인식은 똑똑하고 모범적인 아이들만이 지역단 활동을 한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방법은 초기에는 10명의 교사들이 각 학교당 2명씩 추천하였는데 몇몇 교사들의 타지역 전근으로 모집이 어려워져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국민학교 6학년 아람단원의 '졸업단원 연수'가 12월에 있는데, 이 때 나가서 이 지역단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매해 각 학교당 2명씩 20명을 모집한다. 이런 제한을 두는 원인은 한 학교에 여러 아이들이 편중되어 있을 경우 다른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탈퇴하는 경우가 있고 또 1년에 20명 정도가 지도자들이 지도하기 좋은 적정인원이기 때문이다.

회장, 총무,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들의 수가 적어서 친분관계는 매우 두텁다. 공식적으로 기별로 이루어져 4기에 이루고 있으며 위로는 상하관계가 철저하며 같은기 끼리는 매우 친하다. 학교단 연합 자치조직과는 직접적인 교류가 없다.

대원들의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높으나 고등학교 진학후엔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부모들의 경우에도 공부에 더 치중, 청소년 단체 활동을 우려하기 시작한다. 1기생들 20명 중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단원은 12명으로, 그만두게 된 단원들의 경우 대부분 계속 활동하고 싶어도 대학 입시에 대한 부모들의 공부강요와 단체 활동에 대한 우려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지역대에는 7, 8분의 열성적인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있으며, 특별히 돈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적인 도움은 제한하는 형편이다. 지도자는 현재 인원 6명으로 초기 10명의 지도자중 4명이 타지역으로 전근가게 되었고 그후엔 그분들이 있는 학교사정과 강습 일정이 지역단 활동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자주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이 지역단원들의 대부분이 중학생으로 누리단원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 지도자들은 모두 아람단원 교사로 이루어져 있다.

지도자와 단원들과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며 단원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며 상담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연맹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람들을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재원은 이 지역의 지도자가 친분관계에 있는 5분을 찾아가 동작지역단을

소개, 후원을 약속받고 1년에 10만원씩 지원받아 1년에 50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단원들의 회비는 없으며 단원들의 단위 프로그램 참가시 그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며 행사시 서울연맹에서 기념품비용 형식으로 보조금을 받는다. 연맹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원금도 적지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맹 자체에서 지역대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원하는 지도자가 있는 경우에만 도와주고 있다.

동작지역단의 주요 활동은 1년에 여섯번으로, 1학기 때 두번, 여름방학 때 한번, 2학기때 두번, 겨울방학 때 한번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프로그램 위주의 활동을 하며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예를 들면 심성계발 프로그램, 야영 프로그램, 좋은 연극, 영화표 보내 감상하기, 등반 등이 있다. 이 동작지역단은 연맹범주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주로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 정신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평상집회는 없으며 연락은 편지, 전화의 수단을 사용하며, 편지의 경우 책임지도자는 연맹 상임이사로 되어 있다. 중,고등학교에는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으므로 모임을 가지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이 동작지역단원들은 아람단을 대상으로 하는 '졸업단원연수' '여름야영' 또는 '우리얼 마당' 등의 프로그램에서 이 지역단의 지도자들을 도와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고 아람단원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일을 하며 보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연맹의 대학생들을 '큰언니'라고 부르는 반면, 이들을 '작은 언니'라고 부르고 있다. 이 '작은 언니'들은 역할 수행후 평가의 시간을 가지며 이런 행사경험이 지도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단원들의 해외 연수 추진시, 학교단과 함께 연맹에서 같이 추진할 때 학교단의 경우, 교장의 책임하에서 결재가 나지만 지역단의 경우, 각 대원이 속한 학교에 공문을 보내도 그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학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된다. 이처럼 학교 중심의 청소년단체활동 상황에서는 지역단의 활동이 제한받고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학교 자체내에서 지역단에 대한 협조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입시에 청소년단체활동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 많은 부모들이 이 지역단도 그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안할 가능성도 있어 그렇게 된다면 지역단의 활동은 더욱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학교밖의 지역단도 확실하게 청소년 단체 활동으로 인정,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학교단의 경우, 그 학교에 있는 청소년 단체들이 일부 청소년들만 수용하게 되어 문제가 제기되는데 동작지역단의 경우에도 희망자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당 2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들을 많이 수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동작지역단의 이러한 단원제한은 많은 단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도자 선생님들이 충분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프로그램 문제에 있어서는 동작지역단의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개의 학년에 해당하는 단원들이 구별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총인원 43명으로 규모가 적어서 학교단처럼 교급별로 프로그램을 짜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학교단은 맡고 있는 선생님의 능력이 단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단은 지역단원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시범활동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 지역대는 동작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동작지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지역단 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도자로,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거기에 후원자가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다. 동작지역단은 중학교 때 하다고 그만두고 고등학교 때 하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인 모임이므로 나중에 대학교 들어간 후에 '큰언니'로 활동하고, 사회 진출후에는 이 지역단의 진정한 후원자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지도자의 경우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꼭 연맹의 지도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이다.

#### 4) 대관령 지역대

대관령지역대는 1985년 강릉대학교, 관동대학교, 영동전문대학교, 삼척 공

업전문대학교의 소외된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받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지도자 훈련을 시켜 각 학교에 대장 및 부대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에 부탁, 이들을 각 출신 고등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한 결과, 성적이 향상되고 품행이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생 연령층의 직장인들도 포함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대원들은 강릉의 초, 중, 고등학교의 단체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역대는 강릉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체내의 지역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대소유의 야영장도 가지고 있고 특별한 후원단체없이 활동비를 단원들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대와 구별되는 점이다.

대원의 입단자격은 제 1조건으로 일단 스카우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하며 제 2조건으로는 나이가 대학교 연령층이어야 한다. 그 연령층에 해당하면 직장인과 대학생의 구별없이 전부 가입할 수 있다. 모집은 공고나 벽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며 이 지역의 아침 TV방송 지역행사 자막으로 모집광고를 한다. 이 방송국 광고는 무료이며 그대신 방송국의 지역 자체 행사시에 대관령 지역대가 협조를 하고 있다.

현재 총 45명이 있으며 이중 17명이 직장인이며 나머지는 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특히, 은행원의 경우 시간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열성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이 지역단이 맡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스카우트 지도에 주로 관여하고 직장인들은 자체 행사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대관령 지역대에는 지도자가 6명이 있으며, 현직교사가 4명, 주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기생의 경우 2명이 대학원 졸업 후 부대장 후보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체 부대장으로 흡수할 예정이다.

재원은 입단비로 1년에 5,000원씩 받고 있으며 이 5,000원에 회비 3,500원과 보험료를 합해 4,200원, 공동구입하는 스카우트 잡지비로 8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설부산하 건설 사업소에서 하는 분기별 교통량 조사를 맡아

하고 있는데 한번에 한 장소에서 2박 3일 동안 하는 업무에 18만원씩을 받는다. 이 작업에 대원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연간 120만원 이상이 확보되어 활동비, 여행장비, 천막 등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 사업은 7년전 대관령 지역대가 조직된 때부터 해마다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다. 따라서 대원들의 활동비는 대원들이 부담하지 않고 이 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각자 활동비는 전혀 들지 않는다. 재정지원체계는 훈육 위원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8명으로 구성된 육성회로 구성되어 있다.

모임은 회장을 중심으로 1학기에는 매주 모여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며 2학기에는 한달에 1번 집회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중앙연맹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지역특성프로그램으로 ‘대관령 옛길 찾기’ ‘찾지 못했던 성터 찾기’ ‘한국의 봉수, 봉화 연구’ ‘눈집 야영’ ‘일본과의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연맹 프로그램에는 없지만 강릉 영주지역에서만 주최하는 기능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강릉연맹 스카우트의 경우 기능이 좋아 큰 행사시 의뢰가 들어오고 있으며 잼버리 대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 한국 민속 전시관을 운영했는데 이때 대관령 지역대가 한 부분을 맡아 운영하기도 하였다. 봉사활동으로는 ‘농촌일손 돕기’ ‘벼베기’ ‘경포 오죽헌 제설작업’ 등을 하며 장비를 지원받아 각 학교 테니스장을 설비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대관령 지역단원들중 대학생들은 수업없는 시간을 배정하여 이 지역 초, 중, 고등학교 특활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신입생 모집후 3박 4일의 자체 ‘지도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6월달까지로 매주 야영훈련을 받고 2학기 때 비로소 선배들과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게 된다. 고등학교 때 단원경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대관령지역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훈육위원장이 사재로 만든 집회실과 전용 야영장이 있는데, 이 전용 야영장은 1,300평에 이르고 있으며, 영동지구(속초, 동해) 스카우트 대원들도 이용하고 가끔 서울에서도 한 학교 단위로 내려와 이용하고 있다. 장비는 버너, 코펠, 식판, 천막 등 야영 장비가 갖추어

져 있고 이 장비들은 대원들이 함께 일하여 벌어서 구입한 것이다. 이 밖에 강릉지역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원들은 이 지역 해양 소년단과 협조체제가 잘 되어 활동장비, 장소 등을 서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관령 지역대도 이것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대관령지역대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대관령 지역대의 경우 대원모집시 45명 이상을 뽑지 않고 있다. 이는 지도자의 부족으로 45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대학교 내에서 다른 썬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관찮지만 고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제한해야 할 경우 무척 안타깝다고 한다.

둘째, 학교대의 청소년 지도자의 경우에 지도자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업무편의상 지정되어 강습을 받기 때문에 열의가 없고 전근시 맡고 있던 청소년 단체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문제 등이 있는데, 지역대의 경우에는 지도자의 열의는 있으나 그 수가 적어 지도자의 확보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교사가 아닌 일반인들을 지도자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공신력이 문제가 된다.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활동비용은 개인경비와 공동경비가 필요한데 개인경비마저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사가 아닌 사람이 청소년을 지도하는 경우 인식이 좋지 않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완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생활과 사업상의 일로 바빠 현실적으로 청소년단체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훈육위원장은 남자들보다 어머니들이 지도자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새마을 부녀회가 가장 서민층에 가까운 단체라 생각되며 이런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아 동·리별로 청소년 단체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그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따라 대원이 되고 나중에 아버지도 함께 참여한다면 가족과 함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부모와 청소년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스카우트 내에는 부부교사로 스카우트 활동에 지도

자로 함께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셋째,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후원회 조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커가는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전적 지원을 하고 서는 청소년 단체를 그들의 활동에 이용하려는 경우도 있어 지도자들이 경비부족시 보충하고 대원들이 자체적으로 벌어서 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청소년 단체를 후원하려는 지역유지들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은 일부 기업들의 영리목적이어서 이용시 돈을 지불해야 하고 사용하기 가까운 곳이 아닌 너무 먼 거리에만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 야영장은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가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예산이 지원되어 시·군 단위에서 가까운 근처의 산 등에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행히도 이 대관령지역대는 영주군에 이 지역대 자체의 야영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야영장을 많이 설치, 타지역으로 나가 활동할 때에도 편리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 5) 남원지구 지역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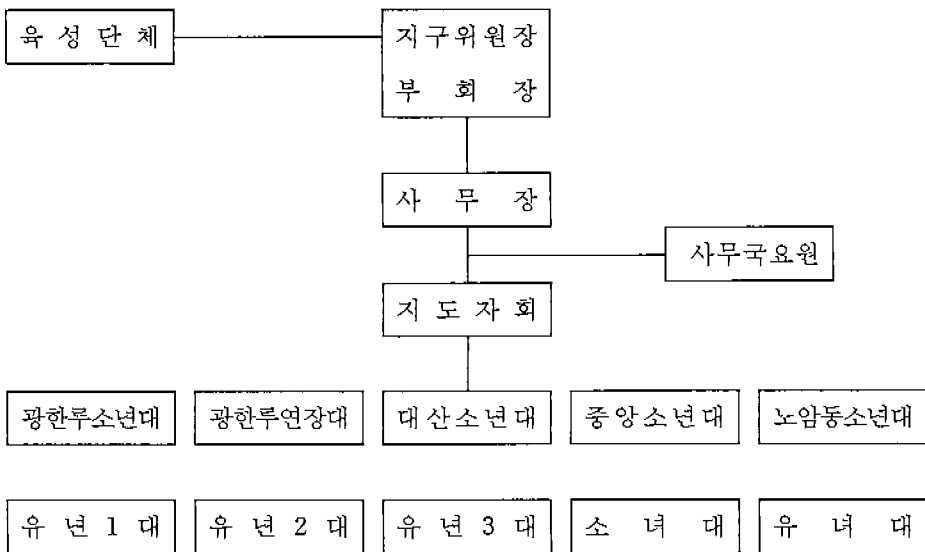
남원지구 지역연합회는 1986년 4월에 현 지구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지도자가 806광한루지역 소년대를 창설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 4월에는 농촌지역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목적으로 한 809대산 농촌지역대를 창설하기에 이르렀고, 그 뒤 1989년 4월에 806광한루지역대 연장대가 창설되었다. 1990년 5월에는 육성회장의 도움으로 지도자 13명이 단복을 착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818남원지역단을 창설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남원지역 지역대는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8월에 제8회 한국잼버리(대원 54명, 지도자 6명), 1991년 8월에는 세계잼버리(대원 16명, 지도자 4명)에 참가하였으며 1991년 8월에는 소년대 활동사례집을 제1호를 발간하는 등 활

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드디어 1992년 2월에 지역연합회를 창설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있는 지역대 운영을 꾀하고 있다.

이 지역대에서는 현재 애국심고취, 품성의 향상, 체력의 단련, 유용한 기능 체득, 사회에 대한 봉사를 훈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여건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원의 육성, 기능별 전문성 지도자 운영체계의 확립, 사회교육의 중점적인 실시로 인한 참신한 시민상의 구성, 살신성인의 지도자 역할도야, 지역 스카우트 활동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 등을 지도활동목표로 삼고 있다.

남원지구 지역연합회의 기구를 살펴보면 광한루소년대를 비롯한 10개의 지역대를 단위로 하여 지도자들의 모임체인 지도자회가 있고,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구위원장과 부회장 및 총무, 관리, 지도, 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1992년 현재 육성단체 대표는 약 20여명인데, 대개가 학부모나 활동참여자들이며 지역연합회의 회계 및 관리를 감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Ⅲ-1] 남원지구 지역연합회의 기구 현황



지역연합회 지도자는 1984년 4명으로 시작되어 1992년 현재 24명에 이르렀고, 이 24명의 지도자들은 모두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대 지도자로 봉사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교직에 있거나 자영사업을 하고 있다.

〈표 Ⅲ-1〉 지도자 변화 추세

(단위 : 명)

년 도 별	86	87	88	89	90	91	92	비 고
지도자수	4	4	6	6	16	22	24	

청소년회원은 1986년에 1개대 15명이었던 것이 1992년에는 10개대 178명으로 늘어나 10배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대별로 살펴보면 연장대가 20명, 소년대가 70명, 유년대가 57명, 소녀대가 16명, 유녀대가 15명으로 소년대, 유년대가 단위대나 구성인원면에 있어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Ⅲ-2〉 청소년회원 년도별 현황

(단위 : 명/개)

년도별 대별	86	87	88	89	90	91	92
연 장 대				11(1)	12(1)	18(1)	20(1)
소 년 대	15(1)	22(1)	28(1)	40(2)	58(3)	60(3)	70(4)
유 년 대					40(1)	48(1)	57(3)
소 녀 대					8(1)	10(1)	16(1)
유 녀 대							15(1)
계	15(1)	22(1)	28(1)	51(3)	118(6)	136(6)	178(10)

그 밖에 보유장비로는 산악장비 6종과 스케이트 24족, 앰프 1개, 운동기구

4종, 사무기기 등을 갖추고 있다.

단체의 활동은 유년대와 소년대 연장대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보이스카우트의 12개 규율(소·연장대 -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도움이 된다, 우에스럽다, 예의바르다, 친절하다, 순종한다, 쾌활하다, 근검하다, 용감하다, 순결하다, 경건하다, 유년대-옷 사람을 잘 따른다, 충성스럽다, 도움이 된다, 우에스럽다, 남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친절하다, 순종한다, 쾌활하다, 날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용감하다, 순결하다, 경건하다)과 공자의 思行(소·연장대-好學, 力行, 知恥, 視思明,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得思義, 유년대-밝게 생각한다, 力行, 충명스럽게 듣는다, 視思明, 태도는 공손하게 한다, 貌思恭, 얼굴빛은 온화하게 한다, 말은 생각하며 한다, 일은 경건하게 한다, 의심이 나면 잘 물어본다, 분이 나면 참아본다, 횡재는 신고한다)을 결합하여 한국적 정신을 살리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했으며 각 활동을 월별로 계획·실시하고 있다.

92년도 활동계획을 기준으로 각 활동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소·연장대는 3월에서 2월까지 스카우팅의 새출발, 자연보존, 하이킹, 기능연마, 캠핑, 캠퍼리, 기능연마(등산), 사회생활, 기능연마(구급, 천기), 안전, 자기육성, 세계속의 한국의 프로그램을, 그리고 유년대는 예절, 자연보호, 사회, 나라, 안전, 임간·임해학교, 독서·수집, 운동, 끈맺음, 수공, 동계체육, 활동의 프로그램을 계획·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를 활동내용별로 보면 소·연장대는 대활동, 반활동, 기능장측정, 행사 및 기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년대는 진급기능과정활동, 행사 및 봉사활동, 노래, 게임 및 기타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급기능과정활동은 학년에 따라 토끼과정, 사슴과정, 곰과정으로 구분하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남원지구 지역연합회 지도자들이 그동안 생각해 온 지역대 운영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은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치, 명예등의 이해득실에 우선을 두는 지도층의 청소년운동에 대한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돈이 많이 드는 스카우트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스카우트 활동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것들을 답습·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넷째,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임시위주의 교육 정책에 따른 학부모들의 인식과 자질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역대 운영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은 사명과 신념을 가지고 경제적 부담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대원모집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반제도를 잘 운영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반드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훈육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지역연합회가 조직되어 육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각계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 하겠다. 지역대 운영을 사회인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활성화 시키고 공공유희기관은 청소년을 위한 활동장으로 제공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지원과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6) 새암지역대

새암지역대는 학교대 지도자로 있던 선생님 몇분이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학교대에 한계를 느끼고 지역인사 몇분들과 함께 2~3년의 준비기간을 두고서 1991년에 새암지역대를 발대하였다. 설립하게 된 목적은 정읍 지역내의 청소년들에게 스카우트의 기본정신인 봉사정신을 가르치는 데는 학교대에서 가르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의 청소년문제는 지역사회내의 참다운지도자가 자기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보기에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원모집은 선생님들이 자기네 학교 학생들을 추천하고 학교장이 추천하고 한 학교에 두세명 정도로 시내 15개교 이상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대에 들어오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나 소수정예인원으로

소모임활동을 지향하는 뜻에서 유소년대, 연장대 40명 지도자 15명, 지역인사 10명이 확정된 인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대원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모님들이 주로 상업하시는 분이 많은 편이다. 재정은 전북연맹에서 행사 때마다 지원해 주고 있고 육성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실시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지도자들이 거의 일주일동안 모여서 낮에는 학교근무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같이 만나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그밖의 중앙연맹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다 참여할 시간이 없으므로 선별해서 활동하고 있다.

자체 프로그램활동을 보면 “부자캠프”라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캠프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현충일에는 호국대행진이라고 해서 옛날 임진왜란 때의 전승지 라든가 유적지 등을 답사하는 행사를 해마다 갖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읍에서 매년 열리는 “정읍 문화제”에서는 한 부분 맡아서 활동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여름방학 때는 국민학생은 임란생활학교, 중·고등학생은 지구캠퍼리라는 프로그램활동을 하고 있다. 행사는 보통 한달에 한번 야외에서 갖는데 연락방법은 서신을 주로 이용하여 하고 있다.

현재는 초·중·고등학생 들이 프로그램에 같이 활동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금씩 차등을 뒤서 프로그램을 잘 계획이다.

이 지역대는 학교대에 비해서 지도자 수가 많기에 행사 때마다 지도자가 열명 이상 참석하여 행사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들의 지역대 활동을 잘 이해해 주는 편이다.

그러나 이 지역대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대는 한번 설립하기도 어렵지만 전혀 강제성이 없어서 학생들이 자의로 들어왔다가도 싫으면 떠나버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더욱 신중을 두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 둘째, 지역대 선생님이 학교선생님이다 보니까 매우 바쁘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점이 있다. 셋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서신으로 연락하다 보니까 잘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모이는 시간이 제각기 다르므로 모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넷째, 행사 때마다 어떤 일정한 기금이나 지원이 없어서 대원들 각자가 교통비, 참가비를 준비하도록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조금씩 걷기 때문에 적자를 볼 때도 있다. 다섯째, 학생들이 지역대 활동을 하는데에 대한 책임이 학교측에 돌아가지 않게 하계끔 행사 때마다 학교에 연락을 하고 있다. 여섯째, 학교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아이들이 지역대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두가지 대 활동을 병행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내어야 하므로 부모님이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일곱째, 지도자가 밖으로만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가정생활에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지역대는 학교단과 달라서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가 더 힘들다. 지역대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길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같이 교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야외에서 생활하면서 그 선생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계속 주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암지역대의 지도자들은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노력한 점들이 보인다.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때도 물론 학생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라야 하겠지만 학부모들도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학생들과 같이 해 나간다면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리라 보여진다.

#### 7) 진천군 낙농4-H사례

진천군의 4-H는 '92년 현재 학교4-H, 영농4-H, 특수4-H, 이동4-H, 작목4-H로 구분, 조직되어 있는데, 그 중 학교 4-H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세~20세의 학생들로 구성하여 14개회, 308명의 회원이 있는 반면, 영농4-H는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교를 졸업한 21세~29세의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낙농, 사진, 양채, 화훼, 사과 등 12개 분야, 14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별로는 질서, 상구, 삼룡, 회안에 각각 1개씩의 회(회원수 67명)가 있

으며 공장(일화주식회사)과 교회(중앙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특수4-H가 1개 회에 18명, 20명씩의 회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한편 91년부터 낙농, 양채, 화훼, 사과, 분재, 한우, 양돈, 관상어, 시설채소, 생활개선, 사진, 농기계의 12개(회원 144명) 작목4-H회가 조직 운영되어 왔다.

특히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에 위치하고 있는 낙농4-H는 낙농4-H회 총정 일보 대상과 한국청소년 대상 축산부문을 수상할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4-H로 젖소의 사료구입, 사육, 판매 등에 이해를 같이 하여 1991년 2월 9일에 조직되었으며 임원인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총무 부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남자회원으로만 활동하고 있다. 이들 회원을 연령별, 학력별, 생활연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3~24세의 회원이 5명이고 25~29의 회원이 8명이 된다. 학력별로는 중졸이 1명, 고졸이 12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고졸이며, 생활연수로 보면 4~6년이 4명, 7~10년이 9명으로 4~10년의 생활연수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동안 4-H과제에 대한 자금지원이 있어 왔는데 5명의 회원에게 1년 단기자금으로 1천 5백만원의 농협과제자금이 지급되었고, 4명의 회원에게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소득금고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그동안 지암리 낙농4-H는 주로 과제활동, 교육행사, 봉사활동, 기금조성 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제활동은 생산비를 절약하고 많은 생산량을 얻기 위하여 공동구입, 생산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간 1,100 M/T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18,000대의 사료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있고 7종 2,400개의 약품을 구입하여 개당 100~400원씩을 절약하고 있다.

교육활동은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시범목장과 같은 선진지를 견학하고 전문기술교육을 받으며 여름철때 연수수련활동과 야영교육 및 청소년의 달 행사에의 참여를 실시하고 있다.

봉사활동으로는 농경지 정화를 목적으로 농약빈병 및 폐비닐의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웃 노인들을 위하여 경로잔치, 어버이날 행사 등 각종 경로행사를 하고 있다.

기금은 공동구입사료와 약품비의 차액, 유대이익금(5.0%)을 적립하여 회원들의 애경사 비용, 불우4-H 회원 및 모범우수학생회원 장학금 및 4-H연합회의 각종 교육행사시에 지원하고 있다. '91년까지 조성된 기금은 7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92년까지 1천 4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천군 낙농4-H는 우유의 공동구입으로 우유수집회사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었고 협동심 및 자립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었고, 또한 각종 교육행사, 훈련 등에 음료수 및 기금을 지원하여 4-H 회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었으며 4-H회원에게 우량 젖소 송아지를 생산하여 분양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 8) 동일지역대

동일지역대는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육성단체로 되어 있으며 산업체의 청소년이 전혀 아닌 지역주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주로 학생들이며 일반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형제나 주위 친구의 권유로 많이 가입하며 정원 100명중 활동인원은 60~70명 정도이다. 또한 종류중 이상의 아이들이어서 서로 경제적 여건이 비슷하고 단복 마련할 때 빼고는 경제적 부담이 없는 편이다. 이들 가운데는 학교대에도 등록하여 지역대활동을 같이 겸하여 활동하는 학생도 있다.

87년부터 걸스카우트와 함께 활동해 왔는데 전체모임은 월 1회 토·일요일 중 택일하여 집회를 가지며 학년별로도 1번씩 따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재정은 동일고무벨트에서 1년에 100명 기준해서 3~4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그래도 그 밖의 육성단체대표들이 재정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어 다른 지역대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덜한 편이다. 훈육지도자들은 정규 과정을 밟고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인데 특히 보이

스카우트의 지역대 지도자들은 모두가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지도자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에 지도자들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카우트 교본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조직, 훈육, 훈련, 제정이 단체활동에 주요점이다. 활동목적은 아이들의 관심을 단체활동에 들리게 하여 비행정소년으로 빠지지 않게 하고 봉사정신을 익히게 하는 것이기에 주된 활동이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활동이 되고 있다. 지역대 활동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학교단보다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대를 더 좋아하는 편이며 요즘은 활달한 프로그램보다 차분하고 아기자기한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부모들은 아이들의 야외 활동에 대하여 반대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하루 활동하러 가기 위해서는 며칠씩 준비하고 갔다 와서도 그 후유증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된다고 것이 그 이유이다.

동일지역대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지역대를 조직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승인한 단체만 학생들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대장지도자가 직접 일일이 학생들을 찾아가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둘째, 지도자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역대를 이끌어 가기에 시간이 부족한 편이어서 특히 대원들을 데리고 할 프로그램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원들의 봉사활동, 대활동에 대한 부모님들의 인식이 부족하며, 대원들의 연령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찾기가 힘들고 중앙연맹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시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 여기에 각 단체의 사무국장이 공무원에 비해 급여가 비현실적으로 너무 낮으므로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이 두가지 자리를 맡기가 어렵다.

지역대를 운영해 나가는 데는 재정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소년단체간에 일관되지 않은 재정보조가 각 단체의 지도자간에 사기 저하요인이 되고 있다. 동일지역대는 그래도 다른 지역대보다는 산

업체 기관의 보조를 받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넉넉할 수 있었지만 다른 지역 대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재정보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도자들이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빌려 볼 수 있고 대원들과 같이 활동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청소년 회관이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 단체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자료를 교류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부모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 9) 남해화학지역단

남해화학지역단은 남해화학 자녀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되었다. 회원은 1990년까지는 주로 여도학교 학생들이었고 10%정도가 순천이나 여수쪽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후 모두 여도학교로 전학오게 되어서 현재는 100%가 여도학교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아람단과는 별도로 남해화학 자녀들만으로 지역단을 구성하고 있다. 한때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었는데 대학입시관계로 부모들의 반대가 심하여 없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들만이 있다. 그 수는 1992년 현재 국민학생 189명, 중학생 45명으로 총 234명에 이르고 있다. 지도자는 국민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각각 1명씩 있고, 야외활동할 때 특별히 지도교사 부족하면 남해화학 교육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보유장비로는 고무보트, 탄약 등의 수상장비 일체와 차량을 회사에 확보해 놓고 있다.

주로 나라사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학교에 모여서 기능 익히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3~4학년은 전남 지역사회유적지나 호국유적지 견학활동, 5학년은 경주권과 중부권 견학활동, 6학년은 제주권과 서울권 견학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특징적인 활동으로는 수상훈련이 있는데 남해화학에서 수상장비를 구입하여 회사에 비치해 놓았다가 대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도아람단과 연계활동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활동내용에 시차를 두기도 한다.

남해화학 지역단은 그 활동이 활발할 때에는 그 어느 단체보다도 놀라울 정도로 잘 진행되었었는데, 현재는 회사의 여러 사정을 이유로 점차로 그 활동을 축소,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체활동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첫째, 한 학교내에 여도아람단과 남해화학지역단이 공존하고 있는데 지역단에만 차량, 간식비, 지도자활동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과 지역단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도아람단과 지역단간에 활동이 일원화 되어 있지 못하고 제각기 활동계획을 세우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고, 셋째, 지역단을 관장하고 있는 남해화학 직원이 청소년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 고유업무 이외의 시간에 별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지역단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해화학 직원 자녀들이 지역단 이외의 타단체에 가입을 희망하여도 지역단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고, 지역단 활동시 발생가능한 안전에 대한 책임한계가 학교와 회사간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에서는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직원의 복지후생비의 명목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 직원 자녀에게 쓰여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해 감사때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다른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 사항을 남해화학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초기에는 사장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에 힘입어 많은 지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그 어떠한 단체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만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지역단에 지원되고 있는 차량이나, 기타 부수비용이 회사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일 수 있지만, 이보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업이 청소년들의 육성에 대한 신념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방학때 1~2번정도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재의 학교상황으로는 학교에 청소년육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청소년활동의 활성화가

불가능한 실정인데, 기업과 같은 후원단체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며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틀림없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10) 전주 성결교회지역대

전주 성결교회지역대는 교회학교 중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0년에 한국 보이с카우트 전북연맹의 소년대활동에 같이 동참하고자 설립되었고 대학 교수인 대장을 중심으로 5명의 지도자와 12~14세의 중학교 남학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대를 설립하게 된 동기는 현 대장 자신이 20년간 보이с카우트 활동을 했었고 12년동안 지도자 생활을 해오다가 전주성결교회에 와서는 보이с카우트 교수 지도자훈련을 받으신 장로님과 함께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임무를 가진 것이 교회라는데 뜻을 모으고 청소년들이 타락하기 쉬운 환경이 많은 이 때에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동기에 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없고 교회의 연간 운영비중 재정위원장과 상의하여 지원비의 증감을 결정해 왔으며 현재는 1년에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다. 대원모집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예배시간에 광고도 하고 해서 모집하고 있지만 그나마 중 3학년생들은 진학공부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머지 대원들의 참여도 그들의 부모님의 열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부모님들 대개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시고 자영업에 성공하신 분들이다. 그 외에 장비를 마련하는 데는 대장이 소속되어 있는 남전도회의 지원을 받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어서 야외캠핑장비, 교통정리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토요일 오후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시간을 이용하여 주로 활동해 왔는데 교회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의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교회주변의 교통정리를 해왔고 교회주변청소 및 정리정돈, 노인 안내 등의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 외의 활동프로그램은 전북연맹에서 주관하는 연간 스케줄에 따라서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자체 교회학

교 중등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 당회에서 지역대의 활동이 교회의 특성을 깨뜨린다는 이유로 비협조적이고 교회안에 청소년들만 해도 200여명 되는데 그에 비해 지역대 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수는 극히 소수이므로 교회안에서의 스카우트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여러 선진국처럼 지역중심의 청소년단체조직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도심·상가지역(특히 술집, 유흥오락장등)을 정화하는 방편으로 순진무구한 청소년들을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예방 및 정화시키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시켜 모험심, 탐험심, 협동심을 길러주고 신체를 단련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 지역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 청소년 육성단체에서 교회지도자들을 우선적으로 훈련시켜 교회안의 청소년들을 지도하게 되면 청소년운동이 훨씬 빠르고 열성적으로 확산 될 것이며 그 운영재정도 교회가 적극 지원해 줌으로써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 11) 원불교지역대

원불교지역대는 원불교의 교리와 스카우트 운동을 접목시켜 원불교 자체에 있는 뜻을 가지고 종교활동하면서 청소년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는 제주지역대, 서청주교당지역대, 이리지역대의 3개의 원불교 스카우트가 하나의 협의체로 1989년 6월 6일에 원불교 스카우트 협의회가 창립되었고 그 후로 매년마다 정기총회 모임을 갖고 있다. 세계의 지역대 중 이리지역대는 연구대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대가 40명, 소년대 20명, 유년대 10명으로 약 70명의 회원이 있고 교무가 대장으로 있으면서 스카우트지도자 훈련과정을 받은 20여명이 지도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원불교라는 종교적 특성을 가지는 이 지역대에서 활동하려면 원불교의 범명을 받아야(입교를 해야) 하며 원불교 종교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원불교에 입교한 대원으로 신앙과 수행이 <원불교 종교장 안내>에 준해서 어느정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때 담당교무의 추천에 의해서 종교장을 받을 수 있다

록 되어 있다. 스카우트 대원이라면 누구나 종교를 갖어야 하는 원칙이 있어서 일요일마다 누구든지 종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짤때 이를 배려해 주고 있다.

재정은 원불교 종교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없고 지역대 자체내에서 서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목적으로 스카우트협의회가 창설되었고 현재는 1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한달에 일정 정도씩 후원하고 있다.

중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스카우트 학교대와 지역대를 겸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교무가 대장으로 있으면서 소년대와 학교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싶어도 다른 아이들에게 밀려 못하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유년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스카우트프로그램 외에 원불교만의 프로그램인 범회 의식이 있는데 마음에 안정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밝혀가고 그런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감화시키고 설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명상이나 좌선 또는 마음에 고향을 찾는 시간이라 해서 어리석고 그릇된 마음을 가라앉혀 보자는 종교적인 정적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거의 동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스카우트활동과 이러한 정적인 프로그램이 어우러지게 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개발상의 어려움이나 행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인사운영에 따른 지도자의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

희망적인 것은 교단에서 세계잼버리가 열리기 전까지만해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나 세계잼버리대회를 기점으로 여기저기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앞으로는 원광대 원불교학과 학생들이 지도자로 훈련을 받고 있기에 부족한 지도자 수를 메워줄 것이며 3년후에는 네델란드에서 잼버리대회가 있어서 지금부터 개인당 5만원씩 적금을 들고 준비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실무위원회 15명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 2. 회관형 단체 사례

### 1) 부산YWCA

부산 YWCA는 센터중심의 지역단체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회원의 수는 어린이 회원이 약 100명, 중 고등학생 회원이 약 500명, 대학생 회원이 약 80명, 일반 청년회원이 약 100명 정도가 있다. 학교단에도 조직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장의 단체에 대한 인식에 따라 조직의 활성화가 좌우되는 편이지만 앞으로 학교단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월 1회 지도자회의와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운영, YEL협의회 운영 등이 있다. 주 1회 클럽모임이 있는데 각 활동영역별로 모이는 모임이고 월 2~3회 전체회원이 모이는 협의회모임이 있다. 주요활동은 크게 어린이 Y 활동과 청소년 Y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린이 Y는 토요일마다 활동하는 토요일 Y활동이 있는데 2~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예능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가치관 확립과 아이들의 숨어있는 개성의 표현을 중점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참가하도록 한 것이다. 그중에도 특히 역사교실 프로그램은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며 주 1회 역사에 대한 이론교실과 월 1회 유적지 답사를 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가입은 성적과 관계없이 어머니의 열성에 따라 결정되어지는데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겨울방학 때는 눈이 오는 지방으로 캠프를 가서 중상층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이기심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년에 4번의 캠프를 가지는데 그 중 2회는 부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2회는 영남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타 지역의 어린이를 알게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 외의 활동으로는 부산의 대표적 빈민지역인 나부민동에서 그 지역교회를 빌려서 학습지도, 놀이지도, 여름어린이 학교, 어린이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 Y활동은 남녀 혼성으로 이루어지며 지역특수성을 지닌 활동이라기 보다는 평화와 환경보호운동의 성격을 지닌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폐품재활용, 폐건전지 모으기, 공해사진전시회, 공해자료수집, 소비무화변화를 위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장터’를 개설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캠프활동이 있는데 캠프 입촌식, 인간관계훈련, 주제강연 및 토론, 추석놀이, 캠프화이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외에 학교Y,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1개에 클럽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반드시 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인가가 나와야 하고 담당지도교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공부외의 시간을 청소년단체활동에 보내는 것에 거의 반대를 하는 편이어서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서에 날인을 받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가 Y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며, 단체자체에 프로그램도 많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나 교육부가 Y단체를 장려해 주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Y회원이라야 YWCA회관 프로그램이나 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데 만약, 학교에서 Y회원이 아니라면 YWCA의 어느 클럽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음성의 클럽활동으로 간주되어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안좋은 일이다. 보이·걸 스카우트, 청소년연맹 등의 학교단으로 이미 정착되어 많이 알려진 단체와는 달리 YWCA는 기독교 계통의 단체, 여자들만 활동하는 단체라는 인식에서 갖게 되는 편견으로 그동안 Y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행정적으로 YWCA도 청소년 단체임을 교장선생님이 인식하고 인정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단체에 특별히 편중되지 않은 일관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의정부YMCA연맹

의정부YMCA연맹은 의정부가 각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회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가입하여 현재 100명의 정원중 약 70명의 회원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의정부시의 각 학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인문계보다는 공·상고의 실업계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년으로는 고등학교 1 2학년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다. 고교 Y연합회는 4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어서 영·지·체를 골고루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며 매주 토요일 4~6시에 연합회 모임을 갖는데 청년 Y와 대학생들이 지도교사로 있으면서 각 부서별로 1년 사업을 계획하여 활동한다.

주요사업방향을 청소년협력위원회의 목적과 목표를 주지하여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있는 각 계층의 지도력을 확보하고 기존의 임원단외에 대회 협력위원회, 섭외위원회, 문화사업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위원장을 임명하고 청협위원을 고교YMCA의 설교자로 청소년 어울마당의 초청인사로 참여시키며 아울러 청소년문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청소년협력위원회는 의정부시내에서 지명사업을 하는 30대 중반~40대 초반의 분들로 구성되었는데 고교YMCA와 지역청소년 문화에 경제적인 협조를 해 줌으로써 기성세대와 고교를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새마을 과에서 “청소년 어울마당”프로그램을 YMCA가 주관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과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문화를 적절하게 비판, 수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아이들이 원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문화와 Y의 활동이 연결되는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고 있다. 특히 좋은 프로그램은 의정부 관공서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어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의정부

YMCA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하는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교사와 학교측에서 YMCA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이들의 부모들도 지역사회에서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는데 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의정부YMCA연맹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각 청소년 단체들이 모여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실무자들간에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 상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학교단과 지역센터가 함께 대등한 관계속에서 상호조절 보완기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광명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광명시근로자종합복지관교육 및 연수활동을 통하여 근로 청소년들의 심신 단련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직장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창의성을 개발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바람직한 근로청소년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 특별시가 설립하여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의 약 70%는 시에서, 약 30%는 자체 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약 20개 정도의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있으며 시·도마다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연수사업, 교육사업, 상담사업, 임대아파트운영, 보람단조직활동 등이 있다. 연수사업은 교양교육, 지도력 개발훈련, 분임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올바른 직업관 확립, 자기 발견을 통한 건전한 인격형성이 목적이며, 교육사업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속에 적응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고, 상담 사업은 근로청소년의 문제해결과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대 아파트를 운영하여 집을 떠나 있는 미혼근로여성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실질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영세제조업체 생산직으로 29세 이하이며 보증금 8,400원, 월임대료 4200원임), 보람단조직활동을 통해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기타 사업으로는 주부 취미강좌, 주부 건강교실, 주부 컴퓨터 강좌 등 낮 시간을 이용한 지역주민(주부)들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관에서는 사업의 중점방향을 시대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실시, 도덕성회복을 위한 교육 강화, 근로청소년 종합센터로서의 역할 증대, 개관 10주년 기념사업 실시 등에 두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생산직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이며 인천, 성남, 구로 등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참석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로 참여도가 매우 높다. 평일 저녁 7시~9시, 일요일 오전 9시~12시에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경비는 간식비, 다과비, 축제준비비 등을 위해 자치회 경비 8,000원을 각출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 운영되기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며, 관료적 조직체계가 부드럽지 못한 면이어서 적극성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 또한 공무원 운영과 청소년연맹의 두 가지 관점에서 융합되지 못하는 운영체제의 문제점과 자원봉사자를 많이 쓰지만 종사하는 사람들의 열의가 문제이며 거의 외부강사에 의존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내에서 보람단 조직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자체내에서의 부단한 교육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며,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내의 독지가들의 후원이 있도록 하고, 건강 기록부가 초동-고등학교로 올라가듯이 청소년활동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4) 한국선의은행중앙회 봉천종합사회복지관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누구나가 참여하기 쉬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선의를 예탁받아 혼자서는 작은 것이지만 큰 힘을 만들어 노인, 청소년, 아동,

심신장애자 등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선의와 복지의 다리역할을 할 목적으로 1987년에 설립되어 보사부 소속 국가운영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탁과 지출, 운영과 사업, 홍보출판사업, 지회조직 확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설기관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을 통해 가정복지사업, 직업개발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부설기관으로 어린이집과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루벌어 하루먹는 영세민이므로 복지관 자체 내의 자부담이 큰 형편이며,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어려운 일, 머리 쓰는 일, 시간투자하는 일을 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편이다. 대부분 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으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길거리에서 방치된 상태로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대체로 아이들의 정서지도나 상담,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 보다 부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학업에 대한 열망이 높기 때문에 속셈, 한글, 주산, 영어, 수학, 어린이 숙제방 등의 학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호응도와 관심이 높다. 예능계 프로그램은 피아노에 대한 욕구가 다른 것에 비해 아주 큰데, 과거에 피아노 있는 집은 부자라는 인식 때문에 부모들이 피아노 배우는 것을 선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에는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동기부여가 잘되지 않아 운영이 잘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학업외의 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가 부족하므로 '유도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복지사업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면서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복지관 같은 시설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지 프로그램 자체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외부 강사나 자원봉사자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속이야기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있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 청소년 문제도 달라지므로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다르게 세워져야 할 것인데, 지도자는 지역주민을 잘 알고 있어서 모두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교회와 교회의 인력자원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평일에는 교회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하며, 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복지관 시설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목동청소년회관

목동청소년회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 도모로 문화시민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 올바른 여가선용, 건전한 청소년상을 정립하며, 지역사회주민의 공동참여로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한 서울시에서 불교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다.

현재 조직은 2부 4과로 되어 있으며, 사업운영의 70%는 자체 시설이용요금으로, 30%는 운영주체측에서 지원 운영되고 있다. 1년에 1~2차례씩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감사를 받고 있으며 모든 예산, 사업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훈련사업, 문화예술사업, 사회체육사업, 상담지도사업, 지역복지사업이 있다.

이용시간은 주로 평일 방과후 늦은시간이나 토·일요일, 여름·겨울방학이며, 어린이에서 노인까지(그 중 청소년은 약 30%), 하루 평균 약 1,7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주로 국교생, 중학교 1, 2학년이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고 있는데, 체육 프로그램은 내부 지도자가, 교육 프로그램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고 있다.

영어, 글짓기 등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연예인초청 프로그램, 방학기간의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으며, 특히 고교생들은 방과후 개인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체육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물

놀이 같은 전통놀이에 대한 부모들의 정치적 거부감 때문인지 전통적인 프로그램에는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대체로 프로그램의 참여동기를 살펴보면 국민학생들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 부모가 직접 찾아와서 신청하고, 중학생은 예전에 다니던 것을 다시 신청하고 있으며, 교교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나 입시제도로 인하여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 근로청소년, 재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신설 및 개발과 청소년들의 취양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주민의 지역사회개발에의 참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행정부처의 협조와 과감한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 제 3 절 지역중심 단체활동의 특성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사례의 조사결과를 통해 지역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의 일반적 특징을 종합하기로 한다.

지역중심활동 단체의 조직활동 및 운영형태상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사회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체활동이 조직중심의 형태와 회관중심의 형태로 크게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 활동형태는 크게 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지도자가 기존의 학교중심의 단체활동 형식을 버리고 다양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학교를 벗어나 지역내에서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과 청소년 단체가 설립될 때부터 여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면서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단체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조직형단체에서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형태와 교회나 사찰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가 포함되고 있다. 이점은 청소년단체가 일반적으로는 회원중심단체, 수련터전중심단체, 사업형단체, 동아리연합형단체의 4가지 범주로 구분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단체의 일반적 유형구분에 따른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회원 중심의 청소년단체는 (1) 규모에 있어서 각 단체 고유의 목적과 활동의 내용에 동화되어 참여하는 청소년회원과 지도자의 수가 다른 유형의 청소년단체에 비해 많고, (2) 비교적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며, (3) 제복의 착용, 회비의 징수 등과 같은 형태로 회원청소년들에게 동질감을 강화한다는 점 등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수련터전형 청소년단체는 집단활동이 가능한 실내형 시설이나 회관 또는 청소년 야영장 등을 그 활동의 준거로 삼고 있으며 (1) 단체 자체가 회원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규모의 청소년들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받아들여 단체활동을 실시하며, (2)

주로 자연적 조건과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에 청소년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고정숙박시설, 야영장, 강당, 취사시설, 급수대, 샤워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단체활동의 터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3) 단체의 운영은 주로 독지가의 도움이나 시설사용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도자가 부족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경향이 다. 셋째, 사업형 청소년단체의 경우는 (1) 회원형 청소년단체와 같이 자신들의 회원을 명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들의 모임으로서 각 단체가 고유한 프로그램의 운영의 주체자로서 활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2) 따라서 사업형 청소년단체는 사업(프로그램)의 종류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하며, (3) 초기에는 사업(프로그램)만을 갖추고 있다가 점차로 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수련터전중심 청소년단체의 모습을 갖추어나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으며, (4) 청소년들의 욕구의 변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춘 사업형 청소년단체의 출현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동아리연합형 청소년단체로 유형화되는 범주의 특성은 (1) 대체로 단체 설립의 과정과 운영상에 있어 일탈현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나 직장, 복무처 등에 등록된 형태를 지니고 있고, (2) 다른 유형의 청소년단체들과 달리 특정 지도자에 의한 지도나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국규모의 청소년단체들을 이러한 특징에 따라 분류하면 대체로 첫번째 유형의 경우 강한 소속감을 갖는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연맹 등이 이 범주에 속하며 사업중심단체로는 MRA한국본부, 한국라보, 한국BBS중앙연맹 등의 단체가 대표적이며 특정시설을 중심으로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단체로는 YMCA연맹, YWCA연합회 등을 들 수 있다. 유네스코학생협회, 국제경상학생총연합회, 국제연합한국학생협회 등은 네번째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단체들의 이러한 유형분류는 청소년단체에 대한 포괄적 개념정의에

입각해서 전체 범주를 구분한 경우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며 청소년단체들의 예가 열거된 경우도 중앙단위 중심으로 본 각 단체별 일반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라는 구체적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단체활동의 경우는 활동의 측면과 조직적 측면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때 활동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적 측면에서는 일정 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형태를 갖거나 시설 기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을 실시하는 운영형태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지역중심활동의 개념에서 보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형태를 갖는 경우로 대상단체의 범위가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지역중심 단체활동은 개별 청소년단체의 전반적 성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각 단체의 유형별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혼재되거나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사례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조직형단체의 경우 일정 범위의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조직화하여 활동함으로써 조직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회관형단체는 주로 회관을 중심으로 청소년회원을 모집하여 활동하는 특성을 갖는다. 전자의 특성은 해양소년단 직할대, 금강지역대, 한아람단, 대관령지역대, 남원지역단, 새암지역대, 진천군낙농4-H, 동일지역대 등의 사례조사 결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부산YWCA, 의정부YMCA, 광명시근로자종합복지관, 봉천동 종합사회복지관, 목동청소년회관의 경우의 조사결과는 회관형단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표Ⅲ-3〉).

〈표 Ⅲ-3〉

사례조사단체의 주요특성 비교

단체명	설립년도	회원구성(수)	지도자	집회장소	재원	주요활동	문제점
해양소년단 직활시	1986	국·중·고·일 반(국40명)	자원지도자포 함(10여명)	지도자 사무실	지도자자비 회비	탐사,견학등	부모 인식부족 고가 수상장비
금강 지역대	1980	국·중·고·대 (86명)	교사중심 (13명)	자체 집회실	육성회 (기금확보)	야영, 가족캠프등	야영장, 지도자 부족, 입시부담
한아람단	1988	중1년-고1년 (43명)	교사(6명)	중앙연맹 사무실	연맹보조, 후원자지원	심성계발,야영, 원극,등반등	학교 인식부족, 지도자 부족
대관령 지역대	1985	대학생+직장 인(45명)	교사+주부 (6명)	자체회관	기금확보 (공동작업)	옛길찾기,성터 찾기,눈집야영	지도자부족
남원 지역단	1986	국·중·고 (178명)	교사+지역 주민(24명)	집회실 따로없음	육성회지원	봉사,야영등 (자체개발노력)	집회실,프로그램, 학부모인식
새암 지역대	1991	국·중·고 (40명)	교사(15명)	야영장	연맹, 후원회 지원	캠프 (부자캠프)	지도자시간부족 지원프로그램
진천군 낙농 4-H	1991	23세-29세 (13명)	지도소직원	가정집	기금확보 (이익금)	교육행사, 봉사활 동등	-
동일 지역대	1987	중류층 이상의 청소년(60-70)	-	-	기업체지원	지역사회봉사 스트레스해소	지도자시간, 프 로그램 부족
남해화 학단	1986	직원자녀 -국·중(234명)	교사(2명),기업 체 직원지원	학교	기업체지원	봉사활동, 견학등	기업체의식전환 -지원미약
원불교 지역대	1989	국·중·대 (70명)	20명	원불교	자체협의회	법회의식, 스카우 트프로그램	프로그램, 행정, 지도자 지속성
성결교 지역대	1990	교회 남중학생 (15명)	자원지도자 (5명)	교회	교회일부 지원	교통정리, 청소, 노인안내	교회 인식부족
부산 YWCA	1946	어린이·중·고· 청년(100명)	-	회관	YWCA	상담, 청소년 어울마당 등	부모, 학교, 정부 의 인식부족
의정부 YMCA	1968	주로 공·상·고·학 생(100명)	실무지도자 45명	회관	YMCA청소년 협력위원회	청소년 어울마당등	실무교사, 학교 비협조, 재정
광명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1981	근로청소년, 일반시민 (주부)	자체 직원	복지관	서울시(70) 연맹(30)	연수,교육,상담,임 대아파트등	지도자열의부족 빈번한인사이드
봉천종합 사회복지관	1987	지역주민	자체 직원	복지관	자체지원	복지사업(상담, 레크레이션등)	부모이해부족 프 로그램, 홍보
목동 청소년회관	1988	지역주민	비구니회지도 자, 외부강사	회관	시설이용. 비구니회	교육,문화,사회, 체육, 상담지도	프로그램, 부모 비협조

사례조사 단체의 유형별 특성을 전체적으로 종합 비교하면 조직형단체의 경우 단체를 조직하고 설립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현직 교사로서 청소년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용활동장소나 공간을 갖고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활동경비를 소속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보조받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회비나 참가비 또는 지도자들의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비교적 오래 활동을 한 일부 단체의 경우 후원회를 통한 찬조금이나 후원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회관형단체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회원을 구성하거나 단체의 시설이 위치해 있는 인근 지역의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교나 소속 기관·단체 및 직장의 장비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지도자의 인적 구성도 매우 다양하며 자체 시설을 이용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다는 점에서 조직형 단체와는 다른 활동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형단체와 회관형단체의 특성을 주요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중심활동단체의 설립시기를 보면 의정부YMCA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1980년도 이후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 올수록 점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설립주체의 경우 조직형단체에서는 일반인과 교직에 종사하고있는 단체지도자들이 대부분인데 일반인의 경우 주로 개인사업을 경영하거나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그 밖에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단체지도자도 있다. 회관형단체에서는 회관시설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자체가 설립주체이거나 행정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설립주체가 되고 있다.

셋째, 회원구성은 대부분의 단체들이 각 교급별 청소년들과 일반인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직형단체의 경우는 거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회관형 단체는 지역주민이나 주부, 근로청소년, 공.상고 학생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

다. 조직형단체중 남해화학지역단은 국민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관령지역대는 대학생과 직장인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회원모집 방법에 있어 각 단체별로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조직형단체의 경우 주로 부모나 친인척을 통하여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와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경우, 자체의 홍보를 통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회관형단체의 경우 자발적으로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지도자의 경우 조직형단체는 대부분이 교사이며 대관령지역대는 주부가, 남원지역단은 지역주민이, 남해화학지역단은 기업체의 직원이 지도자로 교사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진천군 낙농4-H는 지도소 직원이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결교회지역대는 자원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회관형단체는 자체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충당하고 있으며 목동청소년회관의 경우에 운영주체인 비구니회에서 나온 지도자들과 외부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여섯째, 집회장소는 각 단체의 사정에 따라 여러 장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조직형단체의 경우 사무실이나 야영장, 학교, 종교시설, 기업체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 중에 금강지역대는 자체 집회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관령지역대도 자체 회관을 가지고 있고 진천군4-H는 특수하게도 가정집을 집회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원불교지역대와 성결교회지역대는 종교시설을 집회실로 이용하고 있다. 회관형단체는 자체 회관과 복지관을 주로 이용한다.

일곱째, 각 단체들의 보유하고 있는 장비시설은 주로 청소년단체의 중앙연맹에서 제공되거나 부모, 지도자 또는 기업체의 지원에 의존, 또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다. 조직형단체중에서 특히 새암지역대의 경우 야영장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성결교회지역대는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일지역대와 남해화학지역단은 기업체의 지원으로 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회관형단체의 경우는 모든 장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덟째, 각 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일반적으로 각 단체마다 육성회나 후원회를 조직하여 이들을 통해서 확보되거나 지원되고 있는데, 조직형단체는 중

양연맹이나 일반기업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해양소년단 직할대는 지도자의 자비로도 운영되고 있고, 원불교 지역대는 자체협의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동일지역대의 경우 동일고무벨트주식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회관형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자체지원이 대부분인데 의정부 YMCA의 경우는 지역의 인사들이 자치적으로 청소년협력위원회를 조직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어 다른 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아홉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의 청소년단체들의 주요 활동은 일반적으로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지리적, 사회적 조건에 따른 활동내용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대관령 지역대는 보이с카웃의 단체의 본래 목적 및 특성과 강릉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옛길찾기나 성터찾기, 눈집캠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원불교지역대의 경우는 중앙본부가 지방(이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목동청소년회관의 경우는 시설과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활동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으며, 광명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는 공업단지라는 지리적 특성 및 환경, 참가자의 욕구에 부응한 근로청소년을 중심으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직형단체들의 주요활동은 캠프활동과 봉사활동, 고적지 답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관형단체들의 주요활동은 상담, 레크레이션, 체육지도활동, 청소년행사주관활동 등을 하고 있다.

끝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청소년단체들이 다른 청소년단체들과 여러가지 면에서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들 청소년단체들은 (1)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2) 학교와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족, (3) 청소년단체활동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의 절대 부족, (4) 프로그램의 취약성, (5) 집회 장소의 마련 등을 당면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IV 장 활동실태와 의견분석

### 제 1 절 응답자의 주요 특성

본 연구에서는 지역중심 단체활동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에 포함된 응답자들의 특성을 단체활동과 관련된 특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변인별로도 조금의 차이를 두게 하였다. 즉, 청소년 표집대상의 특성은 성별, 연령별, 학교급별, 지역별, 단체유형별, 단체활동경력, 성적, 부모 직업의 변인으로 나누었고, 지도자 표집대상의 특성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단체유형별, 특기별, 단체활동경력별의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전체 분석대상이 된 청소년의 사례수는 603명이었으며 변인별 분포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 64.8%, 여자 35.2%로 남자가 더 높은 분포를 보였고, 연령별은 16세-18세가 33.2%, 13세-15세가 28.4%, 12세 미만이 16.4%, 19세-21세가 11.4%, 22세 이상이 10.6%의 순으로 나타나 13세-18세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1〉 참조). 이를 교급별로 살펴보면 국민학생 20.6%, 중학생 28.9%, 고등학생 35.5%, 대학생 15.1%로 중·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이 47.4%, 중소도시의 청소년이 52.5%로 나타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는데, 대도시 청소년중 서울 거주자는 29.5%, 직할시 거주자는 17.9%이고 중소

도시 분류집단중 지방 중소도시가 44.4%, 읍이나 면 거주자는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V-1〉 청소년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교급별, 지역별 분포

(단위: 명, %)

변 인		빈 도	백 분 비
성 별	남	391	64.8
	여	212	35.2
연 령 별	12세 미만	99	16.4
	13-15세	171	28.4
	16-18세	200	33.2
	19-21세	69	11.4
	22세 이상	64	10.6
교 급 별	국민학교	124	20.6
	중 학 교	174	28.9
	고등학교	214	35.5
	대 학 교	91	15.1
지 역 별	대 도시	286	47.4
	중소도시	317	52.5
합 계		603	100.0

단체유형별로는 〈표 IV-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분석대상 청소년 603명중 조직형이 57.6%, 회관형 단체에 소속해 있는 청소년이 42.6%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단체활동경력별로는 2년정도 활동한 청소년들이 3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년-6년(29.4%), 1년미만(12.4%), 8-12년(10.1%), 14년 이상(5.5%), 무응답(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성적 변인은 응답 청소년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 조사하였는데, 분석대상 청소년중 60%이상의 청소년들이 중상위권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2〉 청소년 응답자의 단체유형별, 활동경력별, 성적별 분포

(단위 : 명, %)

변 인		빈 도	백 분 비
단 체 유 형 별	조 직 형	346	57.6
	회 관 형	257	42.6
단 체 활 동 경 력 별	1년 미만	75	12.4
	2년-3년	230	38.1
	3년-6년	177	29.4
	8년-12년	61	10.1
	14년 이상	33	5.5
	무 응 답	27	4.5
성 적 별	상 위 권	156	25.9
	중상위권	220	36.5
	중 위 권	153	25.4
	중하위권	31	5.1
	하 위 권	18	3.0
	무 응 답	25	4.1
합 계		603	100.0

응답자 부모님의 직업으로는 사무 및 관련직 계통이 3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판매종사 직종(26.4%), 전문기술 및 관리직(13.3%), 기타직종(12.5%), 행정 및 관리직(6.8%), 무응답(5.8%), 서서비스직(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에서는 과학자·기술자가 가장 높고(6.3%), 교사·교수(3.3%), 의료인(1.2%), 성직 및 사회사업가(1.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무 및 관리직종에서는 일반 사무직(19.2%)과 경찰, 공무원(10.9%)으로, 기타 응답에서는 생산직에 관계되는 농, 수산업, 축산업, 공업 등이 6.5%, 그 나머지(6.0%)는 기능공, 일반 노동자, 실업자, 주부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3〉

청소년 응답자의 부모 직업

(단위 : 명, %)

직군구분	직업	빈도	백분비
전문기술 및 관련직	과학, 기술자	38	6.3
	의료인	7	1.2
	법률가	2	0.3
	교사, 교수	20	3.3
	성직, 사회사업가	7	1.2
	출판·인쇄	2	0.3
	군인	1	0.2
	인테리어	3	0.5
행정및관리직	기업가	41	6.8
사무및관리직	경찰, 공무원	66	10.9
	일반 사무직	116	19.2
판매종사	상업	159	26.4
서비스직	서비스업	31	5.1
기타	농, 수산업, 축산업, 공업	39	6.5
	기타	36	6.0
무응답		35	5.8
합계		603	100.0

분석결과에 있어 직업군 분류는 청소년들의 응답내용을 종합하고 각각에 대해 빈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재분류한 것이다(〈표 IV-4〉). 직업분류는 우리나라 각 기관에서 밝힌 직업분류를 고려하여 6개 직업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응답자들이 밝힌 직업내용을 연구자들이 판단하여 처리하였다.

〈표 IV-4〉

직업분류표

대분류	직업	응답항
전문기술 및 관련직군 종사자	과학·기술자	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발명가, 기타
	의료인	의사, 약사, 간호원
	법조인	법률가
	교원, 연구직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교사, 대학교수, 학원강사, 연구원, 학자, 청소년단체지도자
	성직자	선교사, 목사, 신부, 수녀, 스님
	사회사업가	사회사업가, 기타
	언론·광고· 출판인	기자, 아나운서, 광고인, 출판인 문인, 미술가, 음악가, 악기연주자
	순수 예술가	무용가, 기타
	대중 예술인	만화가, 가수, 배우, 텔런트, 감독, 연출자 코미디언, 모델, 디자이너, 기타
	체육인	운동선수
행정 및 관 리직종사자	관리직·입법	대통령, 장관, 국회위원, 외교관
	공무원	
	기업관리직	기업가
판매종사직	상업	상점주인
서비스종사자	서비스직	식당, 미용사, 운수업, 기타
농림어업	농·축산업	농업, 축산업
기	타	가정주부, 학생, 일반노동자, 무직, 기타

## 2. 지도자 표집대상의 특성

전체 분석대상 지도자 200명에 대한 각 변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5>와 같다. <표 IV-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로는 남자가 61.5%, 여자가 38.5%로 남자지도자가 청소년집단과 같이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연령별로는 25세~27세가 22.0%로 가장 많고, 20세~24세가 21.0%, 28세~30세, 31~35세가 똑같이 15.0%, 36세~40세가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나 20세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졸업이 61.5%로 가장 많고, 대학원졸업도 12.5%나 되어 상당수가 대학 이상의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 55.5%, 중소도시 44.5%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표 IV-5> 지도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단체 유형별 분포

(단위 : 명, %)

변 인	빈 도	백 분 비	
성 별	남	123	61.5
	여	77	38.5
연 령 별	20세 이하	42	21.0
	25-27세	44	22.0
	28-30세	30	15.0
	31-35세	30	15.0
	36-40세	20	10.0
	41-45세	15	7.5
	46-55세	14	7.0
	56세 이상	5	2.5
학 력 별	중졸(중퇴)	5	2.5
	고졸(중퇴)	44	22.0
	대졸(중퇴)	123	61.5
	대학원졸(중퇴)	28	14.0
지 역 별	대 도시	111	55.5
	중 소 도시	89	44.5
단 체 유 형 별	조 직 형	92	46.0
	회 관 형	108	54.0
합 계	200	100.0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단체유형별로도 조직형이 46.0%, 회관형이 54.0%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한편, 응답자의 단체활동경력 분포는 <표 IV-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년이하의 단체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3년의 경우가 12.5%, 3년~4년이 12.0%, 7년~10년이 10.5% 등의 순서로 나타나 1년이하의 경우를 제외하면 1년에서 10년까지의 단체활동경력을 가진 응답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IV-6>

지도자의 단체활동 경력

(단위 : 명, %)

단체활동경력	빈도	백분비
1년 이하	47	23.5
1년 ~ 2년	19	9.5
2년 ~ 3년	25	12.5
3년 ~ 4년	24	12.0
4년 ~ 5년	19	9.5
5년 ~ 7년	19	9.5
1년 ~ 10년	21	10.5
10년 ~ 15년	10	5.0
15년 ~ 20년	5	2.5
20년 이상	8	4.0
무응답	3	1.5
합계	200	100.0

직업별 분포는 <표 IV-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원이 전체 응답자의 50.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직업은 회사원(17.0%), 그리고 사회사업 및 종교관련직과 학생 및 무직(9.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원중에서는 초·중등교사가 17.5%, 대학교수가 0.5%, 학원강사가 3.5%이며 청소년단체 직원 및 지도자가 2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사업 및 종교관련직은 사회사업가가 5.5%, 목사·스님 등의 성직자가 4.0%이었으며, 학생 및 무직에서는 학생이 6.5%, 무직이

3.0%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중에서는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았다.

〈표 IV-7〉 지도자의 직업 분포

(단위 : 명, %)

직업구분		빈도	백분비
전문기술 및 관련직	과학 및 기술관련직	5	2.5
	교원	100	50.0
	사회사업 및 종교관련직	19	9.5
	출판직	2	1.0
행정 및 관리직	기업관리직	2	1.0
사무 및 관리직	공무원	6	3.0
	회사원	34	17.0
판매종사자	상업	11	5.5
서어비스직	기타 서어비스직	2	1.0
농·임·어업	농·임·수산업 종사자	0	0.0
기타	학생 및 무직	19	9.5
합계		200	100.0

본 연구에서는 지역중심활동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나 특기가 단체활동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해 단체지도자의 특기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IV-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캠프·야영·등산과 레크레이션에 기능이나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각각 15.5%, 15.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예능(9.0%), 지도 및 자원봉사(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단체활동과 관련하여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캠프·야영·등산과 관련된 특기나 취미는 여행, 오리엔티어링, 추적활동, 독도법, 매듭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양·수상활동(4.0%)과 관련된 내용들은 수상장비를 취급하는 것이라든지 스킨스쿠버, 윈드썰핑, 수상스키, 요트 등이 있다. 각종 스포츠활동(6.5%)과 관련된 내용은 복싱이나 테니스, 에어로빅, 볼링, 수영, 건강

체조, 항공스포츠 등이 있었고 그밖에 예능(9.0%)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음악, 미술, 연극외에도 피아노, 노래지도, 글쓰기, 사진, 디자인 등이 있었다.

〈표 IV-8〉 지도자의 청소년활동 관련 특기·기능

(단위 : 명, %)

특기 및 취미	빈도	백분비
캠프, 야영, 등산	31	15.5
해양, 수상활동	8	4.0
전통문화(풍물, 탈춤 등)	3	1.5
각종 스포츠	13	6.5
예능(음악, 미술, 연극 등)	18	9.0
레크레이션	30	15.0
상담	7	3.5
도서 및 잡지편집	1	0.5
수집	1	0.5
지도 및 자원봉사	17	8.5
활동프로그램 제작	4	2.0
컴퓨터 및 수학	7	3.5
합계	200	100.0

## 제 2 절 활동요소별 실태와 의견

### 1. 조직구성과 운영형태

지역중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지역중심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도자에게 직접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와 청소년들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청소년들에게는 현재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1) 청소년 회원의 수

지역중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는 11명~30명이 28.7%, 101명~300명(18.3%), 31명~50명(17.1%), 301명이상(14.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1명에서 30명사이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유형별로는 조직형이 11명~30명이 3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1명~50명(20.3%)으로 11명에서 50명 사이의 청소년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회관형은 101명에서 300명(25.9%)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1명에서 30명(24.7%), 그리고 301명이상(16.5%)으로 조직형단체에 비하여 회관형단체의 청소년회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타이는 없었다.

〈표 IV-9〉 지역중심 단체활동 청소년 수

(단위 : %)

응답 유형	10명 이하	11-30명	31-50명	51-100명	101-300명	301명 이상	사례수	계	비고
조직형	10.1	32.9	20.3	13.9	10.1	12.7	79	100	$\chi^2=8.57$
회관형	9.4	24.7	14.1	9.4	25.9	16.5	85	100	N. S.
전체	9.8	28.7	17.1	11.6	18.3	14.6	164	100	

## 2) 회원 구성의 특성

청소년 회원의 교급별 구성을 보면 다음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남녀 혼성동급별로 이루어진 비율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남녀 혼성교급이 31.1%, 동성교급이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직형단체에서는 혼성교급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회관형단체에서는 혼성동급이 51.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단체유형에 관계없이 남녀가 함께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교급이 다른 청소년들도 상당정도 포함 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단체지도자가 직접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구성

(단위 : %)

응답 유형	근로자 혼성교급	동성 동급	혼성 동급	혼성 교급	동성 동급	사례수	계	비 고
조직형	8.7	29.3	21.7	38.0	2.2	92	100	$x^2=34.73$
회관형	12.5	4.8	51.0	25.0	6.7	104	100	$p<0.01$
전 체	10.7	16.3	37.2	31.1	4.6	196	100	

## 3) 단체참여 지도자의 수

지역중심 단체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그 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표 IV-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명에서 5명사이가 26.4%로 가장 많고, 1명, 2명, 6~10명이 각각 15.8%, 17.6%, 16.2%로 비슷하게 나타나, 한 단체에 5명이하의 지도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6명이상 10명이하의 지도자들을 포함하면 70%가 넘게 나타났다.

이를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직형단체는 3명에서 5명사이의 지도자(29.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6명에서 10명(17.6%), 16명이상(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회관형단체에서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1명이 28.5

프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3명에서 5명(22.2%), 2명(19.5) 등의 순으로 나타나 50명이하의 지도자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회관형단체는 조직형단체에 비하여 지도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IV-11〉

단체참여 지도자 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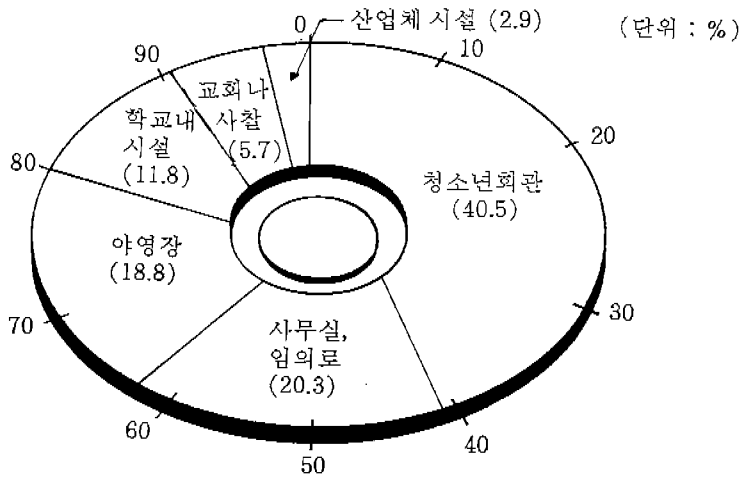
응답 유형	1명	2명	3-5명	6-10명	11-15명	16명 이상	사례수	계	비 고
조직형	7.5	16.4	29.3	17.6	12.8	16.4	335	100.0	$x^2=56.65$
회관형	28.5	19.5	22.2	14.0	10.9	5.0	221	100.0	$p<0.01$
전체	15.8	17.6	26.4	16.2	12.1	11.9	556	100.0	

#### 4) 운영형태와 활동(집회)장소

집회시 주로 이용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점은 지역중심활동의 유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어떠한 형태로 조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시사해 준다. 지역중심 단체들이 집회 또는 활동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대한 조사결과는 청소년과 지도자 모두 조직형단체의 경우는 야영장이나 야영활동을 할 수 있는 곳 또는 자체 사무실이나 활동 때마다 적합한 곳에 모여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회관형 단체는 자체 청소년회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 응답자들의 경우 청소년 회관(40.5%)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체 사무실(집회실)이나 활동 때마다 적합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경우(20.3%), 그리고 야영장(18.8%), 학교내 시설(11.8%)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회나 사찰(5.7%), 회사나 산업체 시설(2.9%)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

[그림 IV-1] 단체활동(집회) 운영형태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유형별로는 조직형단체가 야영장(31.3%)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와 사무실이나 활동 때마다 임의로 선정하는 경우(29.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회관형 단체의 경우는 대부분이 청소년회관(72.6%)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청소년회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그 다음은 남자청소년들은 야영장(23.1%), 여자청소년들은 사무실이나 활동 때마다 임의로(19.4%)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변인으로 보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령층의 청소년들은 청소년회관에 가장 높은 반응을 하였는데, 그 다음이 국민학생, 중학생은 야영장에서, 그리고 고등학생은 단체사무실이나 활동 때마다 임의로 장소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대학교 연령층의 청소년들은 단체사무실이나 활동 때마다 임의로 장소를 택한다(37.4%)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46.9%)나 중소도시(34.9%) 모두 청소년회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도시에 있는 단체 청소년들이

소도시에 있는 단체 청소년보다 청소년 회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며, 대도시에서는 활동장소로 주로 단체 사무실이나 학교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 중소도시에서는 야영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31.7%). 특히 야영장의 경우 대도시는 4.0%로 현저하게 이용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31.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2〉 단체활동(집회) 이용장소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

(단위 : %)

변인	응답 체	청소년 회관	교회나 사찰	야영장	산업체 시설	학교내 시설	사무실, 임의로	사례수	계	비고
전체	40.5	5.7	18.8	2.9	11.8	20.3	592	100		
유형별										
조직형	17.4	6.1	31.1	3.8	12.5	29.1	344	100	$\chi^2=209.15$	
회관형	72.6	5.2	1.6	1.6	10.9	8.1	248	100	$p<0.01$	
성별										
남	33.3	5.5	23.1	3.1	14.2	20.7	381	100	$\chi^2=29.96$	
여	53.6	6.2	10.9	2.4	7.6	19.4	211	100	$p<0.01$	
교급별										
국민학교	43.4	11.5	31.1	0.8	8.2	4.9	122	100		
중학교	40.1	2.4	24.0	0.6	13.8	19.2	167	100	$\chi^2=113.33$	
고등학교	49.1	5.7	8.5	1.9	12.3	22.6	212	100	$p<0.01$	
대학교	17.6	4.4	16.5	12.4	12.1	37.4	91	100		
지역별										
대도시	46.9	3.2	4.0	3.6	14.1	28.2	277	100	$\chi^2=90.73$	
중소도시	34.9	7.9	31.7	2.2	9.8	13.3	315	100	$p<0.01$	

한편, 단체활동 이용장소에 대하여 지도자들에게 같은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13〉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이 응답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회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에 있는 시설과 단체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비율도 각각 19.8%, 19.3%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IV-13〉 단체활동(집회) 운영형태에 대한 지도자들의 반응

(단위 : %)

응답 변인	청소년 회관	교회나 사찰	야영장	학 교 시 설	단 체 사무실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39.1	5.6	16.2	19.8	19.3	197	100	
유형별								
조직형	5.6	3.3	35.6	34.4	21.1	90	100	$\chi^2=105.45$
회원형	67.3	7.5	0.0	7.5	17.8	107	100	$p<0.01$
성 별								
남	34.4	0.8	22.1	23.8	18.9	122	100	$\chi^2=24.23$
여	46.7	13.3	6.7	13.3	20.0	75	100	$p<0.01$
지역별								
대 도시	44.0	4.6	8.3	24.8	18.3	109	100	$\chi^2=14.71$
중소도시	33.0	6.8	26.1	13.6	20.5	88	100	$p<0.01$

그러나 이를 단체유형별로 보면, 조직형단체는 야영장(35.6%)이나 학교시설을 중심으로(34.4%), 단체의 사무실을 중심으로(21.1%)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회원형 단체는 대부분이 청소년회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회원형 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의 반응에서도 아주 낮은 분포(1.6%)를 보였지만 야영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음이 발견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에 있는 단체들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회관중심(44.0%)이나 학교시설을 중심(24.8%)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중소도시에 있는 단체들은 회관(33.0%)이나 단체의 사무실(20.5%)을 중심으로 할 뿐만아니라 야영장을 중심으로(26.1%) 운영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단체활동(집회) 장소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역중심 단체는 청소년회관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회원형단체의 많은 비율이 주로 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조직형단체에 있어서는 주로 야영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이나 단체사무실을 이용하는 경

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 2. 활동 프로그램

여기서는 지역중심 단체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중심단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자랑할만한 프로그램, 특별히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관련된 프로그램, 프로그램계획시 청소년의견 반영정도의 5가지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 1) 활동의 분류

단체활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이 없고 논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되고 있으며, 동일한 활동의 경우도 그 형태와 참여대상 및 주관단체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많이 참여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문항에서는 대표적인 활동종류를 선택지로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나 그 밖의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직접 활동명칭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연구자들이 재분류하여 종류를 범주화 하였다.

수련활동의 분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의한 수련활동의 종류와 수련거리 「기본형」 구분표를 참고하여 7대 활동으로 분류하고 응답된 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유사한 것을 하나로 묶어 37가지로 항목화 하였다. 수련활동은 자연체험, 정서함양, 체력단련, 사회봉사, 예절수양, 전통문화, 복합수련활동의 7가지로 대별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예절수양활동 대신에 기타활동으로 범주화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는 응답결과 예절수양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으며 몇가지 조정되는 응답의 경우(예: 다도익히기, 전통예절) 모두 전통문화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며, 특정의 활동범주로 구분하기 어려운 활동프로그램(예: 전도, 산상기도, 회지발간, 신문제작)도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기타활동이란 범주를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표 IV-14>는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위해 새롭게 작

성한 활동분류표와 응답자들의 세부프로그램 명칭을 예시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IV-14〉 단체활동 프로그램 분류표

대분류	소분류	프로그램명(응답예시)
자연 체험	야영(캠핑) 소풍, 하이킹 탐험, 탐사 해양·수상활동 산악훈련	캠퍼리, 가족캠프 산행, 자전거하이킹 담력활동, 오리엔티어링 카약 타기, 보트타기 극기훈련, 암벽등반
정서 함양	특기개발 감상 발표회 심성훈련	기타, 무용, 합창, 문예 음악회, 연극, 영화, 문화예술초청공연 공연발표 자아개발 프로그램
체력 단련	체육기능훈련 체육대회	청소년스포츠교실
사회 봉사	자선활동 자연보호활동 행사보조 사회정화운동 장학·후원사업	고아원·재활원·양로원 방문, 불우이웃돕기 환경미화, 재활용품쓰기 길안내, 행사장주변 주차정리 다약퇴치운동, 부정선거단속 바자회, 독서실운영, 학비지원
전통 문화	전통민속교실 고직지답사 공연 전통예절교육 전통찾기	탈춤, 사물놀이 역사기행, 유적지답사, 산성답사 역사연극 다도, 전통예절 향토연구, 오솔길찾기, 서울뿌리찾기
복합 수련	행사 상담 나라사랑 기획·제작 기능훈련 연수	전시회, 축제, 청소년어울마당 상담실운영 통일교육, 국토순례, 한반도이용야영 놀이개발, 행사기획, 교재제작 컴퓨터, VTR시청각 교육 지도자교육연수
기타 활동	오락 종교 친교·교류 기타	무전여행, 유원지놀러가기 전도, 산상기도 단원친목회, 타단체연합활동 회지발간, 어린이신문

## 2)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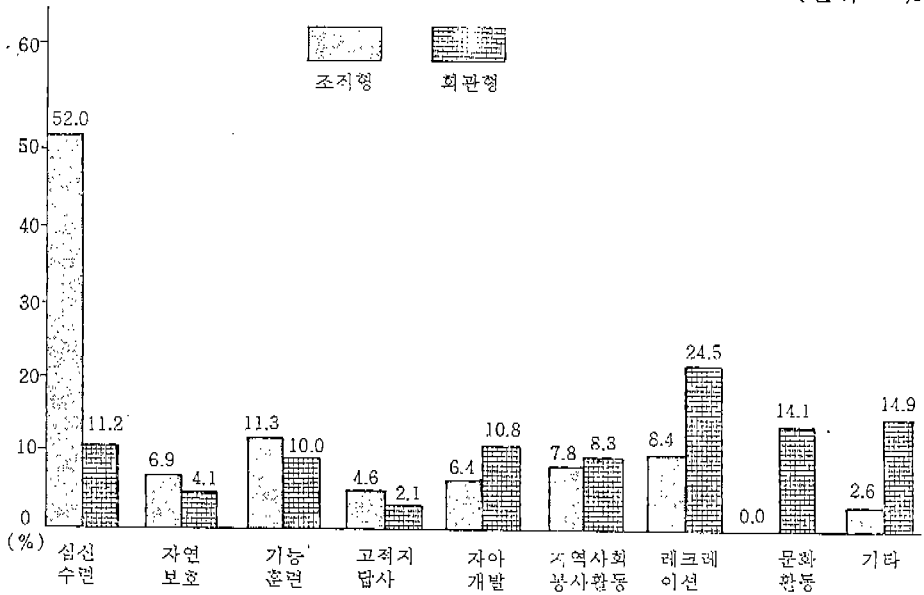
지역중심단체에 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과 지도자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가장 많이 참여해 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8가지의 대표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선택지로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응답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은 야외심신 수련활동(35.5%), 레크레이션 프로그램(15.0%), 기능훈련 프로그램(10.7%)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자연보호 캠페인(5.8%), 문화활동 프로그램(5.8%), 고적지답사 프로그램(3.6%)의 경우 참여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별로는 특히 활동유형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조직형단체 참가 청소년들의 경우 심신수련활동(52.0%)과 기능훈련프로그램(11.3%), 레크레이션활동(8.1%)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나 회관형단체 청소년들은 레크레이션(24.5%)과 문화활동(14.1%)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단체의 유형에 따라 주요활동의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전자의 경우 야외활동의 특성이 강하고 후자의 경우는 단체 자체의 회관이나 지원·연계기관의 시설 등을 활용한 실내중심 활동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그림 IV-2]).

[그림 IV-2]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참여해 본 프로그램

(단위 : %)



성별, 교급별, 지역별 변인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얻은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남녀 모두 야외심신수련활동, 레크레이션 등에서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교급별로는 국민학생과 중학생, 대학생들은 야외심신수련활동, 고등학생의 경우는 레크레이션활동에 가장 높은 분포를 하였고, 그 다음으로 야외심신수련활동에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의 경우 심신수련활동을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54.2%). 또한 고등학생들은 지역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대학생들은 자연보호와 환경보호 캠페인, 기능훈련 프로그램을, 국민학생들은 자아개발 프로그램과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개발 프로그램과 문화활동의 경우에는 다른 교급들과 달리 국민학생의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연보호·환경보호캠페인활동은 다른 교급들의 활동이 저조한 반면, 대학생들은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국민학생과 중학생보다는 기능훈련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이 야외심신 수련활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기능훈련 등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표 IV-15>).

<표 IV-15> 청소년이 가장 많이 참여해 본 프로그램

(단위 : %)

응답 변인	심신 수련	자연 보호	기능 훈련	고적 지 답사	자아 개발	지역 사회 봉사	레크 레이 션	문화 활동	기타	사례 수	계	비 고
전 체	35.3	5.8	10.7	3.6	8.2	8.0	15.0	5.8	7.7	587	100	
유형별												
조 직 형	52.0	6.9	11.3	4.6	6.4	7.8	8.4	0.0	2.6	346	100	$x^2=176.87$
회 관 형	11.2	4.1	10.0	2.1	10.8	8.3	24.5	14.1	14.9	241	100	$P<0.01$
성 별												
남	37.9	7.3	10.7	4.2	6.3	7.3	15.7	4.4	6.3	383	100	$x^2=19.83$
여	30.4	2.9	10.8	2.5	11.8	9.3	13.7	8.3	10.3	204	100	$P<0.05$
교급별												
국민학교	23.1	8.3	9.9	9.1	20.7	0.8	5.0	11.6	11.6	121	100	
중 학 교	54.2	2.4	6.0	2.4	1.8	3.0	11.3	6.5	12.5	168	100	$x^2=184.07$
고등학교	25.6	4.8	11.6	1.0	6.3	15.5	27.5	3.9	3.9	207	100	$P<0.01$
대 학 교	38.5	11.0	18.7	4.4	7.7	9.9	6.6	1.1	2.2	91	100	
지역별												
대 도시	36.4	4.4	10.7	1.8	3.3	8.8	17.3	5.5	11.8	272	100	$x^2=34.20$
중소도시	34.3	7.0	10.8	5.1	12.4	7.3	13.0	6.0	4.1	315	100	$P<0.01$

한편 지도자들의 응답결과도 청소년의 반응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야외심신수련활동 프로그램(28.3%)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기능훈련 프로그램(16.7%), 자아개발 프로그램(12.6%), 문화활동 프로그램(11.6%), 자연환경보호캠페인(10.6%), 레크레이션 프로그램(8.6%),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12.3%)의 순으로 나타나

레크리에이션에 높게 나타난 청소년들과는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단체 유형별로 보면, 조직형단체는 심신수련활동과 기능훈련, 그리고 자연 보호, 환경캠페인 등을 많이 하고 있었으나, 회관형단체는 문화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자아개발프로그램, 심신수련활동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도자의 성별에 따른 응답은 야외심신수련활동 프로그램이 남녀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다음으로 남자지도자는 기능훈련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문화활동, 자연보호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지도자는 자아개발프로그램, 문화활동과 기능훈련프로그램 등의 순서를 보임으로써 여자의 경우 실내활동을 남자보다 많이 실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가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지 않고 전체적인 응답결과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에 관계없이 야외심신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기능훈련프로그램, 자아개발 프로그램 등에도 높은 분포를 보였다(〈표 IV-16〉).

〈표 IV-16〉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지도자 응답)

(단위 : %)

응답 변인	심신 수련	자연 보호	기능 훈련	고적 지 답사	자아 개발	지역 사회 봉사	레크 레이 션	문화 활동	기타	사례 수	계	비 고
전 체	28.3	10.6	16.7	2.0	12.6	8.1	8.6	11.6	1.5	198	100	
유형별												
조 직 형	44.6	13.0	20.7	3.3	8.7	3.3	5.4	1.1	0.0	92	100	$x^2=48.05$
회 관 형	14.2	8.5	13.2	0.9	16.0	12.3	11.3	20.8	2.8	106	100	$P<0.01$
성 별												
남	32.5	9.8	17.9	3.3	8.1	8.1	10.6	9.8	0.0	123	100	$x^2=17.59$
여	21.3	12.0	14.7	0.0	20.0	8.0	5.3	14.7	4.0	75	100	$P<0.05$
지역별												
대 도시	23.9	9.2	19.3	0.9	13.8	11.9	8.3	11.0	1.8	109	100	$x^2=9.55$
중소도시	33.7	12.4	13.5	3.4	11.2	3.4	9.0	12.4	1.1	89	100	N. S.

### 3) 기억에 남거나 자랑할만한 프로그램

활동프로그램에 관한 두번째 질문은 그동안 참여한 활동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자랑할만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응답결과를 앞에서 말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분류표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청소년과 지도자는 거의 동일하게 자연체험활동과 복합수련활동,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등에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7대활동으로 재분류하면 전체적으로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39.9%), 그 다음으로 복합수련활동(22.6%), 사회봉사활동(10.8%)의 순서로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특히 자연체험활동의 경우 야영(캠프) 활동, 소풍과 하이킹, 탐험·탐사활동, 해양·수상활동, 산악훈련 등의 응답이 나왔는데 이 중 야영(캠프)에 대한 응답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소풍, 하이킹에도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복합수련활동으로 분류되는 응답으로는 국제친선 프로그램과 축제개최나 행사참가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구체적 명칭으로는 레크레이션과 기능, 기술훈련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환경미화, 자연보호활동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정화캠페인 활동에 대한 응답도 높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직형단체의 청소년들은 자연체험(51.6%)을 자랑할만한 프로그램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복합수련활동(25.0%), 친교나 종교, 오락활동과 같은 기타활동(8.9%)으로 응답함으로써 전체적인 반응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회관형단체의 청소년들은 복합수련, 전통문화활동, 사회봉사활동이 모두 17.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며, 자연체험활동(17.2%)이 그 다음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연체험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표 IV-17〉).

〈표 IV-17〉 기억에 남거나 자랑할만한 프로그램(청소년 응답)

(단위 : %)

응답 변인	자연 체험	정서 함양	체력 단련	사회 봉사	전통 문화	복합 수련	기타	사례 수	계	비 고
전 체	39.9	3.9	4.1	10.8	8.9	22.6	9.8	461	100	
유형별										
조직형	51.6	1.3	1.6	7.2	4.3	25.0	8.9	304	100	$x^2=94.57$
회관형	17.2	8.9	8.9	17.8	17.8	17.8	11.5	157	100	$P<0.01$
성 별										
남	40.0	2.0	5.6	9.2	7.5	23.6	12.1	305	100	$x^2=23.06$
여	39.7	7.7	1.3	14.1	11.5	20.5	5.1	156	100	$P<0.01$
교급별										
국민학교	40.4	3.2	11.7	5.3	13.8	14.9	10.6	94	100	
중 학교	42.6	5.7	6.6	2.5	11.5	19.7	11.5	122	100	$x^2=72.91$
고등학교	42.0	3.7	0.0	17.3	8.6	21.0	7.4	162	100	$P<0.01$
대 학교	31.3	2.4	0.0	16.9	0.0	38.6	10.8	83	100	
지역별										
대 도시	41.1	5.8	1.4	15.5	7.2	24.2	4.8	207	100	$x^2=28.38$
중소도시	39.0	2.4	6.3	7.1	10.2	21.3	13.8	254	100	$P<0.01$

성별 변인을 보면 남자, 여자 모두 자연체험과 복합수련활동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었지만, 남자는 오락프로그램과 친교활동과 같은 기타응답을, 여자의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조직형(7.2%)보다는 회관형(17.8%)이, 남자(9.2%)보다는 여자가(14.1%), 중소도시(7.1%)보다는 대도시(15.5%)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문화활동도 조직형(4.3%)보다 회관형(17.8%)이, 남자(7.5%)보다 여자(11.5%)가 높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았으며 대도시(7.2%)보다 중소도시(10.2%)가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국민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연체험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대학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급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국민 학생들은 자연체험, 복합수련, 전통문화활동을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하였고 체력단련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도 다른 변인들에 비해 높았고(11.7%), 중학생의 경우는 체력단련 프로그램보다는 교류활동과 같은 기타활동에 분류되는 것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특이한 점은 국민학생들과 중학생들은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특별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응답자가 없고 그대신 사회봉사에 대한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응답이 높고 전통문화활동의 낮은 반면, 중소도시는 사회봉사활동이 낮고 전통문화활동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자들의 반응은 청소년의 응답결과와 비슷하게 양상을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표 I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자연체험활동(35.8%)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야영(캠핑)활동, 탐험·탐사활동, 해양·수상활동, 산악훈련 등으로 응답한 것이 많았다.

지도자 응답결과에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복합 수련활동(30.8%)이었는데 세계잼버리대회 또는 청소년어울마당과 같은 행사에 참가한 활동이 전체의 9.0%가 되고, 그 다음으로 국제적인 친선도모 활동이 8.0%, 지도자연수 또는 세미나활동이 4.9%, 기능훈련 및 교육이 3.0%, 상담활동이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활동은 세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13.2%),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교아원이나 재활원 방문과 같은 자선활동, 농촌일손돕기, 교통정리, 인명구조, 환경미화, 자연보호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정서함양 활동은 8.8%로서 사회봉사활동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음악회나 연극·영화관람 또는 문화예술 초청공연 등의 문화감상활동, 각종활동발표회, 심성훈련 및 자아개발 활동, 특기개발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그 다음으로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내용으로는 탈춤, 사물놀이 등의 전통민속교실과 고적지답사, 전통찾기활동 등의 응답자가 많았다. 이 밖에 체력단련 활동에

대한 반응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3.8%), 청소년 스포츠교실, 체육대회가 대표적 활동이었으며 그 밖의 기타 활동으로 타단체와의 연합활동이나 친목 교류활동, 종교관련활동, 회지발간 등을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IV-18〉 기억에 남거나 자랑할만한 프로그램(지도자응답)

(단위 : %)

응답 변인	자연 체험	정서 함양	체력 단련	사회 봉사	전통 문화	복합 수련	기타	사례 수	계	비 고
전 체	35.8	8.8	3.8	13.2	4.4	30.8	3.1	159	100	
유형별										
조직형	44.2	3.9	2.6	6.5	6.5	33.8	2.6	77	100	$x^2=14.65$
회관형	28.0	13.4	4.9	19.5	2.4	28.0	3.7	82	100	$P<0.05$
성 별										
남	40.8	5.8	5.8	8.7	4.9	31.1	2.9	103	100	$x^2=12.81$
여	26.8	14.3	0.0	21.4	3.6	30.4	3.6	56	100	$P<0.05$
지역별										
대 도시	32.6	11.2	2.2	12.4	5.6	32.6	3.4	89	100	$x^2=4.23$
중소도시	40.0	5.7	5.7	14.3	2.9	28.6	2.9	70	100	N. S.

한편 이를 주요 변인별로 살펴보면, 단체 유형별로는 자연체험활동에서 조직형(44.2%)이 회관형(28.0%)보다 더 높은 반응을 나타낸 반면, 정서함양활동에서는 조직형이 3.9%, 회관형이 13.4%이고, 사회봉사활동에서는 조직형이 6.5%, 회관형이 19.5%로 회관형이 정서함양활동과 사회봉사활동에서 조직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자연체험활동에서는 남자(40.8%)가 여자(26.8%)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봉사에서는 여자(21.4%)가 남자(8.7%)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정서함양에서도 여자(14.3%)가 남자(5.8%)보다 높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남자지도자가 자연체험활동을, 여자지도자의 경우는 사회봉사활동을 상대적으로 더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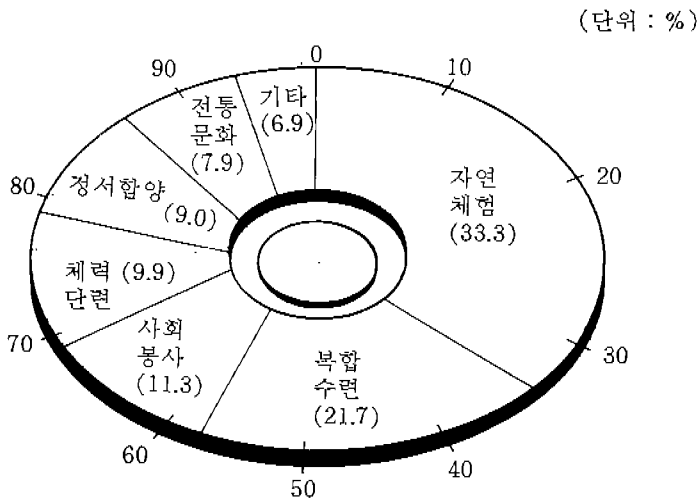
#### 4) 특별히 하고 싶은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재 소속해 있는 단체에서 앞으로 특별히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여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나 지도자 모두 앞에서 살펴본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자랑할만한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연체험활동, 복합수련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자연체험활동이 33.3%로 가장 많이 들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복합수련(21.7%), 사회봉사(11.3%)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V-3)).

[그림 IV-3] 앞으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응답결과의 세부활동 내용을 7대 활동별로 보면 우선 자연체험활동으로는 야영(캠핑)이 가장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합수련활동 중에서는 단원친목활동, 또는 다른 청소년단체의 연합활동이었고, 사회봉사활동에서는 고

아원이나 양로원 등을 방문하거나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자선활동과 교통정리와 같은 봉사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정서함양활동 중에서는 글짓기, 무용 등 취미와 특기 개발, 체력단련활동으로는 수영이나 항공 스포츠, 테니스 등이, 전통문화 활동 중에는 역사기행이나 유적지순례와 같은 고적답사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변인별로 보면, 다음 <표 IV-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체유형별로는 조직형단체 청소년들은 자연체험(42.2%), 복합수련(20.2%), 체력단련(12.3%)의 순으로 나타났고, 회관형단체 청소년은 복합수련(24.4%), 정서함양활동(17.9%), 자연체험(17.3%)으로 나타났고, 또한 회관형단체 청소년들은 정서함양활동,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데 비해, 조직형단체 청소년들은 체력단련활동을 선호하고 있어 단체유형별로 참여청소년들의 선호에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V-19> 앞으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청소년응답) (단위: %)

응답 변인	자연 체험	정서 함양	체력 단련	사회 봉사	전통 문화	복합 수련	기타	사례 수	계	비 고
전 체	33.3	9.0	9.9	11.3	7.9	21.7	6.9	433	100	
유형별										
조직형	42.2	4.0	12.3	8.7	5.4	20.2	7.2	277	100	$x^2=56.03$
회관형	17.3	17.9	5.8	16.0	12.2	24.4	6.4	156	100	$P<0.01$
성 별										
남	36.9	5.4	13.3	7.5	8.2	21.5	7.2	279	100	$x^2=33.59$
여	26.6	15.6	3.9	18.2	7.1	22.1	6.5	154	100	$P<0.01$
교급별										
국민학교	25.0	10.7	16.1	10.7	15.2	17.0	5.4	112	100	
중 학교	32.0	8.2	8.2	9.0	6.6	32.8	3.3	122	100	$x^2=45.43$
고등학교	33.6	10.4	6.4	14.4	7.2	17.6	10.4	125	100	$P<0.01$
대 학교	47.3	5.4	9.5	10.8	0.0	17.6	9.5	74	100	
지역별										
대 도시	30.2	8.5	7.5	12.1	8.5	27.6	5.5	199	100	$x^2=10.69$
중소도시	35.9	9.4	12.0	10.7	7.3	16.7	8.1	234	100	N. S.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자연체험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것은 같으나 남자의 경우는 체력단련활동을, 그리고 여자는 사회봉사활동(18.2%)과 정서함양활동(15.6%)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국민학생의 경우에 각 활동 종류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반면,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자연체험활동이나 일부 활동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특히, 국민학생들은 다른 교급의 청소년들에 비해 체력단련활동과 전통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다른 교급 청소년들은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통문화에 있어서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그 응답이 낮아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통문화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응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체험활동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각 교급별로 차이가 없이 거의 다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모두 자연체험과 복합수련활동을 선호하고 있었고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지도자에 대한 응답결과는 전체적으로 자연체험활동(28.8%), 복합수련활동(28.0%), 정서함양활동(12.2%), 사회봉사활동(10.9%), 체력단련활동(9.0%), 기타활동(5.8%), 전통문화활동(5.1%)의 순으로 나타나 지도자에 있어서도 자연체험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0〉).

단체유형별로는 자연체험활동에서 조직형이 46.7%, 회관형이 12.3%로 나타남으로써 조직형단체의 지도자들이 회관형단체의 지도자보다 자연체험활동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정서함양활동에서는 회관형단체 지도자들이(17.3%) 조직형단체 지도자들보다(6.7%) 더 높게 반응했으며, 전통문화활동은 회관형단체 지도자들이(8.6%) 조직형단체 지도자들(1.3%)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단체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로는 자연체험활동에 가장 큰 차이를 보여 남자 지도자가(37.0%) 여자지도자보다(14.3%) 높게 나타났으나, 정서함양활동과 사회봉사활동에서는

〈표 IV-20〉 앞으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지도자응답)

(단위 : %)

응답 변인	자연 체험	정서 함양	체력 단련	사회 봉사	전통 문화	복합 수련	기타	사례 수	계	비 고
전 체	28.8	12.2	9.0	10.9	5.1	28.2	5.8	156	100	
유형별										
조 직 형	46.7	6.7	5.3	9.3	1.3	28.0	2.7	75	100	$x^2=28.43$
회 관 형	12.3	17.3	12.3	12.3	8.6	28.4	8.6	81	100	$P<0.01$
성 별										
남	37.0	8.0	10.0	8.0	5.0	28.0	4.0	100	100	$x^2=14.41$
여	14.3	19.6	7.1	16.1	5.4	28.6	8.9	56	100	$P<0.05$
지역별										
대 도시	25.0	16.3	6.3	7.5	7.5	31.3	6.3	80	100	$x^2=8.58$
중소도시	32.9	7.9	11.8	14.5	2.6	25.0	5.3	76	100	N. S.

여자 지도자가 남자 지도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 앞으로 특별히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프로그램에서 남녀 지도자간에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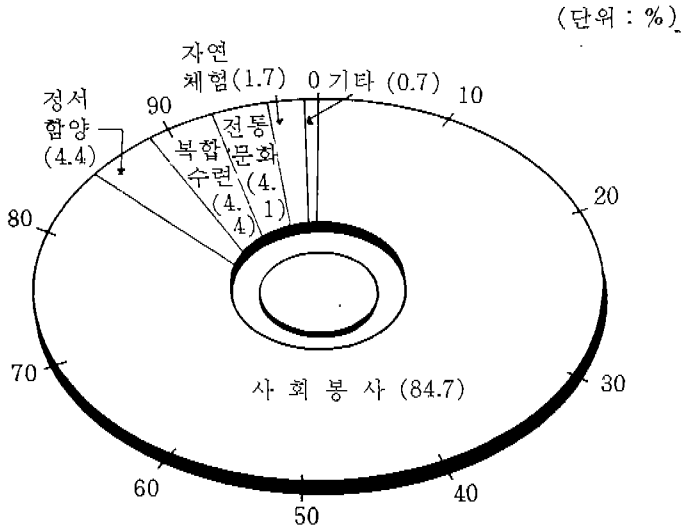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복합수련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반면(31.3%), 중소도시는 자연체험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나(32.9%) 지역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5) 지역사회와 관련된 프로그램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지역사회 또는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지도자들 모두 다른 어떠한 활동보다도 사회봉사활동에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는데, 지역사회 관련 활동이 주로 사회봉사활동의 확대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사회봉사활동으로 분류되는 프로그램을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84.5%), 이는 각 변인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특히 환경미화, 자연보호활동과 캠페인, 교통정리 같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4]).

[그림 IV-4] 지역사회와 관련된 활동



이를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IV-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체 유형별로는 사회봉사활동이 조직형단체 청소년이 93.4%, 회관형단체 청소년이 62.2%로 모두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나, 회관형단체의 청소년의 경우는 전통문화활동이 13.4%, 정서함양활동이 12.2%로 나타나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교급별로는 모든 교급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을 들고 있었으나, 그 다음 활동으로 국민학생의 경우에는 전통문화활동(13.9%)을, 중학생의 경우는 정서함양활동(7.6%)을, 고등학생의 경우는 복합수련활동(9.5%)을, 대학생의 경우는 정서함양활동과 기타 활동을 들고 있어 교급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은 대도시 청소년들과 중소도시 청소년들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지역사회와 지역발전에 관련된 활동(청소년 응답)

(단위 : %)

응답 변인	자연 체험	정서 함양	사회 봉사	전통 문화	복합 수련	기타	사례 수	계	비 고
전 체	1.7	4.4	84.7	4.1	4.4	0.7	295	100	
유형별									
조 직 형	0.9	1.4	93.4	0.5	2.8	0.9	213	100	$x^2=54.59$
회 관 형	3.7	12.2	62.2	13.4	8.5	0.0	82	100	$P<0.01$
성 별									
남	1.0	4.1	87.0	2.1	4.7	1.0	193	100	$x^2=8.47$
여	2.9	4.9	80.4	7.8	3.9	0.0	102	100	N. S.
교급별									
국민학교	0.0	5.6	79.2	13.9	1.4	0.0	72	100	
중 학 교	6.1	7.6	78.8	1.5	6.1	0.0	66	100	$x^2=53.20$
고등학교	1.2	2.4	86.9	0.0	9.5	0.0	84	100	$P<0.01$
대 학 교	0.0	2.7	93.2	1.4	0.0	2.7	73	100	
지역별									
대 도시	2.9	3.9	88.3	1.0	3.9	0.0	103	100	$x^2=6.63$
중소도시	1.0	4.7	82.8	5.7	4.7	1.0	192	100	N. S.

한편, 단체활동 중에서 지역사회 또는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지도자의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IV-22〉와 같이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분석결과 사회봉사활동이 8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정서함양활동(4.8%), 복합수련활동(4.0%), 전통문화활동(2.4%), 체력단련활동(1.6%) 자연체험활동(0.8%)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활동을 지역사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들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미화, 자연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으며, 교통정리, 길안내 등의 봉사활동과 고아원, 재활원 방문과 같은 자선활동, 지역행사보조활동, 야학·공부방 운영, 독서실 운영, 근로청소년·장애자 교육,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변인별로는 단체유형별에 있어서만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조직형단체나

회관형단체 모두 사회봉사활동에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으나, 정서함양활동과 복합수련 활동에서는 회관형이 더 높게 나타나 조직형단체와 회관형단체 청소년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IV-22〉 지역사회와 지역발전에 관련된 활동(지도자응답)

(단위 : %)

응답 변인	자연 체험	정서 함양	체력 단련	사회 봉사	전통 문화	복합 수련	기타	사례 수	계	비 고
전 체	0.8	4.8	1.6	84.7	2.4	4.0	1.6	124	100	
유형별										
조 직 형	1.5	0.0	0.0	93.9	3.0	0.0	1.5	66	100	$x^2=17.33$
회 관 형	0.0	10.3	3.4	74.1	1.7	8.6	1.7	58	100	$P<0.01$
성 별										
남	1.2	2.4	0.0	87.8	3.7	3.7	1.2	82	100	$x^2=9.43$
여	0.0	9.5	4.8	78.6	0.0	4.8	2.4	42	100	N. S.
지역별										
대 도 시	0.0	4.8	3.2	88.7	0.0	1.6	1.6	62	100	$x^2=8.04$
중 소 도 시	1.6	4.8	0.0	80.6	4.8	6.5	1.6	62	100	N. S.

### 3. 활동지도자

지역중심단체의 지도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중심단체의 지도자에 대하여 청소년들과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지도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지도자상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 1) 지도자에 대한 만족정도

먼저 청소년에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지도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결과는 〈표 IV-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청소년의 39.9%가 지도자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38.9%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지도자에 대하여는 78.6%가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3〉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응답 변인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사례수	계	비	고
전체	39.9	38.9	16.9	2.5	1.9	592	100		
유형별									
조직형	48.1	36.2	12.8	1.7	1.2	343	100	$x^2=27.47$	
회관형	28.5	42.6	22.5	3.6	2.8	249	100	$P<0.01$	
성별									
남	40.8	36.9	17.1	3.1	2.1	385	100	$x^2=3.13$	
여	38.2	42.5	16.4	1.4	1.4	207	100	N. S.	
교급별									
국민학교	66.1	25.8	6.5	0.0	1.6	124	100	$x^2=80.12$	
중학교	44.1	37.6	15.3	1.2	1.8	170	100	$P<0.01$	
고등학교	20.6	46.4	24.9	5.3	2.9	209	100		
대학교	40.4	41.6	15.7	2.2	0.0	89	100		
지역별									
대도시	32.9	44.8	18.4	2.2	1.8	277	100	$x^2=12.11$	
중소도시	46.0	33.7	15.6	2.9	1.9	315	100	$P<0.05$	

만족정도를 주요변인별로 보면, 단체유형별로는 조직형단체의 48.1%가 매우 만족하고 있는 반면 회관형단체는 28.5%만이 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도 조직형단체는 12.8%에 불과하나 회관형단체는 22.5%나 되어 조직형단체 청소년들이 회관형단체 청소년들에 비해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교급별로는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의 40%이상이 지도자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은 매우 만족한다가 20.6%로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4.9%나 되어 다른 교급에 비해 만족정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들이 매우 만족에 32.9%, 대체로 만족에 44.8%가 응답했고, 중소도시는 매우 만족이 46.0%, 대체로 만족이 33.7%로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청소년 부모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정도

현재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지도자에 대하여 부모들은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을 청소년에게 제기하였다. 이를 청소년이 생각하는 부모의 단체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로 본다면 매우 신뢰한다가 31.4%, 신뢰하고 있는 편이 43.6%로 70%이상이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뢰의 기준과 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으나 청소년들의 이러한 응답은 평소의 단체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나 결과 등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나 평가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표 IV-24>).

응답결과를 변인별로 보면 단체유형별로는 청소년들의 60%이상이 부모들이 지도자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회관형단체에서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35.0%나 되어 조직형단체에 비하여 신뢰정도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관형단체에 비해 조직형단체의 부모들은 단체지도자와 보다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상호간에 신뢰가 높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급별로는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의 80%이상이 부모들이 지도자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은 60%정도가 부모들이 지도자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35.3%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다른 교급에 비하여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별, 지역별 변인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V-24〉

청소년 부모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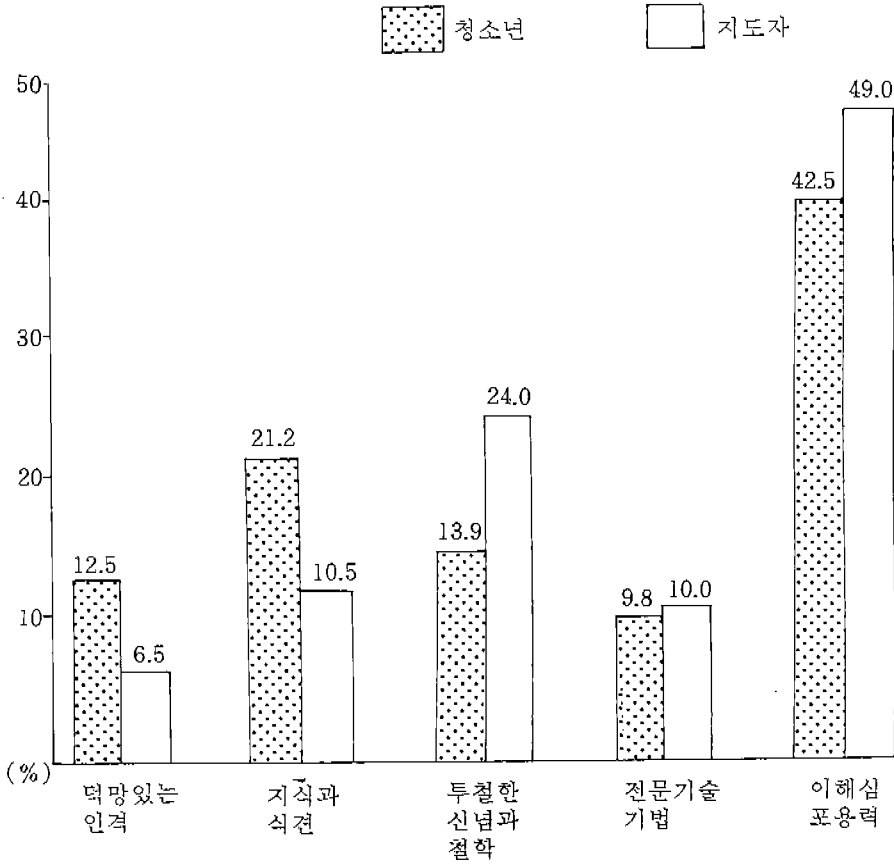
변인	응답	매우 신뢰	신뢰	그저 그렇다	불신	매우 불신	사례수	계	비고
전체		31.4	43.6	22.2	1.5	1.4	590	100	
유형별									
조직형		37.2	47.1	13.1	1.7	0.9	344	100	$x^2=43.98$
회관형		23.2	38.6	35.0	1.2	2.0	246	100	$P<0.01$
성별									
남		31.8	43.2	22.7	1.8	0.5	384	100	$x^2=6.48$
여		30.6	44.2	21.4	1.0	2.9	206	100	N. S.
교급별									
국민학교		41.9	43.5	13.7	0.8	0.0	124	100	$x^2=66.45$
중학교		40.4	40.9	18.1	0.6	0.0	171	100	$P<0.01$
고등학교		15.5	44.9	35.3	2.4	1.9	207	100	
대학교		36.4	45.5	11.4	2.3	4.5	88	100	
지역별									
대도시		33.8	38.1	25.2	1.4	1.4	278	100	$x^2=6.72$
중소도시		29.2	48.4	19.6	1.6	1.3	312	100	N. S.

3) 바람직한 지도자상

청소년단체활동에서의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청소년과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지닌 지도자를 가장 많이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지식과 식견을, 지도자들은 신념과 철학을 지적함으로써 청소년과 지도자간에 차이를 보였다(〔그림 IV-5〕 참조).

[그림 IV-5] 바람직한 지도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



응답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심과 포용력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42.5%의 응답을 나타냈으며 지식과 식견(21.2%), 신념과 철학(13.9%), 덕망있는 인격(12.5%) 등의 순으로 들고 있었다.

변인별로는 각 교급과 지역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교급에 있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이 이해심과 포용력에 가장 높은 반응을 한 반면, 국민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은 지식과 식견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이해심과 포용력, 지식과 식견, 덕망있는 인격등의 순

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는 이해심과 포용력, 지식과 식견, 신념과 철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25)).

〈표 IV-25〉 바람직한 지도자상

(단위 : %)

응답 변인	덕망있는 인	지식과 식견	신념과 철학	전문기술 기법	이해심 포용력	사례수	계	비	고
전체	12.5	21.2	13.9	9.8	42.5	590	100		
유형별									
조직형	13.5	21.1	11.7	9.9	43.9	342	100	$x^2=3.72$	
회관형	11.3	21.4	16.9	9.7	40.7	248	100	N. S.	
성별									
남	12.7	22.8	14.2	10.1	40.2	386	100	$x^2=3.07$	
여	12.3	18.1	13.2	9.3	47.1	204	100	N. S.	
교급별									
국민학교	10.7	36.4	13.2	11.6	28.1	121	100	$x^2=61.19$	
중학교	12.4	15.9	7.6	9.4	54.7	170	100	$P<0.01$	
고등학교	9.0	19.0	17.1	6.7	48.1	210	100		
대학교	23.6	15.7	19.1	15.7	25.8	89	100		
지역별									
대도시	14.1	15.2	11.9	9.4	49.5	277	100	$x^2=17.38$	
중소도시	11.2	26.5	15.7	10.2	36.4	313	100	$P<0.01$	

한편, 지도자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IV-26〉과 같이 나타났는데, 청소년에 대한 포용력(49.0%)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투철한 신념과 철학, 지식과 식견이 각각 24.0%와 10.5%로 나타나고 있다.

각 변인에 있어서는 단체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는데, 조직형단체 지도자의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심과 포용력에 38.0%, 투철한 신념과 철학에 32.6%, 지식과 식견에 12.0%로 나타났고, 회관형단체 지도자들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심과 포용력에 58.3%의 응답을 보임으로써 조직형단체의 지도자응답(38.0%)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투철한 신념과 철학이 16.7%로 그 다음 순이며, 전문기술이나 기법이 11.1%로 세번째로 높은 순서

를 보이고 있다.

〈표 IV-26〉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지도자 응답)

(단위 : %)

	덕망있는 인격	지식과 식견	신념과 철학	전문기술 학기법	이해심 포용력	사례수	계	비	고
전체	6.5	10.5	24.0	10.0	49.0	200	100		
유형별									
조직형	8.7	12.0	32.6	8.7	38.0	92	100	$\chi^2=11.33$	
회관형	4.6	9.3	16.7	11.1	58.3	108	100	$P<0.05$	
성별									
남	7.3	12.2	25.2	10.6	44.7	123	100	$\chi^2=2.69$	
여	5.2	7.8	22.1	9.1	55.8	77	100	N. S.	
지역별									
대도시	9.0	11.7	18.9	11.7	48.6	111	100	$\chi^2=6.18$	
중소도시	3.4	9.0	30.3	7.9	49.4	89	100	N. S.	

#### 4. 청소년 의견 반영 정도

실제 활동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청소년과 지도자에게 각각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과 지도자 모두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단체유형별로는 조직형단체가 회관형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많이 반영한다’가 26.6%, ‘많이 반영하고 있는 편’이 42.9%로 60% 이상이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8.8%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표 IV-27〉).

〈표 IV-27〉

청소년 의견 반영정도(청소년응답)

(단위 : %)

반응 변인	매우 많이 반영	많이 반영함	그저 그렇다	반영 하고 못함	전혀 반영 못함	사례 수	계	비 고
전 체	26.6	42.9	21.7	5.9	2.9	580	100	
유형별								
조직형	32.5	44.8	17.0	5.1	0.6	335	100	$x^2=35.00$
회관형	18.4	40.4	28.2	6.9	6.1	245	100	$P<0.01$
성 별								
남	27.3	40.8	23.3	5.3	3.2	377	100	$x^2=3.43$
여	25.1	46.8	18.7	6.9	2.5	203	100	N. S.
교급별								
국민학교	36.4	47.1	9.9	5.0	1.7	121	100	
중 학교	27.3	45.5	20.6	5.5	1.2	165	100	$x^2=38.97$
고등학교	17.9	38.2	30.4	8.2	5.3	207	100	$P<0.01$
대 학 교	32.2	43.7	19.5	2.3	2.3	87	100	
지역별								
대 도시	25.6	44.7	20.9	5.9	2.9	273	100	$x^2=0.70$
중소도시	27.4	41.4	22.5	5.9	2.9	307	100	N. S.

단체유형별로는 조직형단체 청소년들은 77.3%가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회관형단체 청소년들은 58.8%에 불과했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조직형단체는 17.0%인데 비해 회관형단체는 28.2%로 회관형단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은 70%이상이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56.1%로 과반수가 넘지만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30.4%나 되어 다른 교급에 비해 반영정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성별,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는 7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들은 10%미만에 불과했다.

한편, 지도자들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 〈표 IV-28〉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63.3%의 지도자들이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28〉).

〈표 IV-28〉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 정도(지도자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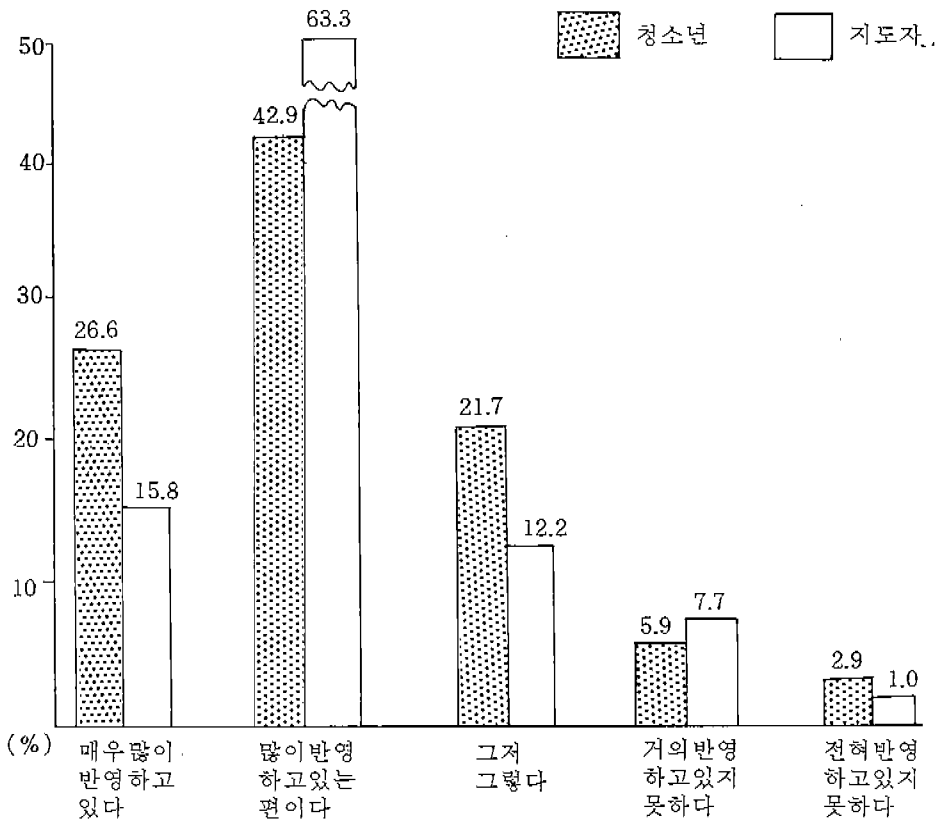
반응 변인	매우많 이반영	많이 반영함	그저 그렇다	거의반영 하지못함	전혀반영 하지못함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15.8	63.3	12.2	7.7	1.0	196	100	
유형별								
조 직 형	21.3	65.2	6.7	6.7	0.0	89	100	$x^2=9.12$
회 관 형	11.2	61.7	16.8	8.4	1.9	107	100	N. S.
성 별								
남	18.2	65.3	11.6	5.0	0.0	121	100	$x^2=7.67$
여	12.0	60.0	13.3	12.0	2.7	75	100	N. S.
지역별								
대 도 시	13.0	65.7	12.0	7.4	1.9	108	100	$x^2=3.13$
중소도시	19.3	60.2	12.5	8.0	0.0	88	100	N. S.

따라서 지도자들의 의견도 청소년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70%가 넘는 지도자들이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지도자들은 8.7%에 불과하게 나타남으로써 앞서 분석한 바람직한 지도자상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란 응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변인별로는 전체적인 결과와 다름없이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그림 IV-6]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청소년 의견반영 정도에 대해 청소년과 지도자의 두 집단의 전체응답 결과를 비교 제시한 것이다.

[그림 IV-6]

청소년 의견 반영 정도



### 5. 주요활용시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의 4대 요소중의 하나이며 단체활동의 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중심 청소년단체활동의 특성을 알기 위해 청소년과 지도자에게 가장 많이 이용해 본 시설, 선호하는 시설, 지역중심단체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조사하였다.

#### 1) 가장 많이 이용해 본 시설

지역중심단체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해 본 시설로는 야영장과 청소

년회관으로 나타났으며, 교회나 사찰, 학교강당, 공공회관 등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과 지도자의 응답이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청소년들의 반응결과를 보면 야영장(25.7%), 청소년회관(10.0%)을 주로 활용하며, 음악감상실(1.0%), 과학관(1.1%), 전시실(1.3%)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9>).

<표 IV-29> 가장 많이 활용해 본 시설에 대한 청소년응답(복수 응답)

(단위 : %)

변인 응답	유 형 별			성 별		교 금 별				지 역 별	
	전체	조직형	회관형	남	여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대도시	중소 도시
교회나 사찰	7.8	7.5	8.2	7.4	8.4	11.7	4.1	7.3	10.3	5.2	10.0
학교강당	6.6	3.8	10.6	5.4	8.9	4.3	3.8	11.5	4.0	6.8	6.4
공공회관	6.4	7.5	4.9	7.3	4.7	2.6	6.6	7.6	8.6	4.7	8.0
청소년 회관	10.8	7.0	16.4	9.0	14.4	7.0	12.9	14.3	4.6	16.5	5.9
야영장	25.7	35.4	11.7	26.3	24.7	29.6	28.3	16.7	36.0	22.1	28.9
도서관	5.8	4.0	8.4	5.6	6.0	4.8	3.1	8.6	5.7	6.0	5.6
공원	7.8	7.6	8.0	9.4	4.7	5.7	7.5	8.3	9.7	7.2	8.3
음악감상실	1.0	0.9	1.1	1.1	0.8	0.0	0.6	1.6	1.7	1.6	0.5
전시실	1.3	1.5	0.8	1.1	1.6	2.2	0.9	1.3	0.6	1.2	1.4
박물관	2.9	2.6	3.3	2.1	4.5	7.4	2.8	1.3	0.6	2.1	3.6
과학관	1.1	1.5	0.4	1.1	1.0	1.3	1.9	0.5	0.6	1.2	1.0
실내수영장	5.2	5.2	5.3	6.3	3.1	9.6	7.2	2.3	2.3	5.4	5.1
야외체육시설	5.2	4.6	6.2	6.2	3.4	3.9	5.0	5.7	6.3	5.2	5.2
극장, 영화관	5.1	5.2	4.9	4.8	5.5	4.3	4.4	6.5	4.0	6.2	4.1
독서실	5.5	3.8	8.0	5.5	5.5	3.5	8.5	5.7	2.3	6.0	5.1
실내스케이트장	1.8	1.8	1.8	1.4	2.6	2.2	2.2	0.8	2.9	2.7	1.1
사례수	1,107	655	452	726	381	230	318	384	175	516	59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체유형별로 보면 조직형단체의 청소년들은 야영장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공원, 공공회관, 교회나 사찰, 청소년 회관 등의 순으로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회관형단체 청소년들은 청소년회관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16.4%),

그 다음으로 야영장(11.7%), 학교강당(10.6%)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단체의 경우 회관형단체보다 공공회관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나 회관형단체는 공공회관 이용률이 낮고 청소년회관이 주된 활용시설이 되고 있으며 학교강당 이용에 있어서도 조직형단체는 매우 낮은데 비해 회관형단체의 경우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회관형단체의 청소년들은 그들 단체가 소유한 청소년회관과 학교강당을 자주 이용하고 있고, 조직형단체의 청소년들은 공공회관과 청소년회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 여 청소년 모두 야영장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남자는 공원(9.4%)과 청소년회관(9.0%), 여자는 청소년회관(14.4%)과 학교강당(8.9%)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회관과 학교강당의 경우에 여자의 이용률이 더 높고, 남자는 공원, 실내수영장, 야외체육시설 같은 체력단련 시설물에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도 야영장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설인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청소년회관 이용률은 높은 반면, 국민학생과 대학생의 경우는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학생과 대학생들은 교회나 사찰의 이용률이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교회나 사찰의 이용은 대부분 그 종교와 관련된 단체의 경우에 해당하고 비관련 단체가 교회나 사찰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공공회관의 이용률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점점 증가하며, 실내수영장의 경우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다른 집단들이 그들의 단체활동에 학교강당을 잘 활용하지 않는 반면에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들은 전체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야영장(22.1%)과 청소년 회관(16.5%)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은 야영장(28.9%)과 교회나 사찰(10.3%)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교회나 사찰, 공공회관의 경우는 중소도시에서 더 이용률이 높고 청소년 회관의 경우 대도시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도자들의 경우 단체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해 본 시설은 전체적으로 야영장이 32.3%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야외체육시설(13.6%), 청소년회관(13.3%), 교회나 사찰(7.7%), 공공회관과 학교강당(7.2%), 공원(5.1%), 실내수영장(3.8%), 극장·영화관(2.6%), 음악감상실과 독서실(2.1%), 도서관(1.5%), 전시실(1.3%), 과학관(0.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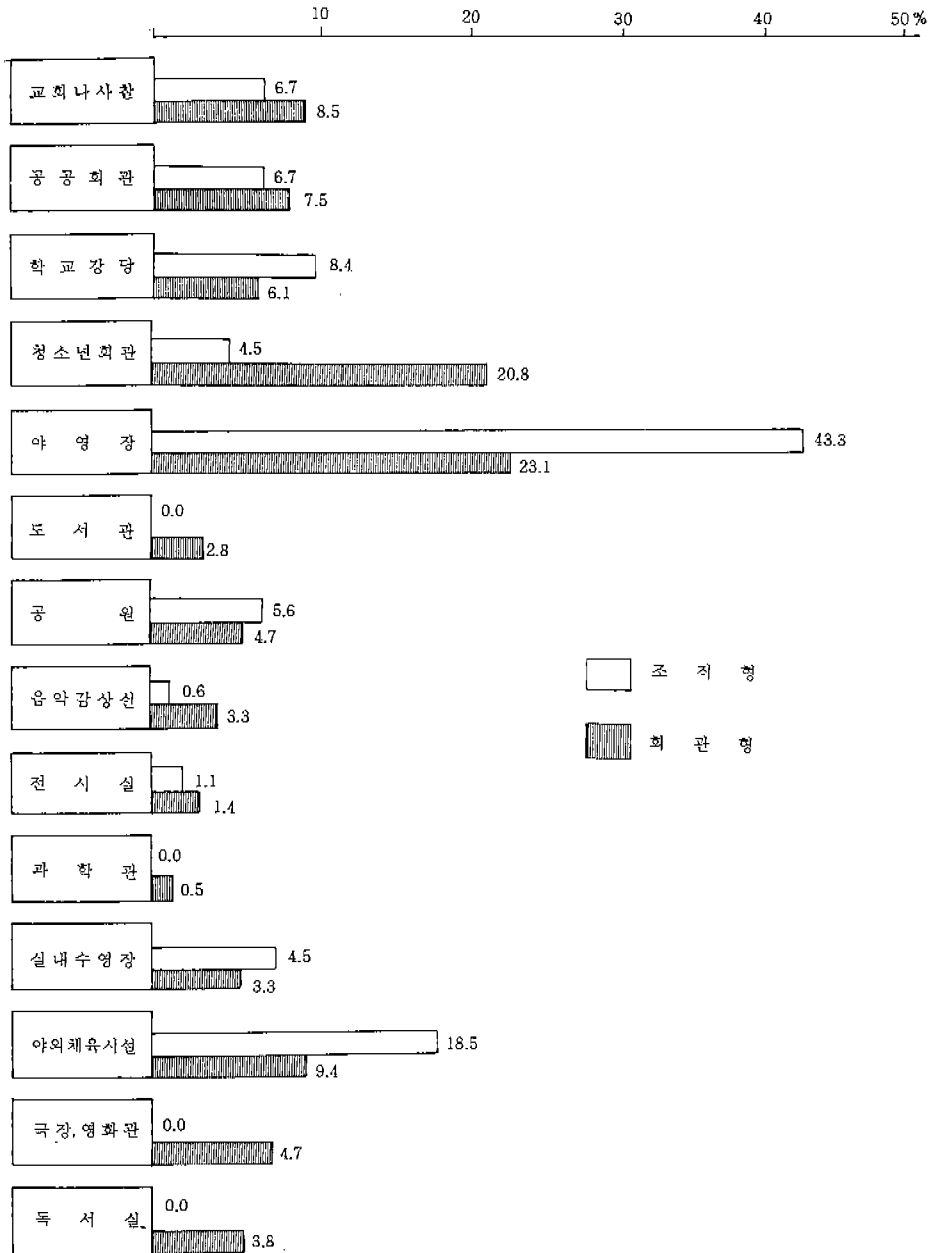
주요변인별 응답차이를 보면 특히 단체유형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 조직형단체(43.3%)가 회관형단체(23.1%)보다 활용해 보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고, 청소년회관 시설에 대해서 활용해 보았다는 응답은 회관형단체(20.8%)가 조직형단체(4.5%)보다 더 높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조직형단체(18.5%)가 회관형단체(9.4%)보다 더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그림 IV-7]).

성별에 따라서는 야영장에 대해서 남자지도자(27.3%)가 여자지도자(24.2%)보다 더 높은 응답을 나타낸 반면에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여자지도자(18.8%)가 남자지도자(10.0%)보다 더 높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지역별로 볼 때는 청소년회관에 대하여 대도시(16.7%)가 중소도시(9.1%)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는 중소도시(36.0%)가 대도시(29.3%)보다 더 높은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IV-7]

단체유형별 주요 이용시설

(단위 : %)



〈표 IV-30〉 가장 많이 활용해 본 시설에 대한 지도자 응답(복수 응답)

(단위 : %)

변인 응답	전 체	유 형 별		성 별		지 역 별	
		조직형	회관형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교회나 사찰	7.7	6.7	8.5	4.6	12.8	6.0	9.7
공공회관	7.2	6.7	7.5	7.5	6.7	7.0	7.4
학교강당	7.2	8.4	6.1	8.3	5.4	7.4	6.9
청소년회관	13.3	4.5	20.8	10.0	18.8	16.7	9.1
야영(캠핑)장	32.3	43.3	23.1	37.3	24.2	29.3	36.0
도서관	1.5	0.0	2.8	0.4	3.4	1.9	1.1
공원	5.1	5.6	4.7	5.8	4.0	3.7	6.9
음악감상실	2.1	0.6	3.3	2.1	2.0	2.8	1.1
전시실	1.3	1.1	1.4	0.8	2.0	1.9	0.6
과학관	0.3	0.0	0.5	0.0	0.7	0.5	0.0
실내수영장	3.8	4.5	3.3	4.6	2.7	4.2	3.4
야외체육시설	13.6	18.5	9.4	15.8	10.1	12.1	15.4
극장, 영화관	2.6	0.0	4.7	1.7	4.0	3.3	1.7
독서실	2.1	0.0	3.8	1.2	3.4	3.3	0.6
사 례 수	390	178	212	241	149	215	17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 인근지역에 필요한 시설

인근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청소년회관(12.4%)과 야영장(11.4%)이 인근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실내수영장(9.7%), 야외체육시설(8.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전시실(2.4%), 독서실(2.6%), 교회나 사찰(2.6%) 등의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에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단체유형별로는 조직형단체의 청소년들은 야영장(14.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회관(13.8%), 야외체육시설(11.1%), 실내수영장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회관형단체 청소년들은 실내수영장(12.2%)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회관(10.6%), 도서관(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 여 청소년 모두 청소년회관과 야영장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지만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 보다 야외체육시설이 인근지역에 설치되기를 더 많이 희망하고 있었으며, 여자는 남자보다 음악감상실을 더 희망하고 있었다.

〈표 IV-31〉 인근지역에 필요한 시설(복수 응답)

(단위 : %)

변인 응답	전체	유 형 별		성 별		교 급 별			지 역 별		
		조직형	회관형	남	여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대도시	중소 도시
교회나 사찰	2.6	2.8	2.4	1.8	4.1	1.6	2.4	2.4	5.1	2.3	2.9
학교강당	4.6	3.8	5.6	3.4	6.7	3.2	2.7	6.0	6.8	4.3	4.9
공공회관	3.0	2.8	3.2	3.2	2.6	2.4	2.7	4.3	1.1	4.3	1.8
청소년회관	12.4	13.8	10.6	11.1	14.9	4.0	11.4	13.9	22.6	9.9	14.7
야영장	11.4	14.3	7.4	10.7	12.7	11.7	9.9	10.3	16.4	14.4	8.7
도서관	7.1	6.5	8.0	7.0	7.4	7.7	7.2	7.2	6.2	9.4	5.1
공원	6.3	5.5	7.4	6.6	5.8	4.8	4.8	8.9	5.1	6.4	6.2
음악감상실	7.1	7.4	6.6	6.3	8.4	4.0	7.8	8.6	6.2	7.8	6.4
전시실	2.4	2.4	2.4	3.2	1.0	0.4	2.7	3.1	2.8	2.5	2.3
박물관	5.9	5.5	6.4	6.2	5.3	11.3	7.2	3.1	2.3	4.1	7.5
과학관	6.2	5.5	7.2	7.6	3.6	10.1	6.9	5.0	2.3	4.8	7.5
실내수영장	9.7	7.8	12.2	10.3	8.6	16.5	8.1	8.4	6.2	5.5	13.6
야외체육시설	8.9	11.1	6.0	10.0	7.0	7.7	8.7	8.2	13.0	9.8	8.2
극장, 영화관	5.0	4.3	6.0	6.3	2.6	3.2	9.3	4.1	1.7	7.1	3.1
독서실	2.6	1.8	3.6	2.5	2.6	3.6	3.3	1.9	1.1	3.0	2.1
실내스케이트장	4.8	4.7	5.0	3.8	6.7	7.7	5.1	4.6	1.1	4.6	5.1
사례수	1,176	676	500	759	417	248	334	417	177	564	61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교급별로는 청소년회관의 필요성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예외적으로 국민학생의 경우에는 4.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대신 많은 국민학생들이 인근지역에 실내수영장(16.5%)이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타집단에 비해 과학관이나 박물관도 비교적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는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과학관이나 박물관이 설치되기를 더 많이 희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야영장 설치의 경우에는 모든 집단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고 극장이나 영화관은 새로 더 설치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매우 저조하지만, 중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은 타집단에 비해 공원과 음악감상실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국민학생들은 음악감상실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회관과 야영장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 집단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타 집단들이 교회나 사찰을 덜 필요로 하고 있는데 비해 그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학교강당의 필요성을 국민학생이나 중학생들보다는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들은 야영장(14.4%)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며 중소도시 청소년들은 청소년회관(14.7%)과 실내수영장(13.6%)을 더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히 대도시의 청소년들은 중소도시보다 공공회관, 야영장, 도서관, 극장, 영화관을 더 필요로 하며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은 대도시 청소년들보다 박물관, 과학관, 실내수영장을 더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보다 많이 활용되어야 할 시설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 활동특성의 파악을 위한 시설활용면의 또 다른 질문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보다 많이 활용되어야 할 시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자에게 물어보았다.

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야영장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회관(19.2%), 야외체육시설(17.4%), 공공회관(7.6%), 학교 강당(4.3%), 극장·영화관(4.0%), 도서관과 실내수영장(3.5%), 음악감상실(3.0%), 공원(2.5%), 교회나 사찰(2.3%), 박물관(1.8%), 전시실(1.5%), 독서실과 과학관(1.3%), 실내 스케이트장(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유형별로는 조직형단체에서 야영장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야외체육시설(19.7%), 청소년회관(15.3%)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온 것에 비해, 회관형단체에서는 청소년회관이 22.5%로 가장 높고, 야외체육시설(15.5%), 야영장(15.0%), 공공회관(10.8%)의 순으로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회관형단체가 조직형단체보다 회관에 대한 활용에 대하여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조직형단체는 회관형단체보다 야영장 활용에 대하여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는 청소년회관 활용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자지도자(20.8%)가 남자지도자(18.2%)보다 많이 나타남에 비해, 야영장의 활용에 대하여는 남자지도자(31.4%)가 여자지도자(17.5%)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야외체육시설활용에 대해서도 남자지도자(19.0%)가 여자지도자(14.9%)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대도시 지도자들(20.1%)이 중소도시 지도자들(18.1%)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야영장에 대해서는 중소도시 지도자들(29.9%)이 대도시 지도자들(22.8%)보다 더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표 IV-32)).

〈표 IV-32〉 보다 많이 활용되어야 할 시설지도자 (복수 응답)

(단위 : %)

변인 응답	전 체	유 형 별		성 별		지 역 별	
		조직형	회관형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교회나 사찰	2.3	3.3	1.4	2.5	1.9	3.2	1.1
공공회관	7.6	3.8	10.8	5.8	10.4	8.2	6.8
학교나 강당	4.3	3.8	4.7	4.1	4.5	4.1	4.5
청소년회관	19.2	15.3	22.5	18.2	20.8	20.1	18.1
야영(캠핑)장	26.0	38.8	15.0	31.4	17.5	22.8	29.9
도서관	3.5	1.6	5.2	2.5	5.2	3.7	3.4
공원	2.5	1.1	3.8	2.5	2.6	3.7	1.1
음악감상실	3.0	3.8	2.3	2.9	3.2	1.4	5.1
전시실	1.5	0.5	2.3	1.2	1.9	1.4	1.7
박물관	1.8	2.7	0.9	2.5	0.6	2.3	1.1
과학관	1.3	1.1	1.4	1.2	1.3	0.9	1.7
실내수영장	3.5	2.7	4.2	2.9	4.5	3.2	4.0
야외체육시설	17.4	19.7	15.5	19.0	14.9	17.8	16.9
극장, 영화관	4.0	0.0	7.5	1.7	7.8	6.4	1.1
독서실	1.3	0.5	1.9	0.8	1.9	0.9	1.7
실내스케이트장	0.8	1.1	0.5	0.8	0.6	0.0	1.7
사 례 수	396	183	213	242	154	219	17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4) 이용해 보고 싶은 시설

가장 선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년과 지도자가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냈는데, 청소년들은 실내스케이트장, 실내수영장 등을 선호하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야영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들에게 단체활동시 특히 이용해 보고 싶은 곳을 16개 보기 중에서 선택한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실내스케이트장(15.5%)과 실내수영장(14.2%)을 가장 이용하고 싶어했으며, 과학관(9.7%), 음악감상실(9.0%), 극장·영화관(9.0%)에 대한 선호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곳들은 청소년

년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해 보지 않았던 장소로서, 특히 실내스케이트장, 과학관, 음악감상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던 사실과 비교할 때 이용하고 싶은 시설들이 실제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시설에 대한 응답은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조직형단체 청소년들은 실내스케이트장(17.9%)을 회관형단체의 청소년은 실내수영장(15.2%)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조직형단체는 회관형보다 과학관을, 회관형단체는 조직형단체보다 음악감상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형단체 청소년들이 회관형단체 청소년들보다 야영장 이용률이 높고 청소년회관 이용률이 낮았는데, 특히 이용해보고 싶은 곳에 대한 응답에서는 조직형단체 청소년들이 회관형단체 청소년들보다 청소년회관을 더 이용해 보고 싶어하였으며, 야영장을 덜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관형단체 청소년들의 활동은 주로 청소년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야영장을 이용해 보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많은 점은 주목된다(〈표 IV-33〉).

성별로는 남자, 여자 청소년 모두 실내스케이트장과 실내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했으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과학관과 박물관에 흥미를 더 나타냈고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음악감상실에 더 흥미를 나타냈다. 극장과 영화관에 대한 이용하고 싶은 정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변인으로 보면 국민학생과 중학생은 실내스케이트장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실내수영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회관을 이용해보고 싶다는 응답에는 국민학생들이 가장 낮은 반응을, 대학생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소년회관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정도가 점점 높아졌다. 박물관과 과학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교급은 국민학생들로 다른 교급들보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고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시설의 이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극장과 영화관의 경우에도 국민학생과 중학생들의 응답빈도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표 IV-33〉 특히 이용해 보고 싶은 시설에 대한 청소년응답(복수 응답)

(단위 : %)

변인 응답	유 형 별			성 별		교 급 별			지 역 별		
	전체	조직형	회관형	남	여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도시	대도시	중소 도시
교회나 사찰	1.2	1.2	1.3	1.6	0.5	0.4	0.6	1.8	2.3	1.0	1.5
학교강당	1.9	2.1	1.7	2.0	1.8	1.3	1.5	2.8	1.7	2.3	1.7
공공회관	1.1	0.9	1.3	1.3	0.5	0.4	0.6	2.0	0.6	0.8	1.3
청소년 회관	6.0	7.6	3.7	6.2	5.6	2.9	4.6	7.1	10.5	4.0	7.8
야영장	7.2	5.1	10.2	6.7	7.9	5.9	3.7	12.4	3.5	7.6	6.8
도서관	2.0	1.6	2.6	1.6	2.8	2.9	0.6	1.8	4.1	1.9	2.1
공원	4.1	3.4	5.0	3.4	5.4	5.9	2.2	4.3	4.7	3.8	4.3
음악감상실	9.0	7.5	11.3	8.2	10.5	6.3	9.3	10.6	8.7	8.6	9.4
전시실	2.7	1.8	4.1	2.6	3.1	4.6	1.9	2.3	2.9	2.9	2.6
박물관	6.3	6.1	6.5	7.2	4.6	9.6	5.9	4.8	5.8	4.0	8.3
과학관	9.7	10.5	8.7	11.5	6.4	13.4	11.4	6.6	8.7	8.4	10.9
실내수영장	14.8	15.2	14.1	13.9	16.4	13.4	13.0	16.2	16.9	15.4	14.2
야외체육시설	7.9	8.8	6.5	8.4	6.9	6.7	7.1	9.1	8.7	9.1	6.8
극장, 영화관	9.0	9.0	9.1	8.9	9.2	10.0	13.3	6.8	4.7	12.4	6.1
독서실	1.8	1.2	2.6	1.9	1.5	2.5	3.4	0.5	0.6	1.7	1.8
실내스케이트장	15.3	17.9	11.5	14.6	16.7	13.8	21.0	11.1	16.3	16.2	14.5
사례수	1,131	669	462	741	390	239	324	396	172	525	60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보다 높으며, 독서실의 경우 모든 교급에서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특히 더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야영장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경우는 별로 높지않지만, 고등학생들은 야영장에 대한 응답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12.4%).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중소도시보다 극장, 영화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중소도시는 대도시보다 박물관, 과학관, 청소년회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체활동시에 청소년들이 특히 선호하는 곳이라 생각되는 시설에 대

한 지도자의 응답결과는 전체적으로 야영장(26.6%)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야외체육시설(17.0%), 극장·영화관(12.8%), 실내수영장(12.3%), 청소년회관(8.1%), 실내스케이트장(4.4%), 공원(3.9%), 과학관(3.1%), 교회나 사찰(2.9%), 음악감상실(2.3%), 도서관(1.8%), 학교강당(1.3%), 공공회관과 박물관(1.0%), 전시실(0.8%), 독서실(0.5%)의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앞서 분석한 청소년들의 응답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는 실내스케이트장과 실내수영장이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이점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청소년자신들의 실제 욕구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IV-34〉).

〈표IV-34〉 청소년들이 특히 선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자 응답(복수 응답)

(단위 : %)

변인 응답	전 체	유 형 별		성 별		지 역 별	
		조직형	회관형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교회나 사찰	2.9	4.0	1.9	3.0	2.6	0.9	5.3
공공회관	1.0	1.1	1.0	0.9	1.3	0.9	1.2
학교강당	1.3	2.3	0.5	2.2	0.0	1.4	1.2
청소년회관	8.1	7.5	8.6	6.9	9.9	7.1	9.4
야영(캠핑)장	26.6	29.3	24.4	30.6	20.5	26.4	26.9
도서관	1.8	1.1	2.4	0.9	3.3	2.4	1.2
공원	3.9	1.7	5.7	3.0	5.3	3.8	4.1
음악감상실	2.3	1.1	3.3	3.0	1.3	1.4	3.5
전시실	0.8	1.7	0.0	0.9	0.7	0.0	1.8
박물관	1.0	2.3	0.0	1.7	0.0	0.9	1.2
과학관	3.1	5.7	1.0	3.9	2.0	3.8	2.3
실내수영장	12.3	14.4	10.5	14.2	9.3	10.4	14.6
야외체육시설	17.0	16.1	17.7	15.9	18.5	20.8	12.3
극장, 영화관	12.8	5.2	19.1	9.1	18.5	15.6	9.4
독서실	0.5	0.6	0.5	0.4	0.7	0.5	0.6
실내스케이트장	4.4	5.7	3.3	3.4	6.0	3.8	5.3
사 례 수	383	174	209	232	151	212	17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선호시설에 대한 응답결과를 변인별로 보면 단체 유형별로 볼 때 조직형단체의 지도자는 교회나 사찰, 야영장, 박물관, 과학관, 실내수영장, 실내 스케이트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회관형단체 지도자보다 청소년들이 더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회관형단체의 경우 청소년회관, 공원, 음악감상실, 극장, 영화관 등의 시설을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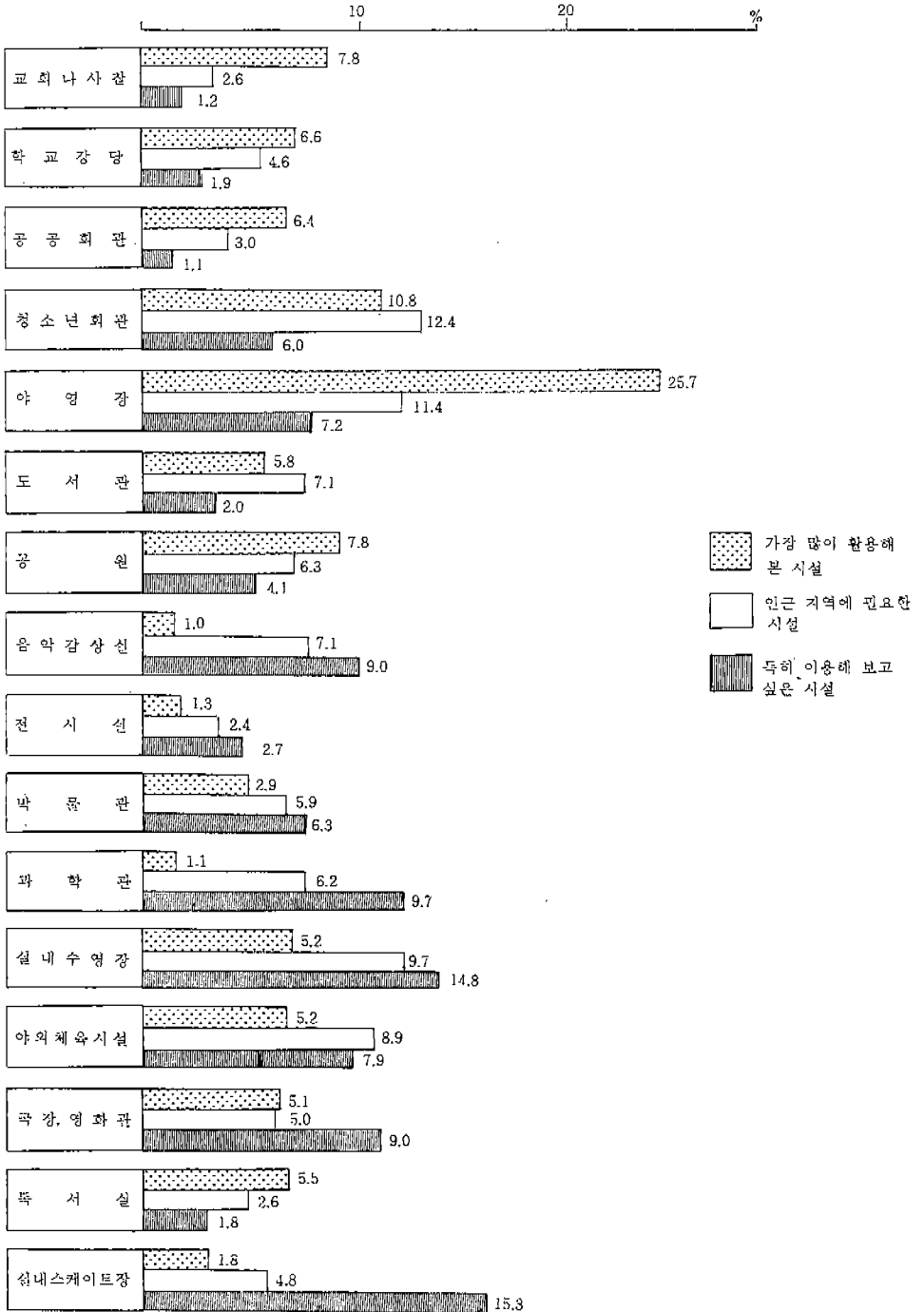
성별로는 야영장시설에 대하여 남자지도자(30.6%)가 여자지도자(20.5%)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실내수영장 시설에 대하여도 남자지도자(14.2%)가 여자지도자(9.3%)보다 더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반면, 극장, 영화관시설에 대해서는 여자지도자(18.5%)가 남자지도자(9.1%)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극장, 영화관 시설에 대해서는 대도시(15.6%)가 중소도시(9.4%)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대도시(20.8%)가 중소도시(12.3%)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의 [그림 IV-8]는 지금까지 분석한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시설들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많이 활용해 본 시설과, 인근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및 특히 이용해 보고 싶은 시설 등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종합 비교한 것이다. 시설별로 응답반응의 차이를 보면 야영장은 많이 활용해 본 시설로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25.7%) 청소년회관은 인근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반응이 가장 높으며, 실내스케이트장과 실내수영장이 앞으로 특히 이용해 보고 싶은 시설로서 많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8] 단체활동 이용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

(단위 : %)



### 제 3 절 참여실태와 활동특성

#### 1. 참여실태와 사회적 인식

여기서는 지역중심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 요건에 대한 검토·평가를 위한 첫번째로 현재의 활동상에 대한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참여실태와 만족 정도 및 부모들의 협조 정도, 친구 동료 등 주변의 인식과 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 1) 가입동기·경로

청소년들이 지역중심단체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와 경로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재 지역중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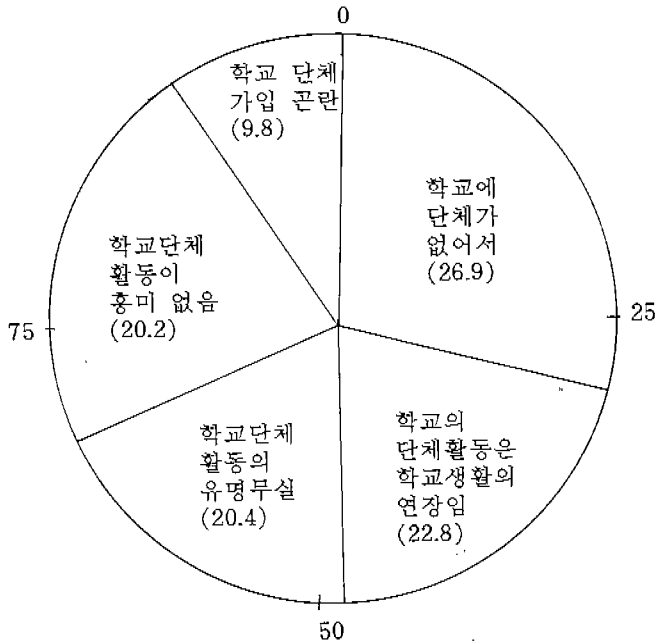
그 결과 지역중심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입동기가 대부분이 학교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단체가 부족하고, 활동내용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학교내에서의 단체활동을 학교생활의 연장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IV-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체활동 참여 동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학교에 그 단체가 없어서(26.9%)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이 학교생활의 연속인 것같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22.8%), 학교내에 있는 단체는 유명무실하여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서(20.4%), 학교에 있는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재미가 없어서(2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학교에 있는 단체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들어가기 어려워서 학교 밖에 있는 단체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V-9]

단체활동 참여 가입 동기

(단위 : %)



이를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IV-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형단체의 청소년들은 전체적인 경향과 달리 학교에 가입하고 싶은 단체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학교에 있는 단체는 학교생활의 연속인 것같아 흥미가 없어서(28.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단체의 활동이 저조해서(24.7%), 가입하고 싶은 단체가 학교에 없어서(2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관형단체의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입하고 싶은 단체가 없어서 가입한 경우가 가장 많고(35.2%), 그 다음으로는 학교단체활동의 지루함(19.0%)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녀 청소년 모두 학교내에 활동하고 싶은 단체가 없어서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그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들은 흥미없는 활동, 학교생활의 연장, 학교내 활동의 유명무실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연장, 학교활동의 유명무실, 학교내 단체가입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 청소년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교급별,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5〉 지역중심 단체활동 가입동기

(단위 : %)

응답 변인	학교에 없어서	학교단체 가입관련	흥미없는 활동	학교생활 의 연장	학교활동의 유명무실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26.9	9.8	20.2	22.8	20.4	491	100		
유형별									
조직형	20.4	5.1	21.1	28.7	24.7	275	100	$\chi^2=39.62$	
회관형	35.2	15.7	19.0	15.3	14.8	216	100	$p<0.01$	
성 별									
남	24.9	7.8	23.4	23.1	20.9	321	100	$\chi^2=9.93$	
여	30.6	13.5	14.1	22.4	19.4	170	100	$p<0.05$	
교급별									
국민학교	30.3	11.9	24.8	20.2	12.8	109	100	$\chi^2=19.08$	
중학교	21.9	4.8	17.8	27.4	28.1	146	100	N. S.	
고등학교	28.7	11.4	19.8	22.2	18.0	167	100		
대학교	27.5	13.0	18.8	18.8	21.7	69	100		
지역별									
대도시	26.6	9.4	21.0	24.0	18.9	233	100	$\chi^2=1.00$	
중소도시	27.1	10.1	19.4	21.7	21.7	258	100	N. S.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지역중심 단체에 가입하게 경로에 대해서는 다음 〈표 IV-3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친구의 소개로 단체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24.6%), 그 다음이 부모님이나 친지의 권유(17.5%), 지도자의 권유(11.55), 포스터·홍보물을 통해서(10.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체유형별, 성별, 지역별로는 친구의 소개로 가입되게 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급별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이나 친지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 경우

가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대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은 친구의 소개로 가입하게 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지역중심 단체활동에 있어서도 낮은 연령층에 속하는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아직도 부모나 친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IV-36〉

지역중심 단체 가입경로

(단위 : %)

응답 변인	포스터 홍보물	부모님 친지 권유	지도자 권유	담 임 다 큰 선생님 선생님 소 개 소 개	친구 형,언니 소개 권유	기타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10.8	17.5	11.5	7.1	5.4	24.6	9.1	14.0	593	100	
유형별											
조직형	8.1	17.4	18.0	7.2	9.0	20.6	9.0	10.7	345	100	$x^2=67.44$
회관형	14.5	17.7	2.4	6.9	0.4	30.2	9.3	18.5	248	100	$p<0.01$
성 별											
남	11.2	16.9	13.3	7.0	5.2	26.0	8.6	11.7	384	100	$x^2=8.85$
여	10.0	18.7	8.1	7.2	5.7	22.0	10.0	18.2	209	100	N. S.
고급별											
국민학교	7.4	39.7	5.8	11.6	3.3	14.0	5.8	12.4	121	100	
중학교	8.2	25.1	21.6	11.1	9.9	14.0	2.3	7.6	171	100	$x^2=177.53$
고등학교	13.7	4.3	6.6	3.3	2.8	34.6	14.7	19.9	211	100	$p<0.01$
대학교	13.3	4.4	11.1	2.2	5.6	35.6	13.3	14.4	90	100	
지역별											
대도시	13.1	16.7	8.2	2.8	6.0	23.8	13.1	16.3	282	100	$x^2=33.89$
중소도시	8.7	18.3	14.5	10.9	4.8	25.4	5.5	11.9	311	100	$p<0.01$

2) 단체활동 참여도

현재 소속해 있는 단체의 활동 또는 집회에 참석하는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매번 참여한다와 자주 참여하는 편이다에 청소년의 경우 각각 43.7%와 44.9%를 나타냈으며, 지도자의 경우는 48.7%와 34.7%의 응답을

보이고 있어 참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청소년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 청소년의 88.6%가 적극적으로 자주 참여하고 있었으며, 단체유형별로는 조직형단체의 청소년들은 회관형 단체 청소년들보다 더 자주 참석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때만 참여하는 경우는 회관형 단체의 청소년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이 참여하며 매번 참여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여자청소년의 경우 자주 참여하는 편이나 특별한 때만 참석하는 경우는 남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매번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별한 때만 참여하는 경향은 국민학생과 대학생들이 다른 교급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청소년들은 참여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IV-37) 활동 또는 집회 참여정도(청소년 응답)

(단위 : %)

변인	반응	매번 참여	자주 참여	특별한 때 참여	참여 않음	사례수	계	비고
전체		43.7	44.9	8.4	3.0	597	100	
유형별								$\chi^2 = 4.07$
조직형		43.9	46.8	6.9	2.3	346	100	N. S.
회관형		43.4	42.2	10.4	4.0	251	100	
성별								$\chi^2 = 4.23$
남		46.3	43.7	7.8	2.3	387	100	N. S.
여		39.0	47.1	9.5	4.3	210	100	
교급별								$\chi^2 = 17.43$
국민학교		52.1	33.9	11.6	2.5	121	100	$p < 0.05$
중학교		47.4	46.2	4.7	1.8	171	100	
고등학교		40.7	47.7	7.9	3.7	214	100	
대학교		33.0	50.5	12.1	4.4	91	100	
지역별								$\chi^2 = 5.71$
대도시		42.7	48.8	6.4	2.1	281	100	N. S.
중소도시		44.6	41.5	10.1	3.8	316	100	

한편, 소속해 있는 단체의 활동 또는 집회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하여 지도자들에게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IV-38>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매번 참여하는 비율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자주 참여한 다도 83.4%로 단체활동에 참여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단체 유형별로 볼 때는 ‘매번 참여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조직형단체는 60.9%, 회관형단체는 38.3%로 조직형단체가 회관형단체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자주 참여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에서는 회관형단체가 46.7%, 조직형단체가 20.7%로 회관형단체가 조직형단체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조직형단체(1.1%)나 회관형단체(2.8%)나 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매번 참여한다’는 응답이 여자지도자(42.1%)보다 남자지도자(52.8%)가 10.7%가 많고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남자지도자(0.8%)보다 여자지도자(3.9%)가 더 많음을 볼 때 여자지도자보다는 남자지도자의 단체활동 참여가 더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 볼 때는 ‘매번 참여한다’는 응답이 대도시는 45.5%, 중소도시는 52.8%로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더 많았고,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표 IV-38> 단체활동·집회의 참여 정도(지도자 응답)

(단위 : %)

변인	반응	매번 참여	자주 참여	특별한 때 참여	참여 않음	사례수	계	비고
전체		48.7	34.7	14.6	2.0	199	100	
유형별								$\chi^2 = 16.52$ $p < 0.01$
	조직형	60.9	20.7	17.4	1.1	92	100	
	회관형	38.3	46.7	12.1	2.8	107	100	
성별								$\chi^2 = 4.12$ N. S.
	남	52.8	33.3	13.0	0.8	123	100	
	여	42.1	36.8	17.1	3.9	76	100	
지역별								$\chi^2 = 1.76$ N. S.
	대도시	45.5	35.5	16.4	2.7	110	100	
	중소도시	52.8	33.7	12.4	1.1	89	100	

대도시(2.7%)가 중소도시(1.1%)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에 있는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의 단체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 3) 단체활동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단체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하면 지도자와 청소년 모두 만족하고 있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청소년의 경우 ‘매우 만족’이 37.6%로 지도자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표 IV-39〉 단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청소년 응답)

(단위 : %)

변인	반응	매우 만족	만족하고 있는편	그저 그렇다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매우 불만족	사례수	계	비고
전체		37.6	41.4	16.8	2.7	1.5	596	100	
유형별									$\chi^2 = 19.95$ $p < 0.01$
조직형		41.9	40.8	11.8	3.8	1.7	346	100	
회관형		31.6	42.4	23.6	1.2	1.2	250	100	
성별									$\chi^2 = 76.31$ N. S.
남		38.8	40.9	15.9	2.9	1.6	384	100	
여		35.4	42.5	18.4	2.4	1.4	212	100	
교급별									$\chi^2 = 76.31$ $p < 0.01$
국민학교		59.0	34.4	5.7	0.0	0.8	122	100	
중학교		39.2	46.2	14.0	0.0	0.6	171	100	
고등학교		23.6	45.3	24.1	3.8	3.3	212	100	
대학교		38.5	33.0	19.8	8.8	0.0	91	100	
지역별									$\chi^2 = 0.49$ N. S.
대도시		38.0	41.6	16.1	2.5	1.8	279	100	
중소도시		37.2	41.3	17.4	2.8	1.3	317	100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먼저 보면 ‘만족하고 있는 편’이 41.4%이며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도 37.6%를 보임으로써 79.0%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현재의 단체활동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 보면 조직형단체 청소년들은 회관형단체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 지역별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교급별 변인에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다. ‘매우 만족하다’라는 응답에 국민학생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하고 있었으며(59.0%),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은 편이고(24.1%), 만족하고 있지 못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3.8%, 3.3%).

한편, <표 IV-4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체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지도자들은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69.4%, ‘불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9.5%로 전체적으로 볼 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단체유형별로 볼 때 조직형단체는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83.7%로

<표 IV-40> 단체활동에 대한 만족도(지도자 응답)

(단위 : %)

변인	반응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사례수	계	비고
전체		7.6	61.8	11.1	8.5	1.0	199	100	
유형별									$\chi^2 = 3.71$ N. S.
	조직형	20.7	63.0	8.7	7.6	0.0	92	100	
	회관형	15.0	60.7	13.1	9.3	1.9	107	100	
성별									$\chi^2 = 6.37$ N. S.
	남	22.8	56.9	11.4	8.1	0.8	123	100	
	여	9.2	69.7	10.5	9.2	1.3	76	100	
지역별									$\chi^2 = 3.91$ N. S.
	대도시	18.2	59.1	13.6	7.3	1.8	110	100	
	중소도시	16.9	65.2	7.9	10.1	0.0	89	100	

회관형단체의 75.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에는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이 ‘매우만족’과 ‘만족하고 있는 편’을 합해 남자치도자가 79.7%, 여자치도자가 78.9%로 각각 나타남으로써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불만족하고 있다’는 답변도 남녀 지도자가 각각 8.9%와 10.5%로 차이가 별로 없었다. 지역별로는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이 대도시는 77.3%, 중소도시는 82.1%로 중소도시가 4.8%더 많았고 ‘불만족하고 있다’는 답변도 중소도시(10.1%)가 대도시(9.1%)보다 많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4) 단체활동의 어려운 점

활동참여도와 만족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과 지도자에게 공통으로 현재의 활동에 참여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 청소년들은 활동참여시간이 부족한 것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으며, 지도자들은 지도시간의 부족과 지도자의 확보문제 및 재정확보의 문제 등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은 청소년들이 현재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인데, 청소년들은 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활동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50.9%), 그 밖에 전체적으로 단합이 잘 되지 않고(12.6%), 마음에 드는 친구나 동료가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특기할 점은 학교성적이 떨어진다는 응답은 1.1%만 나타났는데, 단체활동을 학교성적과는 별개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변인별로는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조직형단체나 회관형단체의 청소년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조직형단체의 경우 더욱 그 분포가 높았고 함께 모여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 집단 모두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조직형단체의 청소년보다 회관형단체의 청소년들이 모임장소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3.7%, 6.2%).

성별로는 남·여 양집단 모두 활동참여시간이 부족하고, 단합이 안되어 활동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이밖에 남자는 친구문제로 마음에 드는 동료가 없다는 경우와 활동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자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이해가 부족하고 활동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들 청소년에 대한 학교의 인식에 대해서는 남자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 방해받는다 고 생각하지만, 여자청소년들은 학교의 인식부족으로 활동에 방해받는다 는 생각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았다. 학교성적에 대해서도 남자청소년이 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다.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단체활동 참여에 있어 부모들에게 다른 교급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8%), 부모님들의 이해부족으로 단체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지 못했다. 국민학생과 중학생들은 친구 문제가 단체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하지만, 연령이 높은 고등학

〈표 IV-41〉 단체활동 참여의 어려움(청소년 응답)

(단위 : %)

응답 변인	활동참 여시간 부족	활동의 재미 없음	활동의 눈치 없음	단합이 안됨	부모의 이해 부족	비싼 비용	학교측 의인식 부족	학 교 성적에 영향 부족	집회 장소 부족	사 례 수	계	비 고
전 체	50.9	7.0	7.7	12.9	6.0	6.5	3.2	1.1	4.8	568	100	
유형별												
조 직 형	57.2	6.1	6.1	10.1	5.5	6.7	3.7	0.9	3.7	327	100	$x^2=17.18$
회 관 형	42.3	8.3	10.0	16.6	6.6	6.2	2.5	1.2	6.2	241	100	$p<0.05$
성 별												
남	48.1	7.4	9.0	13.3	4.3	6.9	4.8	1.3	4.8	376	100	$x^2=20.31$
여	56.3	6.3	5.2	12.0	9.4	5.7	0.0	0.5	4.7	192	100	$p<0.01$
교급별												
국민학교	50.4	3.5	16.5	20.0	2.6	5.2	0.9	0.9	0.0	115	100	$x^2=62.57$
중 학 교	53.1	8.8	9.4	8.8	3.8	5.0	3.1	0.0	8.1	160	100	$p<0.01$
고등학교	46.8	7.9	2.5	13.3	10.8	7.9	4.9	1.5	4.4	203	100	
대 학 교	56.7	6.7	5.6	10.0	3.3	7.8	2.2	2.2	5.6	90	100	
지역별												
대 도시	53.0	5.7	6.8	11.7	6.8	9.1	1.9	0.8	4.2	264	100	$x^2=11.67$
중소도시	49.0	8.2	8.6	13.8	5.3	4.3	4.3	1.3	5.3	304	100	N. S.

생과 대학생들은 그들에 비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활동비용과 학교 성적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들은 중소도시 청소년들보다 비싼 활동비용에, 중소도시 청소년들은 활동이 별로 재미없는 데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청소년단체지도자들이 단체활동을 계획하고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지도할 시간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지도자가 1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도자 확보'라는 응답이 16.1%, '재정의 확보'라는 응답이 13.6%, '전문기술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13.1%, '청소년 회원의 확보'라는 응답이 11.6%, '부모들의 이해부족'이라는 응답이 7.5%, 그리고 '주위동료들의 이해부족'이라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이를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회원 확보라는 면과 지도자 확보, 부모들의 이해부족,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조직형단체와 회관형단체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회원의 확보'에 대하여는 회관형단체의 17.8%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조직형단체에서는 4.3%밖에 응답하지 않았고, '지도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조직형단체의 25.0%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 응답한 것에 비해 회관형단체는 8.4%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 응답하여 두 단체유형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밖에 '부모들의 이해부족'이라는 면에서도 회관형단체(15.0%)가 조직형단체(5.4%)보다 응답 분포가 더 높았으며 '재정확보'의 측면에서는 회관형단체(9.3%)보다 조직형단체(18.5%)의 응답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지도자들이 단체활동을 계획하고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지도자 확보(19.4%), 지도할 시간의 부족(17.9%), 재정확보(14.6%), 부모들의 이해부족(11.4%), 전문기술의 부족(10.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자지도자들은 지도할 시간의 부족과 전문 기술의 부족이 17.1%로 가장 높았으며 수련거리의 개발과 청소년회원의 확보가 13.2%, 재정확보(11.8%), 부모들의 이해부족(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은 수련거리의 개발에 있어서 여자지도자(13.2%)가 남자지도자

(4.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도자의 확보에 있어서는 남자지도자(19.5%)가 여자지도자(10.5%)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지도자 확보라는 점에서 중소도시(23.6%)가 대도시(10.0%)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부모들의 이해부족이라는 점에서는 대도시(14.5%)가 중소도시(5.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42〉 단체활동 지도의 어려운 점(지도자 응답)

(단위 : %)

응답 변인	지도 시간 부족	수련 거리 개발	청소년 회원 확보	지도자 확보	부모 이해 부족	재정 확보	동료의 이해 부족	전문 기술 부족	장소 시설 부족	사 례 수	계	비 고
전 체	17.6	7.5	11.6	16.1	10.6	13.6	2.5	13.1	7.5	199	100	
유형별												
조 직 형	20.7	6.5	4.3	25.0	5.4	18.5	3.3	10.9	5.4	92	100	$x^2=26.61$
회 관 형	15.0	8.4	17.8	8.4	15.0	9.3	1.9	15.0	9.3	107	100	$p<0.01$
성 별												
남	17.9	4.1	10.6	19.5	11.4	14.6	3.3	10.6	8.1	123	100	$x^2=10.67$
여	17.1	13.2	13.2	10.5	9.2	11.8	1.3	17.1	6.6	76	100	N. S.
지역별												
대 도시	16.4	9.1	11.8	10.0	14.5	17.3	2.7	12.7	5.5	110	100	$x^2=14.35$
중소도시	19.1	5.6	11.2	23.6	5.6	9.0	2.2	13.5	10.1	89	100	N. S.

### 5) 활동경비 충당 방법

한편 단체활동의 어려운 점과 관련하여 현재의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회원청소년들의 회비 또는 참가비 이외에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현재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기관의 보조'가 3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독지가의 지원 또는 후원회조직을 통해 적립된 기금'이 23.0%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지도자들의 자비'가 17.3%, '학교 또는 행정기관의 재정지원 또는 보조'가 16.8%, '지역인사 또는 주민들이 활동시에 특별히 내는 찬조지원금'이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유형별로 보면 조직형단체는 '독지가의 지원'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도자의 자비'가 28.7%로 높았고, 회관형단체는 '중앙기관의 보조'가 전체의 56.7%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나 행정기관의 지원'이 18.3%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녀 지도자 모두 '중앙기관의 보조'가 각각 31.1%, 45.8%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의 자비'에서는 남자지도자(26.1%)가 여자지도자(2.8%)보다 더 높았으며 '학교나 행정기관의 지원'에 대하여는 여자지도자(22.4%)가 남자지도자(13.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모두 '중앙기관의 보조'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도시(45.2%)가 중소도시(26.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나 행정기관의 지원'이라는 응답은 중소도시(20.7%)가 대도시(13.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도자의 자비'에서도 중소도시(25.3%)가 대도시(10.6%)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43〉 지역중심단체의 경비충당 방법 (단위 : %)

변인	응답	학교·행정 기관지원	지역인사의 관조금	독지가 지 원	지도자 자 비	중앙기관 보 조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16.8	6.3	23.0	17.3	36.6	191	100	
유 형 별									
	조 직 형	14.9	8.0	35.6	28.7	12.6	87	100	$\chi^2=49.37$
	회 관 형	18.3	4.8	12.5	7.7	56.7	104	100	$P<0.01$
성 별									
	남	13.4	7.6	21.8	26.1	31.1	119	100	$\chi^2=19.80$
	여	22.2	4.2	25.0	2.8	45.8	72	100	$P<0.01$
지 역 별									
	대 도시	13.5	6.7	24.0	10.6	45.2	104	100	$\chi^2=12.12$
	중소도시	20.7	5.7	21.8	25.3	26.4	87	100	$P<0.05$

## 6) 부모의 단체활동에 대한 인식 및 협조 정도

단체활동에 대한 청소년 부모들의 인식과 지원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으며, 지도자들에게는 부모들의 협조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 부모의 단체활동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체에 대한 협조는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단체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도자들의 경우는 협조하는 편이다와 그저 그렇다에 많이 응답함으로써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44〉 단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

(단위 : %)									
변인	반응	매우 긍정적	긍정적	그저 그렇다	부정적	매우 부정적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36.4	39.5	19.7	3.0	1.3	593	100	
유 형 별									
	조 직 형	38.6	40.0	19.1	2.0	0.3	345	100	$\chi^2 = 10.85$
	회 관 형	33.5	38.7	20.6	4.4	2.8	248	100	$p < 0.05$
성 별									
	남	39.9	38.6	16.3	3.9	1.3	386	100	$\chi^2 = 13.04$
	여	30.0	41.1	26.1	1.4	1.4	207	100	$p < 0.05$
교 급 별									
	국민학교	65.0	25.2	8.1	0.0	1.6	123	100	$\chi^2 = 96.81$
	중 학 교	36.8	46.2	15.2	0.0	1.8	171	100	$p < 0.01$
	고등학교	20.1	40.7	30.6	7.2	1.4	209	100	
	대 학 교	34.4	43.3	18.9	3.3	0.0	90	100	
지 역 별									
	대 도시	34.1	42.3	19.7	2.2	1.8	279	100	$\chi^2 = 4.01$
	중소도시	38.5	36.9	19.7	3.8	1.0	314	100	N. S.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응답이 36.4%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며 어느 정도 지원도 해준다는 반응은 39.5%로 나타남으로써 그저 그렇다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75.9%이며 부정적인 태도는 4.3%를 보여 대다수의 부모들이 단체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44〉).

그러나 회관형단체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이 조직형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성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이 남·녀청소년 모두 70% 이상을 차지했으나, 그저 그렇다에서는 남자청소년이 16.3%, 여자청소년이 26.1%로 차이를 보였다.

교급별로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한 반면, 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은 60.8%에 불과했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에 있어서도 30.6%로 다른 교급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도자들의 경우는 단체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협조정도에 대해 ‘적극

〈표 IV-45〉 단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협조정도(지도자)

(단위 : %)

변인	반응	매우적극적인협조	적극적인협조	그저 그렇다	거의협조가없다	전혀협조가없다	사례수	계	비고
전체		6.1	37.9	35.4	17.7	3.0	198	100	
유형별									$\chi^2 = 22.36$
조직형		8.7	52.2	27.2	8.7	3.3	92	100	$p < 0.01$
회관형		3.8	25.5	42.5	25.5	2.8	106	100	
성별									$\chi^2 = 2.16$
남		6.6	38.5	35.2	15.6	4.1	122	100	N. S.
여		5.3	36.8	35.5	21.1	1.3	76	100	
지역별									$\chi^2 = 0.27$
대도시		5.5	38.2	35.5	18.2	2.7	110	100	N. S.
중소도시		6.8	37.5	35.2	17.0	3.4	88	100	

적으로 협조하시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것이 3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그저그렇다'라는 응답이 35.4%, '거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17.7%,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는 응답이 6.1%,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3.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들의 협조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단체 유형별로 볼 때 '적극적인 협조'가 조직형은 52.2%인데 비하여 회관형은 25.5%를 나타내었고,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을 포함하면 조직형이 60.9%, 회관형이 29.3%로 조직형이 회관형보다 더 높게 나타나 조직형단체가 회관형 단체보다 부모님의 협조가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별,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 7) 주변에서 바라본 지역중심활동

지역중심 단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평가에 대해 알아보는 한 방법으로 참여 청소년들에 대한 주변친구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았으며 지도자들에게는 주변인사나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지역중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친구가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 주위의 인사나 직장 동료들도 지역중심 단체활동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6〉은 현재 같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 다른 학생들이나 친구가 청소년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친구들이 지역중심단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여 단체에 가입하고 싶어하는(45.9%)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관형단체보다는 조직형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보다 더 부러워하고 있었으며, 학교밖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보아 별로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거나 불건전한 단체활동으로 보는 경우는 회관형단체의 경우가 조직형단체의 경우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여 모두 친구의 단체 활동에 대해 부러워하며 가입하고 싶어 했으며 여자가 친구들의 단체활동에 대해 남자보다 더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급별로는 대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이 다른 교급의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46〉 활동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의 반응

(단위 : %)

변인	반응	부러워한다	대수롭지 않게생각	좋게생각하지않음	불건전하게생각	잘 모르겠다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45.9	29.7	4.2	2.0	18.2	593	100	
유 형 별									$\chi^2 = 20.34$ $p < 0.01$
	조 직 형	53.4	27.1	3.8	1.7	14.0	343	100	
	회 관 형	35.6	33.2	4.8	2.4	24.0	250	100	
성 별									$\chi^2 = 15.96$ $p < 0.01$
	남	40.2	33.9	4.7	2.3	18.9	386	100	
	여	56.5	21.7	3.4	1.4	16.9	207	100	
교 급 별									$\chi^2 = 41.99$ $p < 0.01$
	국민학교	41.9	29.8	4.0	2.4	21.8	124	100	
	중 학 교	44.4	19.9	4.1	2.9	28.7	171	100	
	고등학교	42.8	38.0	3.8	1.9	13.5	208	100	
	대 학 교	61.1	28.9	5.6	0.0	4.4	90	100	
지 역 별									$\chi^2 = 6.26$ N. S.
	대 도시	45.7	27.0	4.0	1.4	21.9	278	100	
	중소도시	46.0	32.1	4.4	2.5	14.9	315	100	

한편, 청소년 지도자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주변인사나 직장 동료들의 의견은 〈표 IV-47〉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64.8%로 가

장 많았고, ‘별로 관심이 없다’가 29.1%, ‘학교 밖의 활동이라고 규제하고 있는 편이다’가 3.5%, ‘잘 모르겠다’가 2.0%, ‘불건전한 단체활동으로 보고 있다’가 0.5%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변인별로는 단체유형별, 성별, 지역별에 있어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V-47〉 단체활동에 대한 주변인사나 직장동료들의 생각

(단위 : %)

변인	반응	매우 긍정적	별로 관심없음	활동 규제함	불건전 활동	잘 모르겠다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64.8	29.1	3.5	0.5	2.0	199	100	
유	형								
	조	59.8	32.6	5.4	1.1	1.1	92	100	$x^2 = 5.05$
	회	69.2	26.2	1.9	0.0	2.8	107	100	N. S.
성	별								$x^2 = 3.68$
	남	61.0	30.9	4.9	0.8	2.4	123	100	
	여	71.1	26.3	1.3	0.0	1.3	76	100	N. S.
지	역								$x^2 = 5.45$
	대	63.6	32.7	1.8	0.9	0.9	110	100	
	중	66.3	24.7	5.6	0.0	3.4	89	100	N. S.

## 2. 지역중심활동의 의의와 특성

지역중심활동에 대한 필요는 청소년단체의 설립이 용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단체활동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전체 청소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도자의 부족, 기존 프로그램의 답습 등의 많은 문제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즉 이러한 학교중심의 단체활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단체활동이 학교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중심활동에 대한 지도자들의 견해를 알아보았는데, 다음은 그 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 1) 지역중심활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

청소년단체활동이 학교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학교중심단체활동의 제약성과 교육제도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들고 있었고,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때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층과 활동이 다양해 진다는 것을 가장 유리한 점으로 들고 있었다.

〈표 IV-48〉 단체활동이 지역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견해

(단위 : %)

	매우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그저 그렇다	잘못된 견해다	매우 잘못된 견해다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56.3	35.7	5.5	2.0	0.5	199	100	
유형별								
조직형	70.3	26.4	0.0	2.2	1.1	91	100	$x^2=20.43$
회관형	44.4	43.5	10.2	1.9	0.0	108	100	$P<0.01$
성 별								
남	63.9	30.3	4.1	1.6	0.0	122	100	$x^2=8.78$
여	44.2	44.2	7.8	2.6	1.3	77	100	N. S.
지역별								
대도시	53.6	37.3	6.4	2.7	0.0	110	100	$x^2=2.66$
중소도시	59.6	33.7	4.5	1.1	1.1	89	100	N. S.

〈표 IV-48〉은 학교중심 단체활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단체활동이 학교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단체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바람직하다’가 35.7%, ‘그저그렇다’가 5.5%, ‘잘못된 견해다’

가 2.0%, ‘매우 잘못된 견해다’가 0.5%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게 보는 긍정적인 측면이 92.0%로 매우 높은 편이며 잘못된 견해라고 보는 부정적인 측면이 2.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매우 바람직하게 보는 생각에서 조직형단체(70.3%)가 회관형단체(44.4%)보다 더 높게 나타나 단체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지역중심활동의 의의

한편 청소년단체활동이 지역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학교중심의 제약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유를 제시한 응답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제도의 한계성 때문에 현재의 단체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보는 견해가 21.4%이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견해가 15.7%, 전인적 청소년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의견이 6.3%, 단체활동의 지역중심화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한 의견이 4.4%, 지역중심화보다는 학교중심의 단체활동이 우선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8%, 학생이 아닌 지역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로 지역중심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단체유형별로 보면 조직형단체나 회관형단체 모두 학교중심 단체활동의 제약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유를 제시한 응답이 제일 많았고, 교육제도의 한계성을 이유로 제시한 응답에서는 회관형단체지도자(26.1%)가 조직형단체지도자(15.5%)보다 높게 반응한 반면에,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이유는 조직형단체 지도자(21.1%)가 회관형단체 지도자(11.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49〉

지역중심활동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

(단위 : %)

응답 변인	단체활동 의 지역 중심화	교육제 도의 한 계성	학교중심 의 제약 성 보완	전인적 정소년 육성	지역사 회역할 강화	학생외 청소년 배려	학교중 심활동 강화	기타	사례수	계	비 고
전 계	4.4	21.4	37.1	6.3	15.7	3.1	3.8	8.2	159	100	
유형별											
조직형	7.0	15.5	42.3	8.5	21.1	0.0	1.4	4.2	71	100	$\chi^2=16.75$
회관형	2.3	26.1	33.0	4.5	11.4	5.7	5.7	11.4	88	100	$P<0.05$
성 별											
남	5.2	13.4	40.2	8.2	20.6	3.1	0.0	9.3	97	100	$\chi^2=23.44$
여	3.2	33.9	32.3	3.2	8.1	3.2	9.7	6.5	62	100	$P<0.01$
지역별											
대도시	4.4	20.9	41.8	6.6	14.3	2.2	4.4	5.5	91	100	$\chi^2=4.27$
중소도시	4.4	22.1	30.9	5.9	17.6	4.4	2.9	11.8	68	100	N. S.

성별에 따른 지도자들의 의견은 교육제도의 한계성에 대하여 여자지도자(33.9%)가 남자지도자(13.4%)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고,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남자지도자(20.6%)가 여자지도자(8.1%)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학교중심의 제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가장 높게 반응했지만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도시 지도자(41.8%)가 중소도시 지도자(30.9%)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기타의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정부나 지방부처의 협조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활동과 유능한 인적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 어쨌든 현재의 단체활동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변하여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3) 지역중심활동의 유리한 점

청소년단체활동이 현재의 학교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때 유리한 점에 대하여 청소년과 지도자의 견해를 조사했는데, 먼저 지도자들의 응답결과는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층이 다양해진다’는 의견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러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하게된다’는 의견이 16.6%, ‘학교에서와는 달리 실제 활동을 더 자주하게 된다’는 의견이 11.9%, ‘학교에서 활동할 때보다 지도자들이 더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의견이 9.3%, ‘학교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활동을 해서 좋다’는 의견이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0〉 지역중심활동의 유리한 점(지도자응답)

								(단위 : %)	
응답 변인	지도자 열성적	다양한 활동	참여폭 확대	학교밖 활동	찾은 활동	학교계약 없음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9.3	28.5	29.0	4.7	11.9	16.6	193	100	
유형별									
조직형	13.6	20.5	30.7	5.7	10.2	19.3	88	100	$x^2=8.53$
회관형	5.7	35.2	27.6	3.8	13.3	14.3	105	100	N. S.
성 별									
남	10.8	26.7	25.8	5.8	11.7	19.2	120	100	$x^2=4.48$
여	6.8	31.5	34.2	2.7	12.3	12.3	73	100	N. S.
지역별									
대도시	6.7	28.6	30.5	3.8	10.5	20.0	105	100	$x^2=4.30$
중소도시	12.5	28.4	27.3	5.7	13.6	12.5	88	100	N. S.

변인별로도 주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층이 다양해진다’,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지도자들의 견해와 달리 청소년들의 경우는 지역중심단체활동의 장점으로 지역중심단체가 학교에 있는 단체에 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가 열성적이며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었다.

즉, 청소년들은 ‘여러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한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었으며(35.0%), 다른 학교 친구들도 폭넓게 사귄 수 있고(24.5%), 지도자 선생님이 열성적이며(13.7%), 학교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활동(12.5%)을 해서 좋다는 점 등을 중요한 순으로 들고 있었다. 반면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갖기가 쉽거나 학교에 있는 단체에 비해 단체활동 시간이 많다는 점은 청소년들이 좋은 점이라고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체유형별로 보면 조직형단체의 청소년들은 그들 단체의 좋은 점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41.7%), 다른 학교 친구도 사귀고(22.0%),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13.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회관형단체의 청소년들은 폭넓은 교우관계가 그 첫번째 요인이고(27.9%), 그 다음이 다양한 프로그램(25.5%), 열성적인 지도자(14.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급별 변인에서는 우선 국민학생들은 지도자 선생님이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점을 가장 좋은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30.9%), 프로그램이 다양하고(23.6%), 친구를 폭넓게 사귄 수 있으며(13.3%),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한다는 점(10.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들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폭넓은 교우관계가 단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응답하여 교급별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성별, 지역별로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V-51〉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좋은 점(청소년 응답)

(단위 : %)

응답 변인	열성적인 지도자	다양한 프로그램	폭넓은 교우관계	다양한 장소	많은 단체활동	자유로운 참여	회원가입 용이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13.7	35.0	24.5	12.5	3.7	6.3	4.4	592	100	
유형별										
조 직 형	13.0	41.7	22.0	13.6	3.2	4.3	2.0	345	100	$x^2=29.90$
회 관 형	14.6	25.5	27.9	10.9	4.5	8.9	7.7	247	100	$p<0.01$
성 별										
남	16.0	33.9	24.0	12.7	4.4	5.2	3.9	387	100	$x^2=9.13$
여	9.3	37.1	25.4	12.2	2.4	8.3	5.4	205	100	N. S.
교급별										
국민학교	30.9	23.6	13.8	10.6	2.4	9.8	8.9	123	100	$x^2=91.76$
중 학 교	11.0	40.7	15.1	18.6	4.7	7.6	2.3	172	100	$p<0.01$
고등학교	7.2	33.3	37.7	10.6	3.9	3.4	3.9	207	100	
대 학 교	10.0	43.3	26.7	7.8	3.3	5.6	3.3	90	100	
지역별										
대 도시	11.6	33.9	26.4	13.0	3.2	7.9	4.0	277	100	$x^2=5.62$
중소도시	15.6	35.9	22.9	12.1	4.1	4.8	4.8	315	100	N. S.

#### 4) 지역중심활동의 특성

여기서는 지역중심단체활동의 유리한 점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7가지 문항을 진술형으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하게 함으로써 지역중심활동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이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열성적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청소년들의 48.5%가 지도 선생님들이 매우 열성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32.0%가 다소 열성적이라고 인식하여 80%가 넘는 많은 청소년들이

〈표 IV-52〉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열성적이다”

(단위 : %)

변인	반응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다 그렇다	소 그 그렇다	저 그 않 다	전 혀 아 니 다	사 례 수	계 비	고
전 체	48.5	32.0	16.0	1.7	1.9	588	100		
유형별									
조 직 형	60.2	26.6	10.8	1.2	1.2	342	100	$x^2=47.86$	
회 관 형	32.1	39.4	23.2	2.4	2.8	246	100	$p<0.01$	
성 별									
남	50.0	31.3	14.3	1.8	2.6	384	100	$x^2=5.91$	
여	45.6	33.3	19.1	1.5	0.5	204	100	N. S.	
교급별									
국민학교	78.0	17.1	4.1	0.0	0.8	123	100	$x^2=86.24$	
중 학 교	52.0	31.6	14.0	1.2	1.2	171	100	$p<0.01$	
고등학교	27.5	41.1	24.6	3.4	3.4	207	100		
대 학 교	49.4	32.2	16.1	1.1	1.1	87	100		
지역별									
대 도 시	43.7	35.4	17.7	2.2	1.1	277	100	$x^2=7.73$	
중소도시	52.7	28.9	14.5	1.3	2.6	311	100	N. S.	

지도자가 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단체 청소년의 경우에는 매우 열성적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으며(60.2%), 회관형단체 청소년의 경우 ‘매우 열성적’(32.1%)이라기 보다 ‘다소 그렇다’(39.4%)와 ‘그저 그렇다’(23.2%)라는 응답이 높아 단체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국민학생들은 78.0%가 그들의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매우 열성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매우 열성적이다’라는 응답분포가 낮아지며,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도자를 매우 열성적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다시 높아졌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다른 교급보다 지도자의 열성도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별, 지역별 변인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선생님과 우리 청소년들간의 유대감이 강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는 <표 IV-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 청소년들은 지도자와 매우 유대감이 강하다가 36.9%, 다소 그렇다가 31.1%로 68.0%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단체유형별로는 조직형단체 청소년들이 회관형단체의 청소년들보다 지도자 선생님과의 유대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청소년들은 ‘매우 그렇다’에 38.9%, ‘다소 그렇다’에 27.4%로, 여자청소년들은 ‘매우 그렇다’에 33.2%, ‘다소 그렇다’에 38.1%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국민학생과 중학생들이 ‘매우 유대감이 강하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53.3%, 41.5%),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다소 그렇다’(30.2%, 44.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IV-53> “지도자 선생님과 우리 청소년들간의 유대감이 강하다”

(단위 : %)

반응 변인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희사	례수	계	비	고
전체	36.9	31.1	23.6	3.9	4.4		585	100		
유형별										
조직형	42.8	30.8	20.8	2.3	3.2		341	100	$x^2=18.33$	
회관형	28.7	31.6	27.5	6.1	6.1		244	100	$p<0.01$	
성별										
남	38.9	27.4	24.5	3.1	6.0		383	100	$x^2=14.35$	
여	33.2	38.1	21.8	5.4	1.5		202	100	$p<0.01$	
교급별										
국민학교	53.3	30.3	11.5	2.5	2.5		122	100	$x^2=51.28$	
중학교	41.5	25.7	24.6	2.3	5.8		171	100	$p<0.01$	
고등학교	25.4	30.2	31.7	7.3	5.4		205	100		
대학교	32.2	44.8	19.5	1.1	2.3		87	100		
지역별										
대도시	36.2	31.9	22.8	4.7	4.3		276	100	$x^2=1.11$	
중소도시	37.5	30.4	24.3	3.2	4.5		309	100	N. S.	

활동과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비슷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표 IV-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결과 전체 응답 청소년들은 그들의 활동과 학교에서 하는 활동 사이에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높게 반응했다.

단체유형별로는 회관형단체의 청소년들이 ‘매우 그렇다’에 11.8%, ‘다소 그렇다’에 23.1%, 조직형단체의 청소년들은 ‘매우 그렇다’에 6.8%, ‘다소 그렇다’에 12.8%로 응답해, 학교단체와의 활동유사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으나 조직형단체의 청소년들이 회관형단체의 청소년들에 비해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학교단체와의 활동유사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으나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국민학교가 ‘매우 그렇다’에 15.6%로 나타나, 다른 교급에 비해

<표 IV-54>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써클)와 하는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비슷하다”

								(단위 : %)
반응 변인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희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8.9	17.0	20.3	31.8	21.9	575	100	
유형별								
조 직 형	6.8	12.8	20.5	34.4	25.5	337	100	$x^2=19.17$
회 관 형	11.8	23.1	20.2	28.2	16.8	238	100	$p<0.01$
성 별								
남	10.6	15.6	20.1	28.8	24.9	378	100	$x^2=12.51$
여	5.6	19.8	20.8	37.6	16.2	197	100	$p<0.05$
교급별								
국민학교	15.6	14.8	12.3	23.0	34.4	122	100	$x^2=40.99$
중 학 교	9.0	12.0	22.2	38.9	18.0	167	100	$p<0.01$
고 등 학 교	5.5	22.0	19.5	33.0	20.0	200	100	
대 학 교	7.0	18.6	30.2	27.9	16.3	86	100	
지역별								
대 도 시	10.0	17.1	19.7	34.9	18.2	269	100	$x^2=5.58$
중 소 도 시	7.8	17.0	20.9	29.1	25.2	306	100	N. S.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현재 소속해 있는 단체가 ‘다른 학교 학생도 있고 연령층도 다양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 <표 IV-5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응답 청소년의 71.3%가 이에 동의하고 있는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1.7%이며 ‘다소 그렇다’가 29.6%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남자청소년들보다 학교구성과 연령층이 다양한 지역중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매우 그렇다에 국민학생들은 50.8%, 중학생은 41.9%, 고등학생은 36.8%, 대학생은 40.2%로 나타나 국민학생들이 다른 교급에 비해 다양한 학교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진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5> “다른 학교 학생도 있고 연령층도 다양하다”

(단위 : %)

반응 변인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사례수	계	비고
전체	41.7	29.6	10.8	7.9	10.1	585	100	
유형별								
조직형	45.5	28.9	8.7	7.6	9.3	343	100	$x^2=6.67$
회관형	36.4	30.6	13.6	8.3	11.2	242	100	N. S.
성별								
남	39.7	27.4	11.1	8.7	13.2	380	100	$x^2=13.95$
여	45.4	33.7	10.2	6.3	4.4	205	100	$p<0.01$
교급별								
국민학교	50.8	20.5	12.3	3.3	13.1	122	100	$x^2=28.70$
중학교	41.9	26.7	10.5	8.1	12.8	172	100	$p<0.01$
고등학교	36.8	37.3	10.8	6.9	8.3	204	100	
대학교	40.2	29.9	9.2	16.1	4.6	87	100	
지역별								
대도시	43.4	31.8	10.2	5.8	8.8	274	100	$x^2=4.92$
중소도시	40.2	27.7	11.3	9.6	11.3	311	100	N. S.

‘학교에 있는 단체에 비해 활동기회와 활동시간이 많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청소년들 중 30.5%가 ‘다소 그렇다’, 26.5%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함으로써 지역중심 단체가 학교단체에 비해 활동기회와 활동시간이 많은 장점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단체유형별 변인에서 조직형단체 청소년들의 경우가 회관형 단체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기회와 활동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급별로는 국민학교 및 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의 30% 이상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 대학교연령의 청소년들은 각각 20.8%, 25.1%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청소년들이 ‘매우 그렇다’에 20.1%, ‘다소 그렇다’에 35.7%에 나타난 반면,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은 ‘매우 그렇다’에 28.6%, ‘다소 그렇다’에 29.8%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IV-56〉 “학교에 있는 단체에 비해 활동기회와 활동시간이 많다”

(단위 : %)

변인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희소수	계	비교
전체	26.5	30.5	22.0	12.9	8.0	573	100
유형별							
조직형	32.0	30.6	19.3	13.1	5.0	337	100 $x^2=21.20$
회관형	18.6	30.5	25.8	12.7	12.3	236	100 $p<0.01$
성별							
남	28.0	30.7	19.7	12.3	9.3	375	100 $x^2=6.06$
여	23.7	30.3	26.3	14.1	5.6	198	100 N. S.
교급별							
국민학교	37.8	21.0	22.7	7.6	10.9	119	100 $x^2=23.32$
중학교	20.8	32.0	25.3	16.4	5.6	269	100 $p<0.05$
고등학교	31.6	29.3	19.1	9.9	10.2	304	100
대학교	25.1	31.6	25.1	11.1	7.0	171	100
지역별							
대도시	20.1	35.7	19.6	17.1	7.5	199	100 $x^2=17.51$
중소도시	28.6	29.8	20.2	14.3	7.1	84	100 $p<0.01$

지역중심단체 활동의 또 다른 특성으로 회원가입, 활동참가의 용이성이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에 비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에 참가하기가 쉽다’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그 반응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그렇다’와 ‘다소 그렇다’는 반응이 35.4%와 31.8%로서 응답 청소년의 67.2%가 그들의 단체가 학교보다 회원가입과 활동참가가 매우 용이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체유형별 변인과 성별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보다 중소도시의 경우 회원가입과 활동참가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교급별로는 국민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회원가입과 활동참가의 용이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앞의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낮게 나

〈표 IV-57〉 “학교에 비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에 참가하기가 쉽다”

(단위 : %)

변인	반응 매우 그렇다	다 소 그 렇 다	저 그 렇 지 않 다	전 혀 아 니 다	사 례 수	계	비 고
전 체	35.4	31.8	20.7	7.8	4.3	576	100
유형별							
조 직 형	35.7	31.9	20.6	8.0	3.8	339	100 $x^2=0.53$
회 관 형	35.0	31.6	20.7	7.6	5.1	237	100 N. S.
성 별							
남	38.2	29.1	19.8	8.0	4.8	374	100 $x^2=5.71$
여	30.2	36.6	22.3	7.4	3.5	202	100 N. S.
교급별							
국민학교	53.7	24.8	12.4	3.3	5.8	121	100 $x^2=50.77$
중 학 교	40.6	25.3	25.9	7.1	1.2	170	100 $p<0.01$
고등학교	22.1	39.2	23.1	9.5	6.0	199	100
대 학 교	30.2	37.2	16.3	11.6	4.7	86	100
지역별							
대 도시	26.9	36.2	24.7	8.9	3.3	271	100 $x^2=19.53$
중소도시	43.0	27.9	17.0	6.9	5.2	305	100 $p<0.01$

타나 교급이 높아질수록 회원가입 및 활동참가의 용이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유로운 시간활용이란 측면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표 IV-58>는 ‘청소년들이 틈나는대로 자유로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응답에 대한 반응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53.5%가 자유로운 시간에 활동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지역 중심 단체활동의 하나의 특성인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체유형별로는 조직형단체의 경우 회관형 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나 지역별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교급별 변인에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나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그렇

<표 IV-58> “청소년들이 틈나는대로 자유로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

(단위 : %)

변인	반응 매우 그렇다	다 소 그렇다	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사례수	계	비	교
전 체	26.6	26.9	22.1	12.6	11.9	580	100		
유형별									
조 직 형	29.2	30.4	23.0	8.3	9.1	339	100	$x^2=23.50$	
회 관 형	22.8	22.0	20.7	18.7	15.8	241	100	$p<0.01$	
성 별									
남	25.0	27.9	23.1	12.0	12.0	376	100	$x^2=2.27$	
여	29.4	25.0	20.1	13.7	11.8	204	100	N. S.	
교급별									
국민학교	43.1	14.6	15.4	8.1	18.7	123	100	$x^2=56.19$	
중 학 교	22.5	29.6	28.4	8.3	11.2	169	100	$p<0.01$	
고등학교	18.3	28.2	23.3	18.3	11.9	202	100		
대 학 교	30.2	36.0	16.3	14.0	3.5	86	100		
지역별									
대 도시	26.5	30.1	21.0	12.9	9.6	272	100	$x^2=4.69$	
중소도시	26.6	24.0	23.1	12.3	14.0	308	100	N.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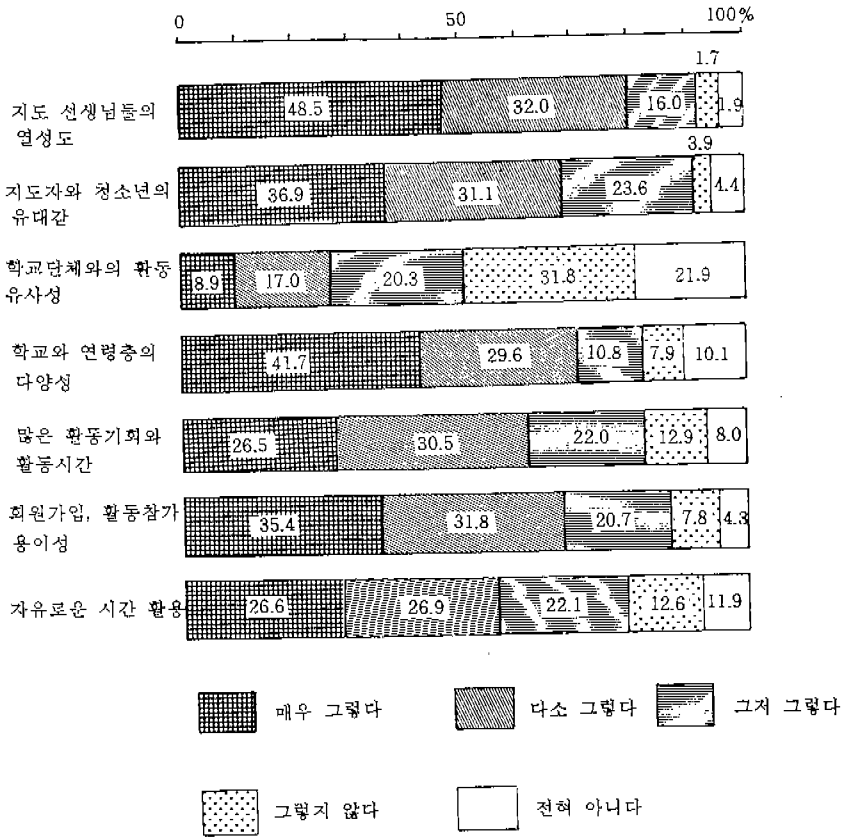
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가 각각 18.3%, 11.9%로 다른 교급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고등학생들은 틈나는대로 자유로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혀 아니다'라는 응답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18.7%, 11.2%, 11.9%이나 대학생들은 3.5%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유로운 시간활용에 대해서는 대학생 집단이 다른 교급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중심활동의 여러가지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정리하면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난 순서대로 보아 지역중심 단체활동은 ① 단체지도자들의 열성도가 높고 ②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유대감이 강하며 ③ 다른 학교 학생도 있고 연령층도 다양하고 ④ 학교에 비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에 참가하기 쉬우며, ⑤ 학교중심단체에 비해 활동기회와 활동시간이 많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⑥ 틈나는 대로 자유로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히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단체(씨클)와 하는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별반 다른 것이 없고 비슷하다”는 진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아 63.6%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아니다”고 응답함으로써 활동내용과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학교중심단체활동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음을 단체 참여청소년들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조사결과가 학교중심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구체적 집단과의 상호비교라는 측면에서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분석결과는 지역중심단체활동의 전반적 특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IV-10)).

〈그림 IV-10〉 지역중심 단체활동의 특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

(단위: %)



### 3. 지역중심활동 활성화의 제요건

청소년들의 단체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단체 활동을 전개할 때 필요한 요건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중앙연맹 또는 공공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학교의 이해와 협조, 지역주민들의 지도자로의 활용, 청소년·지도자·지역주민 등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 후원회조직의 결성, 전용회관의 확보 등 7가지 항목을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80%이상의 응답자들이 제시한 항목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중심 단체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항목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됨을 알 수 있었다.

### 1)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이를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가 5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요하다’가 35.5%, ‘그저그렇다’가 5.0%, ‘중요하지 않다’가 1.5%의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단체유형별로는 조직형 단체가 회관형 단체보다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성별, 지역별 변인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9>).

<표 IV-59>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개발

(단위 : %)

반응 변인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저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58.0	35.5	5.0	1.5	200	100	
유형별							
조직형	64.1	30.4	5.4	0.0	92	100	$x^2=4.96$
회관형	52.8	39.8	4.6	2.8	108	100	N. S.
성 별							
남	63.4	30.1	5.7	0.8	123	100	$x^2=5.57$
여	49.4	44.2	3.9	2.6	77	100	N. S.
지역별							
대도시	56.8	37.8	4.5	0.9	111	100	$x^2=1.17$
중소도시	59.6	32.6	5.6	2.2	89	100	N. S.

### 2) 행정적·재정적 지원·협조

소속단체의 중앙연맹 또는 공공 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협조에 대해서는 <표 IV-6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34.2%, ‘그저그렇다’(8.5%), ‘전혀중요하지 않다(4.0%)’, ‘중요하지 않다’(0.5%)의 순으로

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별로는 단체유형별로 회관형 단체의 청소년들이 조직형 단체보다,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보다 중앙연맹 또는 공공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협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60〉).

〈표 IV-60〉 중앙연맹 또는 공공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협조

(단위 : %)

반응 변인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중요하지 않다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52.8	34.2	8.5	0.5	4.0	199	100	
유형별								
조직형	52.2	29.3	8.7	1.1	8.7	92	100	$x^2=11.65$
회관형	53.3	38.3	8.4	0.0	0.0	107	100	$P<0.05$
성 별								
남	58.5	26.8	8.9	0.8	4.9	123	100	$x^2=8.38$
여	43.4	46.1	7.9	0.0	2.6	76	100	N. S.
지역별								
대도시	52.7	38.2	8.2	0.9	0.0	110	100	$x^2=11.89$
중소도시	52.8	29.2	9.0	0.0	9.0	89	100	$P<0.05$

### 3) 학교·직장의 이해와 협조

학교(직장)의 이해와 협조에 대한 중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도자들의 56.3%가 ‘매우 중요하다’, 34.2%가 ‘중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지역중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또는 지도자들이 속한 학교 및 직장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단체유형별이나 성별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지도자들의 반응이 여자지도자들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도자들이 중소도시의 경우보다 학교와 직장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다 많이 보이고 있었다.

〈표 IV-61〉

학교(직장)의 이해와 협조

(단위 : %)

반응 대 변인	매우 중요하다	중요 하다	그저 그렇다	전혀중요 하지않다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56.3	34.2	8.5	1.0	199	100	
유형별							
조직형	54.3	32.6	10.9	2.2	92	100	$x^2=3.65$
회관형	57.9	35.5	6.5	0.0	107	100	N. S.
성 별							
남	60.2	29.3	8.9	1.6	123	100	$x^2=4.42$
여	50.0	42.1	7.9	0.0	76	100	N. S.
지역별							
대도시	61.8	33.6	4.5	0.0	110	100	$x^2=8.43$
중소도시	49.4	34.8	13.5	2.2	89	100	$P<0.05$

4) 지역주민의 지도자 활용

실제적인 청소년 지도능력과 자질이 있는 지역사회의 일반주민들을 지도자로 활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표 IV-6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89.0%의 지도자들이 이를 중요시하고 있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요하다’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하다’(44.0%), ‘그저그렇다’(9.5%), ‘중요하지 않다’(1.0%), ‘전혀 중요하지 않다’(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별로는 특히 단체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직형 단체의 지도자들은 회관형 단체 지도자들보다 지역주민들을 지도자로 활용하는 점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지역별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62〉 지도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역주민의 지도자 활용

(단위 : %)

반응 변인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사례수	계	비고
전체	44.0	45.0	9.5	1.0	0.5	200	100	
유형별								
조직형	56.5	38.0	4.3	1.1	0.0	92	100	$x^2=13.53$
회관형	33.3	50.9	13.9	0.9	0.9	108	100	$P<0.01$
성별								
남	45.5	44.7	7.3	1.6	0.8	123	100	$x^2=3.66$
여	41.6	45.5	13.0	0.0	0.0	77	100	N. S.
지역별								
대도시	42.3	44.1	11.7	0.9	0.9	111	100	$x^2=2.31$
중소도시	46.1	46.1	6.7	1.1	0.0	89	100	N. S.

### 5)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애향심

지역중심 단체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자, 지역주민 등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 소속감, 애향심 등도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분석결과를 보면 ‘매우 중요하다’가 전체의 46.5%로 가장 높았으며, ‘중요하다’가 40.5%, ‘그저 그렇다’가 11.5%, ‘중요하지 않다’가 1.0%,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0.5%로 나타났다. 단체유형별, 성별, 지역별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청소년, 지도자,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해 공동체의식과 애향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63〉).

〈표 IV-63〉 청소년, 지도자, 지역주민등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중요정도

(단위 : %)

반응 변인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중요하지 않다	사례수	계	비고
전체	46.5	40.5	11.5	1.0	0.5	200	100	
유형별								
조직형	47.8	41.3	9.8	1.1	0.0	92	100	$\chi^2=1.39$
회관형	45.4	39.8	13.0	0.9	0.9	108	100	N. S.
성별								
남	45.5	40.7	11.4	1.6	0.8	123	100	$\chi^2=1.95$
여	48.1	40.3	11.7	0.0	0.0	77	100	N. S.
지역별								
대도시	41.4	44.1	12.6	0.9	0.9	111	100	$\chi^2=3.29$
중소도시	52.8	36.0	10.1	1.1	0.0	89	100	N. S.

#### 6) 후원회의 결성

단체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후원회의 조직에 대한 중요정도에 대해서는 〈표 IV-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가 전체의 4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가 39.0%, ‘그저 그렇다’가 9.0%, ‘중요하지 않다’가 1.5%, ‘전혀중요하지 않다’가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원회조직은 단체활동의 재정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자체회관이나 시설을 갖고 활동하거나 중앙기관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위의 소규모 조직형 단체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단체유형별로 보면 조직형 단체의 지도자들은 65.2%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회관형 단체 지도자들은 36.1%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조직형 단체들의 경우가 후원회를 결성하는 데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별 변인에 따른 반응의 차이는 없었으며, 성별의 경우는 남자지도자들이 후원회에 대한 필요성을 여자지도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IV-64〉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후원회조직

(단위 : %)

반응 매 변인	우 중요하다	중요 하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	전혀중요 다 하지않다	사례수	계	비 고
전 체	49.5	39.0	9.0	1.5	1.0	200	100	
유형별								
조직형	65.2	30.4	2.2	1.1	1.1	92	100	$x^2=20.73$
회관형	36.1	46.3	14.8	1.9	0.9	108	100	$P<0.01$
성 별								
남	58.5	28.5	9.8	1.6	1.6	123	100	$x^2=15.87$
여	35.1	55.8	7.8	1.3	0.0	77	100	$P<0.01$
지역별								
대도시	47.7	38.7	10.8	1.8	0.9	111	100	$x^2=1.24$
중소도시	51.7	39.3	6.7	1.1	1.1	89	100	N. S.

### 7) 전용공간의 확보

단체운영을 위한 전용공간(회관, 사무실)등의 확보에 대한 중요정도에 대해서는 〈표 IV-65〉에서와 같은 응답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매우 중요하다’가 전체의 6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가 33.0%, ‘그저 그렇다’(4.0%), ‘중요하지 않다’(0.5%)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95.5%로 매우 높았다. 단체유형별로 보면 조직형 단체의 경우 회관형 단체보다 그 중요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데, 회관형 단체의 경우 자체회관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회관형 단체의 응답결과에서도 전용공간 확보의 중요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체활동에 있어서의 전용회관의 활용이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지도자들이 여지도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전용공간의 확보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지도자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5〉

단체운영을 위한 전용공간의 확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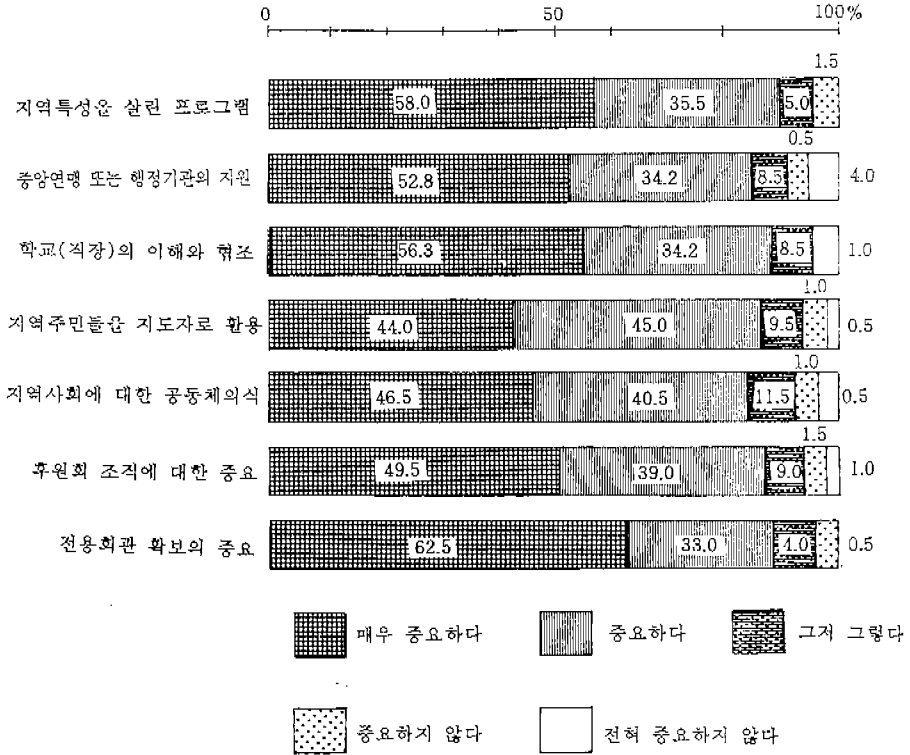
반응 변인	매우 중요하다	중요 하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사례수	계	비고
전체	62.5	33.0	4.0	0.5	200	100	
유형별							
조직형	70.7	29.3	0.0	0.0	92	100	$\chi^2=10.17$
회관형	55.6	36.1	7.4	0.9	108	100	$P<0.05$
성별							
남	69.9	26.0	3.3	0.8	123	100	$\chi^2=8.61$
여	50.6	44.2	5.2	0.0	77	100	$P<0.05$
지역별							
대도시	58.6	36.9	3.6	0.9	111	100	$\chi^2=2.69$
중소도시	67.4	28.1	4.5	0.0	89	100	N. S.

끝으로 이상에서 살펴 본 지역중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요건에 대한 반응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 중요성이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정도를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빈도를 중심으로 보면 ① 전용회관의 확보(62.5%), ②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58.0%), ③ 학교 직장의 이해와 협조(56.3%), ④ 중앙기관 또는 소속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52.8%), ⑤ 후원회 조직의 결성(49.5%), ⑥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46.5%), ⑦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46.5%), ⑧ 지역주민의 지도자 활용(44.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중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용회관의 확보와 활동내용과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V-11〕).

[그림 IV-11] 지역중심 단체활동의 제요건에 대한 중요정도

(단위 : %)



## 제 V 장 지역중심 단체활동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 단체활동 가운데 학교의 특별활동에 소속되지 않은 채 지역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특성, 실태,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분석에 기초하여 청소년 단체활동을 지역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의 인식전환, 지도자·자원봉사자의 확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의 지역중심화, 지역사회 후원협의회 구축 및 청소년 단체간의 지역협의회 구축 필요성, 행정적 지원상의 고려점들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부모의 인식전환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전환에 관한 문제는 내 아이는 꼭 일류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가족이기주의와 불합리한 교육제도에 의한 입시과열경쟁이 맞물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는 부모,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가 학업외의 여가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여 단체활동 참여를 허락하지 않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을 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입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큰 사회구조의 문제인 학교교육에 대한 제안은 논외로 한다.

단체, 자녀, 부모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볼 때, 무조건 자녀의 단체활동을 막기보다는 자녀의 전인교육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인식이 요청된다. 여가활동은 누적된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격형성과 자아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적별로 볼 때 청소년 응답자의 60% 이상이 중상위권 이상임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 성적과 상관없이 청소년은 누구나 전전한 여가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부모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참여동기를 보면 회관형의 경우 국민학생

들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거나 부모가 직접 찾아와서 신청하고 중학생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이전에 선택했던 것을 다시 자신이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기를 살리는 것이라든가 학업과 관련된 유도프로그램으로 일단 부모로부터 청소년의 단체활동 참여가 허용되도록 부모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킨 후 향후 다른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한다. 혹은 부모와 자녀가 가족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핵가족시대는 가족간의 유대성이 약화되어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가족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 활동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프로그램을 이해하게 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는 홍보작업, 또 부모의 의식을 변화시킬 지역 사회차원의 부모교육실시도 부모의 의식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가져오는 학원 등의 과외공부에 의해 고연령층 학생은 단체활동에 할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단체활동장소 혹은 모임장소가 원거리에 있으면 왕복교통에 따르는 시간문제에 의해 부모의 단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이 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자신도 가장 큰 어려운 요소는 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것이라고 호소한다. 따라서, 근린지역에서 청소년의 욕구와 성장에 필요한 단체활동을 가질 경우 많은 교통시간이 절약될 것이다. 또한 저연령층 청소년도 근린지역 시설일 경우 부모의 도움없이 혼자 찾아갈 수 있어서 여가시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청소년들 경우는 잔업 등의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시간이 더 부족하므로 더욱 근린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회관형 활동시설의 운영자는 시간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조직형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서 모임장소의 집회 때마다 장소를 찾아 떠돌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가까스로 학교를 빌려 실내활동을 한 것을 보면, 근린지역 활동시설의 문제 해결은 시급하다.

근린시설의 극대화는 군 구민회관, 동사무실, 청소년회관 등의 기존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가능시설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엔 학교시설도 빼놓을 수 없다. 학교는 교실과 운동장이 있으므로 기초적인 여건을 갖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활동공간일 수 있어 지역중심 청소년 활동 시설로 가능하다. 특히, 농촌은 이농으로 인해 학교의 유휴시설인 빈교실과 남아도는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시설의 손상, 분실 등을 우려한 나머지 대다수의 학교장들은 학교시설 개방을 꺼려하고 있다. 민간 청소년단체가 행정적으로 관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학교시설을 활용하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에서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중요하므로 지역주민들이 관심과 참여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근린지역 활동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부족에 의한 활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 공간의 청소년 시설을 각 지역마다 확충시켜 제공하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 삶의 사회현장이며 기본적으로 이웃사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sup>29)</sup> 활동거점이 지역사회일 경우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활영역내에서 이웃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최근의 맞벌이 부부, 핵가족이 소홀하기 쉬운 아이들에게 대한 소속된 지역의 동네 어른들이 공동으로 감독·보호할 수 있는 사회통제의 길이 된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공동체를 상실하고 비인간화된 제 2차 집단적 현대산업사회의 특징은 인간관계를 파편화시키고 청소년들이 심리적 박탈감 및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동네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유해행위에 대해 거의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을 볼 수 있다.<sup>30)</sup>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공동체는 청소년들만이 자기들의 삶의 양상을 표현할 공간을 허락치 않아서 청소년들을 마을밖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초

29) 한준상(1988), 사회교육과 사회문제, 청아출판사, p. 71.

30) 도중수 외(1990),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p. 209.

래”하고 있다.<sup>31)</sup> 그들은 지역공동체의 삶에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일탈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생활공간이 되고 거기서 여가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면, 청소년들은 단체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연대감이나 귀속감을 가지게 되고 일탈행위도 감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을 반복하는 중에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봉사정신을 길러 상호협력하는 습관을 기르고 공동체의식을 가지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몸에 익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신념과 욕망, 가치를 배우게 될 것이다.<sup>32)</sup> 그리하여 단체활동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미래의 사회질서의 구성원인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응답에 의하면, 학교밖의 지역단위 단체활동이 폭넓은 교우관계(24.5%)를 제공하므로 이것을 선택한 사회성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활동의 장애요인으로서 각 성원이 단합이 안되는 것(12.9%)을 지적하였다. 지도자들은 특히 이 점을 유념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아직 우리 실정은 청소년단체의 지방단위 혹은 지역단위는 그것을 ‘지역대’라고 부르는 경우에조차도 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자발적이고, 협동적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일정한 지역의 단체단위라는 의미보다는 학교단이 아니라는 의미에 해당한다. 단체의 지역단위는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충족이 근원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된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대부분은 지역내의 청소년집단의 문제가 풀리면 그것으로 인해 그 지역이 공통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을 공유하게 된다는 개념이 확실히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과 학교와 함께 지역사회가 단체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31) 박중삼(1992), “가출청소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청소년가출의 예방과 대처 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p. 19.

32) 남정걸(1988), 사회교육행정론, 교육과학사, p. 222.

한준상(1988), 전제서, p. 71.

부모의 인식을 바꿀 그 다음 방법은 홍보물을 통해 단체활동을 알리는 작업이다. 사업비가 부족하여 프로그램운영에 크게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별도의 경비를 들여 활동을 홍보하기란 현재 지역중심 단체활동의 재정여건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각 지방행정국의 청소년과가 각 지역중심단체의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일정 및 참가관련 사항을 수록한 종합적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내서, 팸플릿 등을 통해 각 가정으로 직접 우송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지방행정국의 청소년과가 반상회를 통해 각 가정으로 홍보물을 전달하여 단체에 대한 어른들의 불신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중심 단체활동의 사업내용을 학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교특별활동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활동일지라도 학교의 협력을 받는 길을 터야 할 것이다.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기업체가 근로청소년회관의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근로청소년들에게 여가활동 기회를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청소년과가 근로청소년회관의 사업 안내문을 각 기업체에 보내어 기업체가 반드시 게시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홍보와는 달리 지역단체 자체가 독특한 사업을 통해 홍보사업을 실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관령 지역대가 시도한 바와 같이 방송국의 지역행사에 협조를 해주고 단체활동에 대한 무료 방송광고를 내 보낼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또 지역사회의 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통하여 단체활동의 건전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지도자·자원봉사자의 확충

청소년 단체활동은 지도자의 열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지역중심 단체의 지도자들은 학교중심 단체의 지도자들에 비해 의욕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지도자의 부족문제는 심각하다. 청협에 가입된 33개 단체를 1991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99%를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3할 만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지도자가 된 경우이므로 지도자 확보는 쉽

지 않다. 지역중심단체의 경우 특히 회관형 단체의 지도자 부족문제는 심각하다. 조직형 경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도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예 지역단위를 조직하지 못하니 문제가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지도자 확보문제는 지도자의 능력, 시간, 지도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위 보장문제, 자원봉사자 확보 및 전문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지도자의 직업에 대한 응답에 의하면, 청소년단체 직원 및 지도자 28.5%, 사회사업가 5.5%로 전문지도자는 34%였고, 그 외는 초·중등교사(17.5%), 회사원(17.0%), 학생 및 무직(6.5%), 종교관련직(4.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형의 경우 대부분이 교사이나 자영사업을 하는 지도자도 상당히 있다. 이것은 반드시 전문청소년 단체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열성이 있으면 자원봉사로 지도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경우 국가가 지도자에 대한 연수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한다면 각 단체 자체의 지도자훈련에 의한 고유지도방향 외에 청소년에 대한 지식 및 지도방안을 기본적으로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형단체 경우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현직교사로 지도자를 주로 확보하려 하지말고 지역사회의 일반 성인 중에 지도자 자질을 가진 자를 훈련시켜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 성별로는 여자도 38.5%나 되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지도자의 학력으로는 대학졸업이 61.5%나 차지하나 고등학교 졸업자도 22%나 된다. 응답한 지도자 일반은 주로 캠프, 야영, 등산(15.5%)과 레크레이션(15.0%)에 취미나 특기가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미루어 보건데 조직형의 경우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기능, 예를 들어 상담(3.5%), 전통문화(1.5%)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약하다. 이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부모나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협조를 얻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역할은 활동하는 것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위해 중요하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와 단체의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필요한 지도분야에 능력있는 주부들이 여성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으니 이

들에게 전문성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지도자간에 역할을 분담한 보조지도자나 공동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배정은 경험과 능력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은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 지역 아이들의 문제에 민감할 것이므로 지역중심 단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비전문적 봉사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락업무일 것이다. 지도자가 서신으로 연락하다 보면 연락이 제때 안되거나, 전화로 하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참가청소년의 부모들이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연락업무를 맡아 지도자의 수고를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운동경기의 심판관이 된다는가, 과학관등을 관람할 경우 교통편을 제공해준다는가, 자료정리, 장비의 수리와 관리를 맡는다는가 하여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담하여 가시적인 일과 비가시적인 일에 부모가 자원봉사자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단체활동 실시 시간이 평일 저녁과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지도자들이 자신의 가족과 보낼 시간을 희생하거나 가족의 생활리듬과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피로한 고유생업에 더하여 선한 의도로 인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자원봉사자 혹은 상근 지도자의 가족이 함께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지도자들의 시간 고충해소의 한 작은 방안이 될 것이다.

상근 전문지도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시급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자원봉사지도자 경우는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므로 물적보수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상근지도자거나, 자원봉사자 모두 사회적 지위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편안한 모습으로 단체활동을 인솔할 때 마치 꼴목대상 놀음에 나선 어른썸으로 무시를 당하고 나면 사기가 저하된다.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자기 생활을 지역내에서 영위하면서 지역사회 청소년을 바로 이끌어가는 참다운 봉사인이므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가 자주 바뀌

면 축적된 경험이 전수되지 못하고 단절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제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지역중심 단체활동에 참여했던 고연령 청소년이 저연령 청소년에 대한 보조지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단체내에서 후원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도자 부족 해결에 일조를 하면서 단체의 지도자로 지역사회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양해야 한다.

### 3.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의 지역중심화

청소년 단체활동의 프로그램 문제는 그 내용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관련된 지도자, 비용, 활동장소의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해본 프로그램은 야외심신 수련활동(35.5%)과 레크레이션(15.0%)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첫째,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유의 것이기 보다는 서구적 경향을 따르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일부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행사성 위주거나 외형적인 목표달성에 치우치고 있다. 셋째, 각 단체간 지나친 경쟁에 의해 프로그램들이 유사하거나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여 중복적인 양상을 띄우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선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것을 문제의 실시하기 위한 활동장소의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에 요하는 재정적 여건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각 단체마다 교유의 독특한 활동을 실시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이 그 지역사회의 구조와 기능, 사회계층적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 그 지역사회 청소년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른 세대의 틀과 취향에 맞는 것 보다는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 성장과정의 다양성 그리고 문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도자의 응답에 의하면 지도자 대부분이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소수의 경우 진천군 낙농4-H와 부산 YWCA의 지역활동에서 지역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성공한 활동 사례를 볼

수 있다.

조직형단체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해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은 자연체험(42.2%), 복합수련(20.2%), 체력단련(12.3%), 사회봉사(8.7%), 전통문화(5.4%), 정서함양(4.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공부중심의 학교생활과 인간성이 상실된 도시문화를 떠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을 체험하길 원한다. 회관형 청소년 단체활동 참가자들은 복합수련(24.4%), 정서함양(17.9%), 자연체험(17.3%), 사회봉사(16.0%), 전통문화(12.2%), 체력단련(5.8%) 순으로 조직형에 비해 상당히 끌고루 선호도가 나타났다. 두 가지 유형의 단체활동에서 모두 복합수련에 대한 선호도가 20% 넘었다. 그런데 복합수련활동 중에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원끼리 친목활동, 또는 다른 청소년단체와 연합활동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찾고 또 친구와 이웃을 찾는 건전한 공동체의 성원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 준다. 회관형의 경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12.2%로서 회관형 지도자들의 8.6%보다 높은 것은 청소년의 의식이 기성세대 지도자를 앞질러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지역사회와 관련된 단체활동은 사회봉사로서 환경미화, 자연보호활동과 캠페인을 가장 많이 하고, 교통정리, 길안내, 새질서, 새생활의 사회정화운동캠페인, 고아원, 재활원 방문, 지역행사보조활동, 야학, 공부방활동, 독서실 운영, 근로청소년과 장애인 교육, 농촌일손돕기 등의 순으로 나왔다. 지역중심단체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다. 이것은 또한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용이케 할 것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운영면에서도 달라져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프로그램 수행 결과가 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실시과정에서 협력심, 자발적 참여성, 창의력, 만족감을 가지거나 발휘하고, 또 지도자와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문제해결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효과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과 청소년 활동시설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청소년들이 특히 이용해보고 싶은 곳은 실내수영장과 실내스케이트장이나, 이것은 조직형, 회관형단체 유형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곳이다. 그런데 설문응답에 의하면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특히 선호하는 곳이 야영장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각 지방행정 담당자는 청소년의 건전한 욕구에 부응해서 많은 청소년이 단체활동에 실내수영장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지도자에게 있다. 지도자가 단체내의 조직체계에서 얼마 만큼 의사결정에 자율권을 구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 이 자율권은 단체의 중앙본부와 하부조직인 지역단체와 지역중심 단위단체의 지도자와의 조직체계에 의해 그 정도가 결정된다. 즉, 청소년단체의 조직 자체가 중앙집권적으로, 획일적 의사결정체계로 운영될 때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한다.<sup>33)</sup> 따라서, 청소년단체활동의 지역중심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지역특수성을 반영하도록 지역단위 지도자에게 독자성과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은 재정상의 여건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프로그램에 대한 발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빈약한 재정으로는 운영할 수 없어 결국 기존의 프로그램만 답습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이 직면한 최대의 난제는 재정의 확보이다. 프로그램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 참가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만 참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인문계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공·상고의 실업계학생이 주로 참여하는 지역단체경우도 있는데 불우한 청소년, 근로청소년, 미진학청소년들까지도 각각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

---

33) 진세혁(1989), “청소년문제와 지역사회의 역할”, 청협 제13권 3호, p. 66.

다. 이러한 모든 계층의 청소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찬조금 등을 통해 장비구입 등의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장거리야영프로그램 등에는 후원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각종 이용비의 경우, 수영장, 전시관, 고속버스, 철도편 등의 공공시설이나 교통편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특별할인제의 실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단체의 재정적 영세성을 해결하는 방안은 국가의 재정지원, 기업의 후원, 중앙본부의 수익사업을 통한 기금, 그리고 가능한 여러 지역주민이 또 여러가지 지역기관이 지역단체를 후원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4. 지역사회 의 후원협의회 구축 및 청소년단체간의 지역협의회 구축 필요성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역중심화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육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단체활동을 후원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다. 본 연구자료에 의하면 지역중심단체의 지도자 절대다수가 후원회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사회가 청소년 양육에 보낸 관심은 매우 미미한 것이었다. 사회전체는 청소년단체의 집단활동에 참여했던 대개의 청소년들은 장차 사회로 나간 뒤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단체활동이 상호협조와 연대의식을 기르고, 규율과 질서, 공중도덕을 준수하는 태도를 기르고, 집단과 조직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과 태도의 배양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sup>34)</sup>

지역주민은 자기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이 구체적으로 청소년 단체활동을 위한 자

34) 남정걸(1988), 전계서, p. 228.

원확보에 지역주민을 참여케하는 방안이 있다.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것은 그 단체의 사업을 알리는 홍보작업과 지역주민의 관심을 모을 지역사회봉사활동 등의 수행일 것이다. 그런 기회는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호의적 태도와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또한 후원자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의 유지나 영향력있는 저명인사들의 전문적 자문과 정신적 후원을 얻는 것도 이들에게 단체활동을 홍보하는 방법이 된다.

후원을 얻기위한 이러한 각 단체의 개별적 노력 외에, 시민적, 사회적 공동체의 상호관계에 의한 합의에 따라 그 지역사회에 청소년단체를 일괄하여 후원할 청소년단체 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후원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자와 청소년 보호와 복지를 위한 모든 유관 사회단체의 전문가 및 지역단위단체의 지도자들을 결합체로서, 지역사회에 자원을 청소년을 위해 활용하고 조정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이 조직의 역할은 바람직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검토하고 재정적인 여건이 자체내에 구비되어 경비조달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단체를 지역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전문화, 분업화, 체계화되어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청소년의 단체활동이란 무엇이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기 위해선 청소년단체들이 상호연계되어 자발적으로 협력증진을 가져 올 지역중심단체들간의 지역협의회의 구축이 요청된다. 이것은 수직적 관계에 의한 명령체계가 아닌 횡적 연결이어야 한다. 단체들이 타단체에 대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정보에 대해 폐쇄적이어서 단체활동 활성화에 조금도 도움이 안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단체사업은 단체라는 비인격적 실체가 육성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활동을 통해 인격체인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데 있다. 단체들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각 분화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각 지역단위의 청소년단체들이 협력할 기능을 보던 첫째,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청소년회관 등에 비치하여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간 협력체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그 지역사회의 개인,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자원 및 각종 물적 자원은 단체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잠재력이므로 목록을 작성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성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 지역사회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성에 대한 기본조사를 공동사업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장비를 서로 지원할 것이다. 다섯째, 각 단체의 사업과 자원에 대해 서로 파악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위한 협의기구로써 지역협의회의 기능일 뿐이지 각 지역단위 단체위에 군림하는 상위조직으로 변신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의 청소년과는 중앙기관과의 수직적 관계를 연결하여 정보, 자료, 각종 지원의 기능을 하고 지역협의회는 수평적 관계를 연결하여 상응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협의회는 수 만개에 이르는 교회와 사찰 등의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청소년에게 열린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이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역중심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간조직 가운데 가장 큰 조직은 개신교회이다. 전 지역 곳곳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시설은 거의 지역사회 어디에나 위치하는 자원이다. 지역교회와 사찰은 그 지역주민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며 청소년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공간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종교 자체가 지닌 이타적 특성에 기인하여 청소년단체와 같은 집단을 위한 사회적 조직에 호의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개방한 몇몇 교회와 사찰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보면 교인이 아닌 경우에도 종교시설 활용에 크게 반감을 가지지 않으리라 본다. 종교시설활용시 예배, 예불 등의 종교의식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첫째, 청소년단체 프로그램이 종교의식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제의, 명상, 설교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둘째

는 종교의식을 직접 활동 내용으로 하기 보다는 종교의 봉사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종교활동을 의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가 모든 청소년에게 특정 종교시설을 개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자신이 전자를 택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선택에 맞겨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청소년단체의 모임 장소로 종교시설의 공간을 이용하고 종교기관의 인적자원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종교계 지도자를 단체활동 지역중심화를 위한 후원협의회 구축에 적극 참여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행정적 지원상의 고려사항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역중심화를 위해선 막대한 재정적 보조가 필요한데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자원으로 단체들을 후원할 때 국가가 가지는 행위양식이 형성되며, 이것은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 및 성격에 대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게 된다.

우선 국가가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역중심화를 위해 행정적으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나를 보자.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의하면 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 행정국의 청소년과가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중심 단체활동의 프로그램 안내서를 배포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 및 지도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배려,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보조로써 공공시설 및 교통편의 등에 대한 청소년우대 할인제 등이다.

그 밖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년활동을 위한 모임장소지원, 야외활동을 위한 야영장 설치, 그리고 재정적지원일 것이다. 재정적지원에 대한 국가의 간접적 역할은 조세감면규제법을 완하하여 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단체에 대한 개인 기업체의 기부금에 대한 감세율을 증폭시키거나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세 및 면세 대상의 범위도 확대하여 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직접적

재정지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적 지원이 특정 단체에게 편파적으로 지원되는 점과 동시에 재정적 지원이 불려올지도 모르는 각 단체의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자율권 침해이다.

학교교육의 가장 큰 맹점은 그것이 입시위주로 타율적으로 학습되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청소년의 전인적 양육에 주력하는 것이 청소년육성정책의 목적이다. 청소년의 하위문화는 동질성 보다는 다양성에 그 특징이 있다. 즉,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청소년의 욕구가 다르므로 획일적인 대처방식은 적절치 못하다. 다양한 소수집단의 청소년이 나오고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정체성과 고유한 특성을 가지면서 단체를 통해 제도적으로 흡수될 때 사회가 응집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다양한 자율적 문화의 장이 거대한 국가의 정책시행으로 인해 획일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투자하기 위한 조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국가가 청소년육성 정책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강력한 국가의 행정력은 하향식하달에 의해 대규모적인 행사, 일시적이고 지속성없는 대형 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기 쉽다. 강력한 행정력의 개입은 오히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충족, 지역중심적 활동이 특수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행정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일 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창조적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제약을 제거하는 데 국가가 격려,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통제하는 의미에서 직접적 개입보다는, 투자라는 의미의 간접적 개입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책은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역청소년의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사회의 확립은 국가가 사회성원 모두의 복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때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의 역할은 청소년단체가 창의성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이어야 한

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단체가 지역중심화되도록 지원하는 면에서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위에서 아래로 단체활동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적극성을 말하며 단체활동의 지역중심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그 역할은 간접적이어야 한다.

우리 청소년의 삶을 규제하는 외적 요인은 크게는 교육정책에 있으며, 그것은 이 사회의 제도적 문제로서 청소년의 단체활동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제도 문제에 대한 단체의 대응책이라든가 방안은 본 연구의 논외이다. 단체의 지역중심 활동을 활성화하는 길이 반드시 각 단체의 학교단을 해체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역중심단체들이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다. 심약한 요즘의 청소년에게 단체활동의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용이하게 만들고 그 활동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요구, 문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삶의 자리인 학교와 가정의 두 거점지에서 단체활동이 배려될 때 친절하게 청소년에게 접근해 갈 것이다. 학교에서 활동하길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해선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단체활동 하게하고 가정 가까이 지역단위단체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본 자료에 의하면 조직형 단체의 회원들은 학교에서 실시되는 단체활동은 학교생활의 연속인 것 같아 흥미가 없다고 하니 더욱 지역중심단위로 단체활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일원이 되어 지역단위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협력은 학교와 지역중심 단체간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조절, 보완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선 행정당국이 학교가 지역중심 단체활동을 음성시하거나 억제하여 청소년들이 학교밖의 훌륭한 단체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힘들도록 제한받고 위축될 수 밖에 없는 학교규정들을 개선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엔 정책단체 외에는 가입을 억제시키는 학교단 문제의 해결도 함께 촉구된다. 즉, 학교자체내의 지역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역중심활동을 인정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

다.

끝으로, 진정한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이 몸 담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도 내용과 사회적 환경이 상호 연관 관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단체활동도 청소년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고취할 때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단위 단체가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공동체형성 활동을 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점을 논했다. 그러기 위해선 단체활동의 내용과 수행과정에 어려운 점인 활동참여 시간부족, 지도자확보, 부모이해, 재정, 집회장소, 전문기술 해결에 일대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이 운동은 청소년단체, 청소년들 자신, 그 부모들, 지역사회 구성원, 관련 공공 민간의 모든 기관과 사회 각부문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총체적인 협력을 지방행정이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사회적 경험과 인격형성을 위한 청소년단체활동이 청소년이 있는 현장의 거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지역중심단체의 조직, 집회장소, 참여청소년, 프로그램, 민간자원 등 모든 요소의 지역화에 의해 단체활동이 지역중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 VI 장 요약 및 결론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학교교육에 문제가 있고 가정교육에도 한계가 있는 현대사회에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보충하고 연장하는 기능을 가져야 할 청소년단체가 학교중심으로 단체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의 지역 중심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해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면접조사(기관방문조사,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각종 선행 연구논문과 문헌, 그리고 청소년단체에서 수집한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육성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청소년단체가 학교중심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지역중심활동의 의의 및 주요 활동형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례조사는 1992년 5월 14일~1992년 6월 5일과 1992년 9월 15일~1992년 10월 8일의 두차례에 걸쳐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청협 가입단체 중에서 지역중심단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를 선별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선별된 단체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각 단체의 지역중심활동 현황과 이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사례조사에 사용된 조사표는 조직형과 회관형의 두가지로 작성되었는데, 일반현황, 회원의 일반적 특성, 조직활동의 동기, 운영재원, 문제점,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시설을 이용한 조직활동의 동기에서 조직형단체와 회관형단체의 조사표의 차이를 두었다.

설문조사는 현재 지역중심 단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중에서 단체유형별, 지역별로 4~5개씩 총 19개의 단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단체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을 단체의 크기에 비례하여 지도자 295명, 청소년 865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1992년 9월 23일부터 10월 27일사이에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청소년용은 619매, 지도자용은 200매였고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유효사례수는 전체 803매였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구분하여 청소년용의 경우는 단체가입동기, 단체가입 경로,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부모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단체활동의 장점 등을 조사하였고, 청소년지도자용의 경우는 지도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와 구성, 청소년단체의 운영형태, 단체활동이 지역중심으로 전환에 대한 견해, 지역중심단체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 등을 조사하였는데, 공통변인 21개, 개별변인 15개로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중심활동의 개념을 지역을 단위로 하는 활동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파악하였고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학교중심 단체활동의 한계 극복, 프로그램의 지역화와 시설의 확보의 면에서 지역중심활동과 필요성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중심활동의 형태와 유형을 지역사회교육의 접근모형과 청소년단체의 조직특성과 활동형태에 기초해서 조직형태와 회관형태로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단체가 중앙단위중심의 조직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단위의 조직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단위의 단체활동이 미약하며 단체활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사회관련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중심활동의 현황을 단체활동내용의 지역사회중심 사업실시와 지역사회중심 조직운영이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중심 사업이란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과의 협력 및 협동정신을 배양하며, 향토에 대한 애향심과 나아가 애국심을 기르는 활동으로, 근로봉사, 교육봉사 및 농촌봉사와 도시봉사, 불우이웃돕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

동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YMCA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한국BBS중앙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라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한국4-H후원회, 청소년적십자, 홍사단, 대한YWCA연합회 등의 청소년단체들은 이런 측면에서의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을 비교적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중심 조직운영의 측면에서 지역중심활동 현황은 청협가입단체를 기준으로 우선, 조직형 단체로는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BBS연맹 등이 지역중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되는데, 한국 보이·걸 스카우트연맹과 한국BBS연맹은 최초로 그 조직적 출발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단체들이며 따라서 지역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데 비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등은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며 최근에 와서 지역중심활동을 전개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BBS연맹을 제외하고는 이들 대부분의 단체들은 현재까지 학교에 보다 많은 조직적 비중을 두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한편, 회관형 단체로는 대한 YMCA연맹, 한국YWCA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이 지역사회내에 자체 회관을 갖거나 시설을 이용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청협가입단체는 아니지만 지역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로서 목동청소년회관, 광명시근로자복지관 등이 있다.

이러한 지역중심단체의 현황을 토대로 본연구에서 사례조사된 지역중심단체의 일반적 특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 활동형태는 크게 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지도자가 기존의 학교중심의 단체활동 형식을 버리고 다양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학교를 벗어나 지역내에서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과 청소년 단체가 설립될 때부터 여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하면서 프로그램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전자의 경우 조직형 단체로, 후자는 시설이용형 단체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조직형 단체에 속하는 단체들을 보면 한국해양소년단 직할대, 금강지역대, 한아람단, 대관령지역대, 남원지역단, 새암지역대, 진천군 낙농 4-H, 동일 지역대, 남해화학지역단, 원불교지역대가 있고, 회관형단체에 속하는 단체로는 부산YWCA, 의정부YMCA, 광명시근로자종합복지관, 봉천동종합 사회복지관, 목동청소년회관이 해당된다.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이 1980년도 이후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 올 수록 점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설립주체의 경우 조직형단체에서는 주로 일반인과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주로 개인사업을 경영하거나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단체지도자도 있다. 회관형단체에서는 주로 회관시설을 보유한 청소년단체 자체나 행정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설립주체가 되고 있다.

회원은 대부분의 단체들이 각 교급별 청소년들과 일반인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직형단체의 경우는 거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회관형단체는 지역주민이나 주부, 근로청소년, 공·상고 학생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조직형단체중 남해화학지역단은 국민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관령지역대는 대학생과 직장인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회원모집 방법에 있어 각 단체별로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조직형단체의 경우 주로 부모나 친인척을 통하여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와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경우, 자체의 홍보를 통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시설이용형 단체의 경우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지도자의 경우 조직형단체는 대부분이 교사이며 지역주민과 기업체직원, 자원지도자들도 활용하고 있었고, 시설이용형단체는 자체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충당하고 있으며 외부강사도 활용하고 있었다.

집회장소는 각 단체의 사정에 따라 여러 장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조직형

단체의 경우 사무실이나 야영장, 학교, 종교시설, 기업체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시설 이용형단체는 자체 회관과 복지관을 주로 이용한다.

각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시설은 주로 청소년단체의 중앙연맹에서 제공되거나 부모, 지도자 또는 기업체의 지원에 의존, 또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은 일반적으로 각 단체마다 육성회나 후원회를 조직하여 이들을 통해서 확보되거나 지원되고 있는데, 조직형단체는 중앙연맹이나 일반기업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시설이용형단체는 청소년단체 자체지원이 대부분인데 지역의 인사들이 자치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도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들의 주요 활동은 조직형단체들의 경우에는 캠프활동과 봉사활동, 고적지답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설이용형단체들은 상담, 레크레이션, 체육지도활동, 청소년 행사주관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강릉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옛길찾기나 성터찾기, 눈집캠프 등 일부 단체는 일반단체의 프로그램과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지리적,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는 활동내용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중심단체들은 그 활동을 전개할 때 지도자에 대한 의존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지도자의 헌신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지도자, 활동장소(시설), 활동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현재의 지역중심단체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그 조직이 미성숙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지역중심단체의 사례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검증하고 지역중심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직접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역중심단체의 프로그램, 지도자, 이용시설, 단체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체활동의 장애요인 및 유리한 점, 청소년단체의 지역중단체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와 이러한 단

체가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 등에 대하여 의견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중심단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관련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청소년 의견 반영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현재 지역중심단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은 거의 동일하게 야영·소풍·하이킹 등과 같은 자연체험활동, 국제친선 프로그램·축제·행사참가와 같은 복합수련활동, 자연미화·환경보호와 같은 사회봉사활동 등의 순으로 들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환경미화, 자연보호활동, 교통정리, 길안내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다른 활동에 비해 월등히 많이 들고 있었다. 지역중심단체활동에서 프로그램을 계획시 청소년의견의 반영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체유형별로는 조직형단체가 회관형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중심단체 지도자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들의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청소년과 지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도자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청소년들의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체유형별로 비교해 볼 때 조직형단체가 회관형단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형단체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도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인다. 한편 바람직한 지도자상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지도자 모두 청소년에 대한 이해심과 포용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들고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은 지식과 식견, 신념과 철학 등의 순으로 들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신념과 철학, 지식과 식견, 전문기술이나 기법등의 순으로 들어 차이를 보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지역중심단체의 바람직한 지도자상은 청소년들을 가장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투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

며 지식과 식견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중심단체활동 시설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이용해 본 시설, 가장 선호하는 시설,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역중심 단체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해 본 시설은 야영장과 청소년회관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교회나 사찰, 학교강당, 공공회관 등의 시설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필요한 시설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가장 선호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지도자가 각기 다른 반응을 하였는데, 청소년들은 실내스케이트장, 실내수영장 등을 선호하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야영장을 선호하고 있었다.

지역중심단체활동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단체활동의 참여도, 단체활동에 대한 만족도, 부모의 단체활동에 대한 인식 및 협조정도, 주변에서 바라본 단체활동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단체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단체활동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님의 협조는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단체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친구들은 지역중심단체활동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의 주변인사나 직장 동료도 지역중심단체활동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은 활동참여시간이 부족한 것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지도시간의 부족과 지도자의 확보문제, 그리고 재정확보 등의 문제를 많이 들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중심단체가 학교에 있는 단체에 비하여 좋은 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폭넓은 교우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지도자가 열성적이고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청소년단체활동이 학교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학교중심 단체활동의 제약성과 교육제도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역

활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들고 있었으며,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때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층과 활동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가장 유리한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지역중심단체활동을 전개할 때 필요한 요건으로 제시한 항목에 대하여는 80%이상의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역중심단체활동에는 지역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중앙연맹 또는 공공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학교의 이해와 협조, 지역주민들의 지도자로의 활용, 청소년, 지도자, 지역주민 등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 후원회조직의 결성, 전용회관의 확보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 우리나라 청소년 단체활동 가운데 학교의 특별활동에 소속되지 않은 채 지역단위로 청소년 단체활동을 지역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식전환, 지도자 자원봉사자의 확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의 지역중심화, 지역사회의 후원협의회 구축 및 청소년 단체간의 지역협의회 구축 필요성, 행정적 지원상의 고려점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제 2 절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역중심 단체활동의 활성화는 부모의 인식문제, 지도자 충원문제의 해결 외에 지역중심단체의 조직, 집회장소, 참여청소년, 프로그램, 민간자원 등 모든 요소의 지역화에 의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5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연구의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제언 1 : 자녀의 단체활동 참여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부모의 흥미를 유발시킬 유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체활동에 대한 홍보물을 지방청소년 행정과가 각 가정으로 배포하도록 해야 한다.

불합리한 교육제도에 의해 자녀의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인식 못하는 부모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체활동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쉽도록 학업과 다소 관련된 유도프로그램을 단체들이 실시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의 수행은 가족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단체의 공신력에 대한 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다. 홍보물의 배포는 각 지방청소년 행정과가 각 지역중심단체의 청소년 행정과가 각 지역중심 단체의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관련 사항을 수록한 종합적인 안내서나 팸플릿을 제작하여 각 가정으로 직접 우송하거나, 반상회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과가 발신하므로 학교 밖의 단체활동에 대한 어른들의 불신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언 2 : 지도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자, 부모의 전문성 및 비전문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연수를 실시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중심 단체활동에 참여중인 고연령 청소년이 같은 조직내의 저연령 청소년을 보조 지도하도록 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실정으로 각 단체가 상근지도자를 둘 재정적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재정보조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자원봉사자를 확충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경우가 단체가 실시하는 지도훈련 외에 국가가 이들을 연수하여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및 지도법에 대한 기초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보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능력있는 여성주부들을 자원봉사지도자로 훈련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참가청소년의 부모의 전문성으로 해당프로그램의 지도에 자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연락업무 등의 비전문성 자원봉사에 부모의 참여를 적극활용해야 한다. 이때 상근지도자, 혹은 자원봉사자의 가족이 단체와 함께 활동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지도자의 시간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제언 3 : 프로그램 개발에서 지역 특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중앙 본부가 지역단위 지도자에게 독자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상의 재정적 지원은 후원협의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참가자에게 활동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제도적으로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시 참여자 전원에 대해 특별할인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이 각 단체의 특성과 각 지역사회 청소년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개발·수행되어야 단체활동이 지역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독창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도자가 단체내의 조직체계에서 가지는 자율성과 크게 상관되어 있다. 특히 중앙본부가 획일적 의사결정체계를 가질 경우

보편적으로 타당한 프로그램이 나올 뿐이지,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언 4 :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물적, 도덕적 지원을 용이케 하고 단체간의 자발적 협력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후원협의회 및 청소년단체간의 지역협의회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역교회와 사찰등의 종교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후원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자와 청소년보호와 복지를 위한 모든 유관단체의 전문가 및 지역단위단체 지도자들의 결합체로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청소년을 위해 활용하도록 조정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특히, 지역교회와 사찰은 거의 어디에나 위치하는 자원이므로 청소년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활동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종교기관의 협조를 얻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단체간의 지역협의회는 횡적으로 연결될 협력체계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동으로 수집·비치한다. 둘째, 그 지역사회의 각종 물적자원의 목록을 작성한다. 셋째, 그 지역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성에 대해 기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넷째, 장비를 서로 지원한다. 다섯째, 각 단체의 사업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제언 5 : 단체활동의 지역중심화를 위한 국가의 행정적 지원은 획일적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해 투자하기 위한 조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개인·기업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각 단체에 대한 공정한 재정적 지원, 지역중심활동에 대한 학교 규율 완화 및 학교의 협력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청소년의 욕구가 다르므로 국가의 획일적 대처방식은 적절치 못하다.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제상의 감세, 면세의 폭과 범위를 증대시키는 것은 개인기업체의 지원이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길이다. 특정 단체에 대한 편파적인 재정지원의 지양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학교단과의 관계조절 및 학교의 관련규칙 완화는 청소년이 학교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원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활동하도록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중심 단체활동의 모임장소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중심 단체활동에 대해 학교내 게시나 홍보가 가능하고, 학생들 참여를 음성단체 활동시 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정책적으로 승인된 단체외의 단체들도 학교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도 청소년의 단체활동 자체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체활동의 모든 요소가 지역화되어 결국 단체활동의 특수성, 자율성을 지니는 지역중심활동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관련시행령 등에 이 점을 반영하여 지역단위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논저

김금옥(1978), 걸스카우트활동이 청소년지도에 미친 영향—서울시내 걸스카우트대원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김대섭(1992), 스카우트 소식지발행을 통한 지역대 활성화 방안, 스카우팅 봄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김병균 역(토티, W. 프레드, 맨리, 프랭크 J.)(1981), 지역사회학교—개념, 기능 및 조직, 서흥출판사.

김세열(1986),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 창학사

김지영(1985), “청소년단체의 집단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중고등학생의 여가활동 욕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김충기(1988),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청소년지도대책, 청협 제12권 1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남명자(1984), “청소년집단활동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남정걸(1983), 사회교육행정론, 교육과학사.

도종수 외(1990),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문병집(1985), 지역사회개발론, 법문사.

박종삼(1983), “지역사회개발과 청소년단체의 역할”, 미래사회와 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박종삼(1991), “바람직한 청소년단체 활동모델”, 청소년 제53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박종삼(1992), “가출 청소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청소년 가출의 예방과 대처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서장석(1985),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개발, 청소년.
- 안귀덕(1989), “농촌지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엄문용(1987), “지구연합회와 지역사회”, 스카우팅 제52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 오인탁(1982), “평생교육과 청소년단체의 기본방향”, 한국의 청소년상-청소년단체와 평생교육-, 서울 YMCA.
- 유태영(1988),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자 활동실태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새마을연구논문집.
- 윤백원(편)(1990), 단체운영의 실제, 홍익제.
- 이규환(1982), 지역사회와 학교, 남일당.
- 이봉강(1986, 여름), 지역사회와 밀접한 스카우팅 전개,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 이상대(1990), “소외된 아이들의 공동체-부천 새롭 공부방을 찾아서-”, 우리교육 11호, 도서출판 우리교육.
- 이원희(1986, 여름), “지도자업무경감과 서클활동 강화”, 스카우팅,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 이장호(1989), “공단지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정형(1988), “학교중심 지역사회교육의 조직모형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한빈(1982), “청소년단체와 평생교육”, 한국의 청소년상-청소년단체와 평생교육, 서울 YMCA.
- 임송자(1986),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의 의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협(1981),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아동복지연구.
- 전재일(1987),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역할, 청협 제11권 3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전재일(1987),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청협 제11권 3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정도영(1985), “스카우팅의 지역화”, 스카우팅 제41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 정지웅(1990), 사회교육학 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지웅·최상호(1983), 지역사회개발론, 선일문화사.
- 정하성(1990),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 가을겨울합병호, 서울  
청소년지도육성회.
- 조용하(1988), 야외교육 활동론, 교육과학사.
- 주성민(1988), 한국의 지역사회학교 운동,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 발행.
- 진덕규(1987), 지역단위 청소년운동의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소.
- 진세혁(1989.10), 청소년 문제와 지역사회의 역할, 청협 제13권 3호,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 차경수(1982), “평생교육시대의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한국의 청소년상-  
청소년단체와 평생교육-, 서울 YMCA.
- 차광선(1989), 21세기를 향한 청소년단체활동 과제, 청협 제13권 3호, 한국청  
소년단체협의회.
- 차광선(1990.여름), 청소년단체의 활동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 체육청소년부(1991), 청소년백서(1991년도판), 체육청소년부.
- 체육청소년부(1991), 한국청소년 기본계획, 체육청소년부.
- 최현외 3인(1989), 지역중심 청소년육성 모형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 경기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연구원.
- 최도철(1986), “스카우트활동과 지역사회”, 스카우팅 겨울호, 한국보이스카우  
트연맹
- 최병수(1990), “지역대육성의 필요성”, 스카우팅,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 표갑수(1984), 현대사회에 있어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소고, 청주대학생  
생활연구.
- 필리페 피조레트(1985), “스카우트 프로그램의 지역사회화”, 스카우팅 봄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1986),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육성”, 스카우팅 제45호.

한국평생교육기구(1991), 평생교육과 청소년교육, 이화문화사.

한준상(1988), 사회교육과 사회문제, 청아출판사.

함병수 외(1991), 청소년단체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홍남선(1977), “청소년단체의 사회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명찬(1990), 지역개발론, 법문사.

황정규(1989), “도시 아파트지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 국외 논저

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1982), 青少年の健全育成をめぐりて, 大藏省印刷局.

Arnold, L. Eugene.(1983), *Preventing Adolescent Alienation*, Lexington, Mass : Lexington Book.

Erikson, Erik H.(1963), *Youth : Change and Challenge*, New York : Basic Books Inc.

Hillery, George A. Jr.(1955),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Ianni, Francis A. J.(1989), A Report on American Youth Today, *The Search for Structure*, New York : A Division of Macmillan Inc.

Torkildsen, George.(1989), *Leisure and Recreation Management*, New York : E. & F. N. Spon.

# 부 록



# 지역중심활동사례 조사표( I )

## 1. 일반현황

목 적					
설립년도		설립주체		대 표 자	
회 원 수		지도자수			
보유시설 및 장 비					

## 2. 주요 조사내용

### 1) 회원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 \* 회원자격(성별)
- \* 연령(교급)분포

### 2) 회원청소년의 환경적 배경

- \* 주거특성-주택지(공동, 일반), 도심·상업지역, 농어촌, 산간벽지 등
- \*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SES) 정도

### 3) 회원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열성 및 부모님의 협조 정도

- \* 회원 청소년의 참여욕구 정도
- \* 부모님의 협조 정도

### 4) 학교, 지역사회, 협조기관, 중앙단체(본부)와의 연계성 및 협력정도

### 5) 조직활동의 계기 또는 동기

### 6) 주요활동 및 대표적인 프로그램

7) 정기집회의 시기, 장소, 방법

8) 회원(청소년, 지도자)의 모집(활용)방법

\* 청소년

\* 지도자

9) 단체활동을 위한 운영재원, 단위활동프로그램 소요비용 총당방법 및 재정지원 체계

\* 일반운영재원

\* 프로그램비용

\* 재정지원체계

10) 주변 이용시설 및 활동공간

### 3. 문제점 및 제안사항

1) 활동·운영상의 문제점

2)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

## 지역중심활동사례 조사표(Ⅱ)

### 1. 일반현황

목 적					
설립년도		설립주체		대 표 자	
회 원 수		지도자수			
보유시설 및 장 비					

### 2. 주요 조사내용

- 1) 활동참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 \* 활동참가자격
  - \* 연령(교급)분포
  
- 2) 활동참가 청소년의 환경적 배경
  - \* 주거특성 - 주택지(공동, 일반), 도심·상업지역, 농어촌, 산간벽지 등
  - \*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SES) 정도
  
- 3)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열성 및 부모님의 협조 정도
  - \* 회원 청소년의 참여욕구 정도
  - \* 부모님의 협조 정도
  
- 4) 학교, 지역사회, 협조기관, 중앙단체(본부)와의 연계성 및 협력정도
  
- 5) 시설(회관, 교회, 기관)을 이용한 조직활동의 계기 또는 동기
  
- 6) 자체시설을 활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

- 7) 자체시설 프로그램 외의 특별프로그램
- 8) 회원(청소년, 지도자)의 모집(활용)방법
  - \* 청소년
  - \* 지도자
- 9) 단체활동을 위한 운영재원, 단위활동프로그램 소요비용 충당방법 및 재정지원 체계
  - \* 일반운영재원
  - \* 프로그램비용
  - \* 재정지원체계
- 10) 인근지역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별히 배려하는 활동

### 3. 문제점 및 제안사항

- 1) 활동·운영상의 문제점
- 2)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

청소년용

I.D

##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방안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연구원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1989년도에 설립된 정부(체육청소년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92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단체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이와 같은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설문지는 청소년단체의 발전을 위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 9월

### 한국청소년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137-130)

TEL. 578-7922, 578-7923



9.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모두 몇분이나 됩니까? ( )명

10. 여러분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는 어떻게 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까?

- 1) 포스터나 홍보물을 보고
- 2) 부모님이나 친지의 권유로
- 3) 지도자 선생님이 직접 권유해서
- 4) 학교 담임선생님의 소개로
- 5) 담임선생님 이외의 다른 선생님의 권유로
- 6) 친구의 소개로
- 7) 형이나 언니의 권유로
- 8) 기타( )

11. 현재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중 어디에서 주로 활동이나 집회를 합니까?

- 1) 청소년회관(YMCA회관, 보라매청소년회관 등)에 주로 모여서
- 2) 교회나 사찰을 중심으로 모여서
- 3) 야영장이나 캠프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 4) 회사나 산업체내에 있는 일정 시설을 중심으로
- 5) 학교에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 6) 단체의 사무실(집회실) 또는 활동 때마다 적합한 곳에 모여서

12. 여러분들은 현재의 단체활동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만족하고 있다
- 2) 만족하고 있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5)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

13. 여러분은 현재 소속해 있는 단체의 활동 또는 집회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고 있습니까?

- 1) 매번 참여한다
- 2) 자주 참여하는 편이다
- 3) 특별한 때만 참여한다
- 4)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19-21. 다음은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시설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시설을 <보기>에서 찾아 적어주십시오.

〈보 기〉

- |            |             |          |             |
|------------|-------------|----------|-------------|
| 1) 교회나 사찰  | 2) 공공회관     | 3) 학교 강당 | 4) 청소년회관    |
| 5) 야영(캠핑)장 | 6) 도서관      | 7) 공원    | 8) 음악감상실    |
| 9) 전시실     | 10) 박물관     | 11) 과학관  | 12) 실내수영장   |
| 13) 야외체육시설 | 14) 극장, 영화관 | 15) 독서실  | 16) 실내스케이트장 |

19. 위의 <보기>중에서 인근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 2가지만 적어주십시오.

( )

20. 위의 <보기>중에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해 본 시설을 2개만 골라 보십시오.

( )

21. 위의 <보기>중 단체활동시 여러분들이 특히 이용해 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2개만 골라 주십시오.

( )

22. 다음 중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덕망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한다
- 2) 청소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3) 청소년단체활동에 관한 투철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 4) 청소년활동에 실제로 필요한 전문기술이나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5)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23.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 2)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편이며 어느정도 지원도 해주고 있다
- 3) 그저 그렇게 생각하시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해 주시는 정도이다
- 4)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편이며 지원도 거의 없는 편이다
- 5)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편이며 지원은 전혀 없다

24. 현재 같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 다른 학생들이나 친구는 여러분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1) 활동하는 것을 부러워하여 가입하고 싶어한다
- 2) 학교에 있는 단체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 3)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보아 별로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 4) 불건전한 단체활동으로 보고 있다
- 5) 잘 모르겠다

25. 여러분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지도자 선생님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 5) 매우 불만족하다

26. 여러분의 부모님은 현재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지도자 선생님에 대하여 어느정도 신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1) 매우 신뢰하고 있다
- 2) 신뢰하고 있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못 미더워 하는 편이다
- 5) 매우 못 미더워 하신다

27.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중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1) 지도자 선생님이 열성적이다
- 2) 여러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하게 된다
- 3) 다른 학교 친구들도 폭넓게 사귄 수 있다
- 4) 학교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활동을 해서 좋다
- 5) 학교에 있는 단체에 비해 단체활동 시간이 많다
- 6) 활동에 참가하는데 의무가 없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7)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갖기가 쉽다

28. 현재 단체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1)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
- 2) 활동이 별로 재미없다
- 3) 마음에 드는 친구나 동료가 없다
- 4) 지도자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5) 부모님의 이해가 부족하다
- 6) 활동비용이 많이 든다
- 7) 학교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 8)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
- 9) 모임 장소가 마땅치 않다
- 10) 끼리끼리만 어울려서 전체적으로는 단합이 잘 되지 않는다

29. 여러분들이 현재 소속해 있는 단체에 가입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1) 학교에는 가입해서 활동하고 싶은 단체(씨클)가 없어서
- 2) 학교내에 있는 단체(씨클)중에 가입하고 싶지만 들어가기 어려워서
- 3) 학교에 있는 단체(씨클)에서 하는 활동은 재미가 없어서
- 4)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은 학교생활의 연속인 것같아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 5) 학교내에 있는 단체(씨클)는 유명무실하여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서

30-36.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는 어떠한지 해당되는 정도를 찾아 그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 |  | 매 | 우 | 다 | 소 | 그 |
|--|---|---|---|---|---|
|  | 그 | 렇 | 다 | 그 | 렇 |
|  | 지 | 전 | 혀 | 아 | 니 |
|  | 그 | 렇 | 다 | 그 | 렇 |
|  | 다 | 그 | 렇 | 다 | 아 |
|  | 않 | 다 | 아 | 니 | 다 |
| 30.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열성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 지도자 선생님과 우리 청소년들간의 유대감이 강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2.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씨클)와 하는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비슷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3. 다른 학교 학생도 있고 연령층도 다양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4. 학교에 있는 단체에 비해 활동기회와 활동시간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5. 학교에 비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에 참가하기가 쉽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6. 청소년들이 틀나는대로 자유로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도자용

I.D

##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방안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연구원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1989년도에 설립된 정부(체육청소년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92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단체의 지역중심활동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단체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이와 같은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설문지는 청소년단체의 발전을 위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 9월

### 한국청소년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137-130)

TEL. 578-7922, 578-7923









5) 잘 모르겠다

\*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설문에 답해 주십시오(25-27).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는 단체설립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단체활동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중심의 단체활동은 전체 청소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도자의 부족, 기존 프로그램의 답습 등 단체활동에 많은 문제점들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학교중심의 단체활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단체활동이 학교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25. 귀하는 위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바람직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 2) 바람직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 3) 그저 그렇다고 생각한다
- 4)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한다
- 5) 매우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한다

26. 귀하가 <문항 25>에서와 같이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

---

---

---

---

---

---

---

---

27. 귀하는 청소년단체활동이 학교중심에서 위와 같은 의미의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때 유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학교에서 활동할 때보다 지도자들이 더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2) 여러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하게 된다
- 3)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층이 다양해진다
- 4) 학교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활동을 해서 좋다
- 5) 학교에서와는 달리 실제 활동을 더 자주하게 된다
- 6) 학교의 제약을 받지 않아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28. 다음중 귀하가 현재 단체활동을 계획하고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1) 활동지도를 위한 참여시간의 부족
- 2) 수련거리(프로그램) 개발
- 3) 청소년 회원의 확보
- 4) 지도자 확보
- 5) 청소년 부모들의 이해 부족
- 6) 재정 확보
- 7) 직장 또는 주위 동료들의 무관심, 이해부족
- 8) 활동지도를 위한 전문 기술 또는 기법의 부족
- 9) 활동 장소 또는 시설의 확보(이용)

29. 회원청소년들의 회비 또는 참가비 이외에 단체활동에 따른 경비는 주로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 1) 학교 또는 공공행정기관의 재정지원 또는 보조
- 2) 지역인사 또는 주민들이 활동시에 특별히 내는 찬조지원금
- 3) 독지가의 지원 또는 후원회조직을 통해 적립된 기금
- 4) 지도자들의 자비
- 5) 현재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기관의 보조(지방연맹 또는 중앙연맹 등)

